

Art & Life

충청매거진



Cover Story

문화가 숨 쉬는 명품도시 대덕구
최충규 대덕구청장

8

Vol.277

SINCE 2002 Art Chungcheong Magazine

26p Art column
양동길의
「문화예술 들춰보기」

48p Travelog
대전 작가 15인
몽골 초원에 '쉼표'를 그리다

74p Art news
오지호 김기창 김환기…
‘한국미술 100년’을 만난다

88p Exhibition
심향맥전, 심향 선생의
예술세계 새롭게 조명하다



우경환 사진작가

국제라이온스협회 한국연합회 사무총장
(사)한국예총 대전광역시연합회 이사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운영자문 위원
대전광역시 사진대전 초대작가
한국 창작사진가협회 14,15대 회장
대전사진씨클 총연합회 7,8대 회장
(사)한국사진작가협회 24,26,29대 이사
전,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대전광역시 지회장



솔성의 일몰

함께 나누는 지역소식

임신 전 건강검진비 최대 13만 원 지원

대전시는 임신과 출산 장려를 위해 가임기 남녀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20세 이상 49세 이하 시민을 대상으로 여성은 최대 13만 원, 남성은 최대 5만 원의 검사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검사를 원하는 시민은 'e보건소'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보건소를 방문해 사전 신청 후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참여의료기관은 e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과 042-270-4841**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물놀이장 개장

대전시 동물보호사업소는 무더운 여름철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물놀이장을 개장한다. 대전반려동물공원에 설치되는 물놀이장은 반려동물 크기에 따라 3개 구역으로 나눠 8월 10일까지 운영된다. 물놀이장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고, 1회 이용 시간은 75분으로 제한된다. '대전OK예약서비스'에서 사전 예약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대전동물보호사업소 042-270-7231

여름방학 '디지털새싹 캠프' 운영

대전시교육청은 올 여름방학 동안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새싹 캠프' 240개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 디지털새싹 프로그램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함양하고, 지역·여건에 따른 교육 격차를 해소하며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 교육에 대한 흥미와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신청은 8월 31일까지 '디지털새싹' 누리집(newsac.kosac.re.kr)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상시 신청하면 된다. **대전시교육청 042-616-8900**

세계 자살예방·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

대전광역자살예방센터는 9월 5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2023년 세계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 날 행사는 유공자 표창, 공모전 시상, 서울삼성병원 정신건강 의학과 전홍진 교수초청 강연 등을 진행하며, 참가 접수 신청은 8월 25일까지다. **대전광역자살예방센터 070-4285-5824**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 시행

대전시는 전동킥보드의 무단 주·정차를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을 전면 시행한다. 신고 대상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PM 전용 주차존이나 '타슈' 및 자전거 거치대에 정상적으로 주차된 경우는 제외된다. 신고는 포털 사이트에서 '대전시 전동킥보드 신고'로 검색하거나, 대전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보행자전거과 042-270-6342**

유성구 '어르신 운전증' 표지 무료 배부

유성구는 70세 이상 운전자에게 '어르신 운전증' 표지를 무료 배부한다. 표지는 운전자가 차량에 쉽게 부착하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고무자석 형태로 제작됐다. 지원 대상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70세 이상 운전자다.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유성구청 042-611-2129



'사이언스 나이트 캠프' 참가자 모집

대전관광공사는 TCIS(대전외국인학교)와 협력해 여름방학 동안 대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체류형 가족 과학 관광 프로그램 '사이언스 나이트 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캠프는 여름방학을 맞은 초등 4학년 이상의 자녀를 둔 3~4인 가족을 대상으로 반딧불이 체험, 영어로 탐구하는 과학세션, 천문강의 및 별빛 관측, 가족 레크레이션, 학교투어 및 국제학교 설명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캠프는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23일까지 금, 토 일정으로 총 4회 유료로 운영된다. **대전관광공사 042-383-6855**

대덕구 '양심양산' 대여소 운영

대덕구는 여름철 폭염 대응을 위한 '양심양산 대여소'를 운영한다. 오는 9월까지 구청과 각 동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등 16곳에 양심양산을 비치한다. 구민 누구나 자유롭게 빌려 쓸 수 있도록 자율대여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덕구청 042-608-6114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시범 설치

대전시가 시민 갈등과 길고양이 복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시범 설치'에 나선다. 시는 유성구 관평천, 궁동하교, 유림공원 등 5곳에 급식소를 시범 설치·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급식소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중성화를 통해 개체수를 조절해 인수 공통전염병 예방, 울음소리, 쓰레기봉투 훠손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농생명정책과 042-270-38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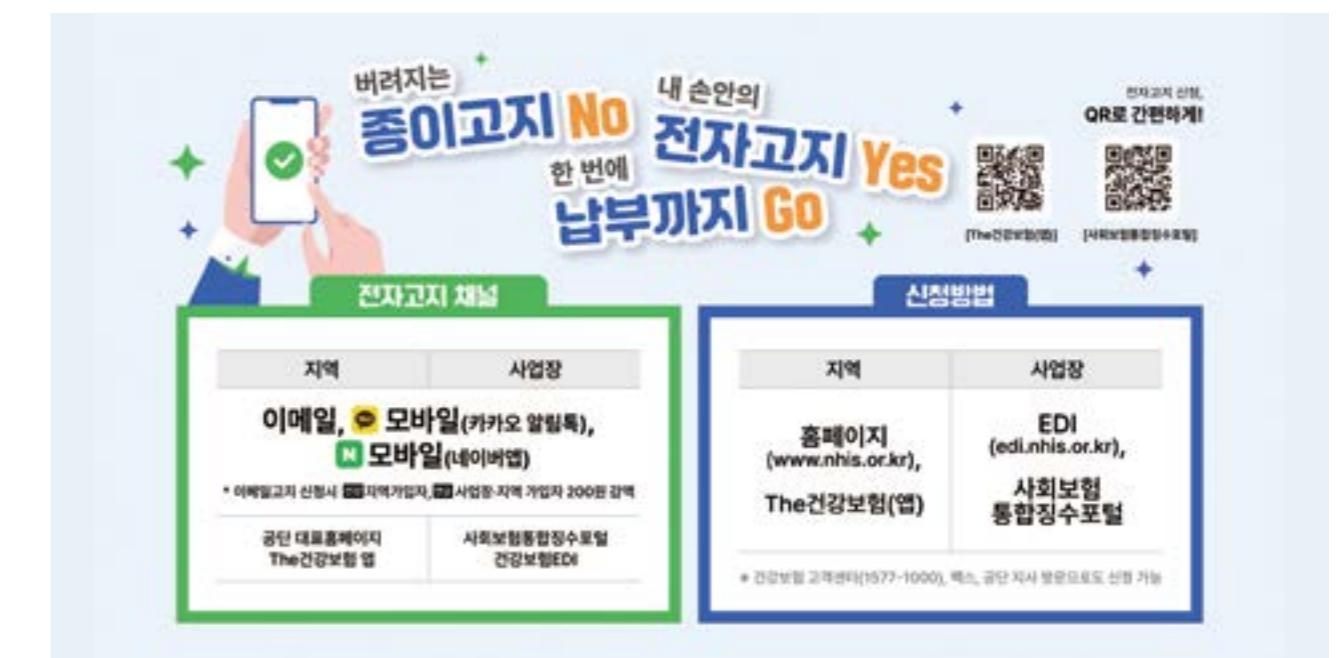
인권문화 확산 공모전 개최

대전시는 시민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인권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2025 대전시 인권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8월 31일까지 작품을 접수하며 우리 주변의 누구나 인권이 침해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의미를 가진 작품이면 모두 응모가 가능하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대전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는 대전시 인권공모전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다.

법무통계담당관실 042-270-3452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물놀이장 개장

대전시는 이동노동자들의 노동 현실을 조명하는 '2025년 이동노동사진 공모전'을 연다. 이동노동자는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업무시간 및 장소가 일정치 않고 이동하면서 일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만 18세 이상 대전 시민이나 관내 직장에 재직 중이면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 오는 9월 30일까지 이메일 (djmwrp@gmail.com) 또는 대전광역시 이동노동자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동노동자쉼터 042-825-1955**



*제공/ 대전시 「일류도시대전」 편집실



나태주의 편지

여전히 살아 숨 쉬는 시인 윤동주

이 세상에 윤동주란 이름처럼 아름다운 이름은 없다. 윤동주란 이름처럼 부드럽고 둥글고 순하고 선한 이름은 없다.

윤동주란 이름처럼 신선하고 향기롭고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이름은 없다. 윤동주란 이름처럼 오래도록 살아서 숨쉬는 이름 또한 없다.

본디 사람의 이름이란 어둠의 사람을 밝음의 사람으로 이끌어내는 구실을 한다. 호명(呼名)이다. 다만 보편타당한 사람인 그를 특별한 사람인 그로 특정한다. 처음엔 이름이 사람을 결정하지만 나중엔 사람이 이름을 결정한다. 그의 인생과 삶의 모습들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윤동주. 어쩌면 평범한 누군가의 이름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름은 매우 특별한 이름이 되었다. 우리나라 사람, 한글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되었다. 왜인가? 그의 삶과 인생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이름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삶과 인생의 자취가 중요했던 것이다.

윤동주. 일본 식민지 시절의 한국 시인. 만주 땅 용정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공부하고 일본 땅에서도 공부한 사람. 끝내는 일본인들에게 불잡혀 감옥살이하다가 세상을 뜯은 사람. 아깝기도 해라. 28세의 짧은 생애. 결혼도 하지 않은 남자. 끝까지 시만 쓴 사람. 그것도 한글로만 쓴 시인.

여기서 점증법의 느낌이 온다. 아쉽다. 안타깝다. 얹을하다. 분하다. 미안하다. 송구하다. 슬프다. 사랑스럽다. 가슴에 안고 싶다. 아! 울고 싶다. 느낌은 끝내 꽃이 되고 강물이 되어 흐른다. 바다에 이른다. 그야말로 원융(圓融)의 바다다.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의 강토와 독립을 빼앗고 짓밟던 그 시절은 매우 잔인한 시절이었다. 우리의 문화와 정신을 말살

하던 시절이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글과 우리 말을 쓰지 못하도록 강요한 일이다.

그런데 윤동주 시인은 한글로만 시를 썼다. 많은 문사들이 일본인들의 눈치를 살피며 일본 말과 일본 글로 시를 쓸 때 오직 한 사람, 이 젊은 시인만은 한글과 우리말을 고집하며 시를 썼다.

그런 점에서 윤동주 시인이 그 시절 아름다운 한글과 우리 말로 시를 쓴 것은 하나의 애국 운동이고 독립운동에 해당하는 위대한 일이었다. 이러한 속내를 일본인들이 모를 리 없었다. 그래서 시인을 불잡아 감옥에 가두었고 모진 고문 끝에 죽도록 만들었다.

윤동주 시인이 얼마나 아름답고 순결한 시인인가 하는 것은 그의 시를 읽어보면 대뜸 아는 일이다. 철저한 구어체, 온건한 이념, 순수하게 우리말로만 쓰인 문장, 순결한 시의 내용, 인간의 본성인 부끄러움에 바탕을 둔 시 정신. 이러한 점들은 오늘날 읽어도 여전히 새롭고 아름답게 다가온다. 모름지기 좋은 시란 당대에만 읽히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까지 두고두고 읽히는 시여야 한다. 두고두고 인간의 삶과 정신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바로 그러할 때 윤동주 시인의 시처럼 영향력이 큰 시를 찾아보기란 어렵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각성을 준다. 정신 차려야 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아름답게 살아라, 정결하게 살아라 등 명시적으로 가르치지는 않지만 잔잔한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깨우치며 우리의 발길을 인도한다. 그런 점에서 윤동주 시인은 두고두고 민족의 스승이며 그의 시는 참 좋은 마음의 교과서이다.



우리나라 하늘에 뜬 별은 모두 윤동주 시인의 것이다. 놀라운 일이다. 어찌 그 많은 별들이 윤동주 시인의 전유물이 었더란 말인가! 이렇게 한 편의 시가 주는 영향은 놀랍도록 크고도 높다. 어쩌면 시인의 생애와 삶, 시의 문장 배면에서 느끼는 미안함과 섭섭함 때문에 두고두고 우리는 윤동주 시인을 아끼고 기리고 감동하고 사랑하는 것이리라.

윤동주 불패. 내가 지어낸 말이다. 윤동주 시인은 다만 한 권의 시집을 가진 시인이다. 그런데도 언제든 윤동주 시인의 책은 베스트셀러다. 형태를 어떻게 바꾸든지 윤동주 시인의 저작물은 인기가 높다. 윤동주란 이름이 불러오는 매직 현상이요, 기적이다.

그리하여 윤동주 시인은 날마다 순간마다 부활한다. 사람들 마음속에 시의 꽃을 피운다. 사랑의 꽃을 피운다. 시를 넘어선 인간의 길을 가르쳐준다. 미래로까지 멀리 뻗어간 길이다. 깨끗한 바람이 불어오는 길이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모두가 선한 동행이 된다. 이웃이 되고 연인이 된다. 고맙습니다, 윤동주 시인님. 감사가 나온다.

윤동주 시인의 시는 우리 말과 한글의 영광이다. 한국어도 윤동주 시인의 시에 이르면 최상의 언어, 자극히 선한 언어가 된다. 시인은 비록 일찍 떠났지만 시인은 여전히 살아서 숨 쉬는 생명이다. 시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 말과 한글이 사라지지 않는 한 윤동주 시인의 시는 영원히 우리 민족 앞에 먼저 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우리들 마음속에/ 더는 나이를 먹지 않는 한 청년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 영혼 속에/ 더는 변하지 않는 한 권의 시집이 숨 쉬고 있습니다// 금방 감아서 물기도 채 마르지 않은 검은 머리칼/ 상큼한 비누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슬 내린 풀밭 풀꽃 향기가/ 어른거리기도 합니다// 그 시인은 남의 나라 땅/ 슬프고 외롭고 추운 별이 되어/ 떠돌다가 하늘로 간//

불행한 시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인과 그 시인의 시집으로 하여 우리는/ 오래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오래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금 우리들 마음의 하늘에 그 시인은/ 지지 않는 빛나는 별이 되었습니다.

- 나태주 '윤동주 시인' 전문

※제공/대전시 「일류도시대전」 편집실



'대전 0시 축제' 봄업 위한 패밀리테마파크 개막

16일까지 옛 충남도청사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과 공연 이어져



대문화재단이 '대전 0시 축제'의 봄업 조성을 위해 지난 2일부터 옛 충남도청사에서 운영을 시작한 패밀리테마파크가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개막했다.

8월 4일 대문화재단에 따르면 이번 패밀리테마파크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체험 공간으로 구성돼 눈길을 끌고 있다. 꿈돌이언덕, 감필라고 해변, 감필라고 갤러리 등 상상력을 자극하는 테마 공간과, 꿈돌이 가든, 꿈씨과학실, 꿈씨오락실 등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한 체험 공간이 마련돼 다양한 세대를 만족시키기 충분했다.

여기에 대전웃다리농악, 줄타기, 드라마서커스, 실버마이크 등 풍성한 공연 콘텐츠가 어우러지며 다채로운 문화예술 향연을 선사했다. 특히 일부 시민들은 이른 오전부터 행사를 찾아 프로그램 오픈을 기다리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줄타기 공연이었다. 줄광대의 아슬아슬한 외줄 묘기와 익살스러운 입담은 관광객들의 탄성을 자아내며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백춘희 대문화재단 대표이사는 "패밀리테마파크는 온 가족이 문화예술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쉽게 체험 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라며 "대전 0시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패밀리테마파크는 오는 16일까지 계속되며 기간 중 매일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자세한 일정은 대문화재단 공식 홈페이지 및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부금 모아 꿈돌이 라면 2000개 기부

동구 아동복지시설에 전달



대문화재단이 따뜻한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지난 7월 28일 대문화재단에 따르면 대전 동구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에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기부금으로 마련한 '꿈돌이라면' 2000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재단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무더운 여름철 아이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지역 캐릭터 '꿈돌이'가 그려진 라면은 대전의 정체성과 따뜻한 정을 담은 상징적인 물품으로, 아동들에게 큰 기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춘희 대표는 "문화의 본질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따뜻한 마음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문화재단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은 물론,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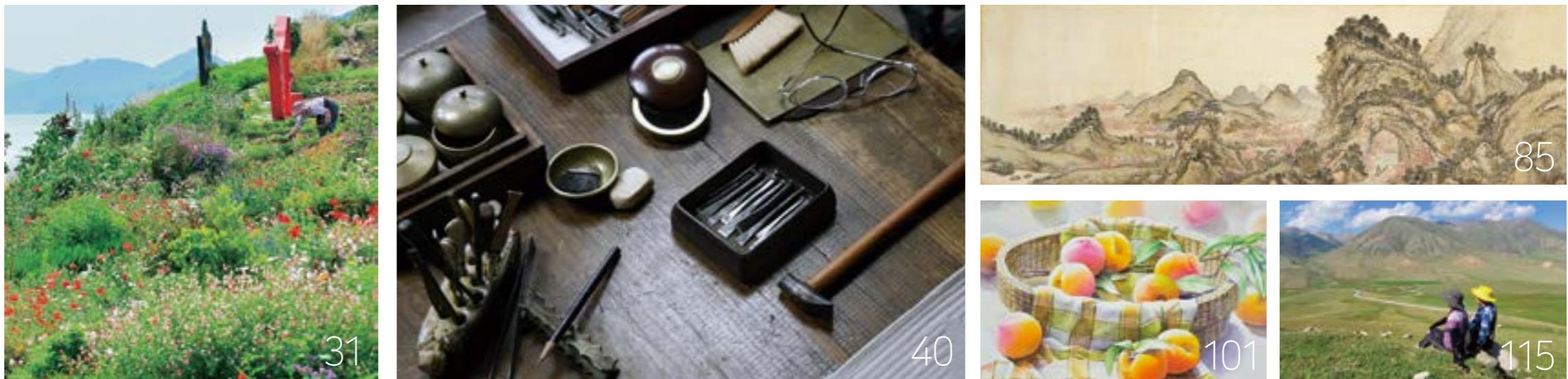
ART & LIFE
Chungcheong
Magazine

2025년 8월호 통권 277호
www.ccmnews.co.kr



Cover story
최충규 대덕구청장

20



Art column

26 양동길의 「문화예술 들춰보기」 조선시대 축제, <월야선유도>

Travelog

- 30 삼치꽃밭이 된 섬 … 그 옆 미술관이 된 섬
- 34 아슬랑아슬랑 낙원의 섬 영광 낙월도
- 48 대전 작가 15인, 몽골 초원에 '쉼표'를 그리다
- 116 장수 최고의 비경 '덕산계곡'서 여름을 씻다

Art news

- 42 대전시립미술관, 지역미술조명사업Ⅱ '비상飛上' 개막
- 52 이응노미술관, 2025 이응노미술관 파리이응노레지던스
- 56 대전 0시 축제, 축캉스가 시작된다!
- 70 대전예총, 2025 한여름밤 서람이 팝스콘서트 마무리
- 74 오지호 김기창 김환기… '한국미술 100년'을 만난다
- 78 대한문인협회, 시 문학 발전을 위한 임원 워크숍
- 80 IWPG 글로벌 10국, 제7회 '세계여성리더 평화간담회' 개최
- 114 위전환·임귀옥 여행작가, <두 발로 중앙아시아 4개국 여행> 발간

Museum

84 무등산 자락 걸터앉은 건물… 숲의 풍경 고스란히 품었네, 광주 의재미술관

Exhibition

- 88 심향맥전, 심향 선생의 예술세계 새롭게 조명하다
- 90 김영심 개인전, 마음의 고향- 그 향기를 담다
- 92 이성영 한국화가, 칼날로 쓴 자유와 평화의 서사
- 94 제7회 아인의 사계전, 손글씨로 피어난 따뜻한 감성
- 96 김나현 개인전, 묵으로 쓰고 그린 '나현 생각'
- 98 박진현 개인전, 고희를 맞아 '墨에서 길을 묻다'
- 100 제3회 수임회, 여름날의 '빛을 담은 물놀이' 전 개최
- 102 박경희 개인전, <여름 향기> 그윽한 복숭아의 향연
- 104 아리아 드로잉 창립전
- 106 위전환 작가, 첫 번째 서화전 '마음을 그리다'
- 108 이순례 작가, 규방공예 바느질 개인전

자매지/ 충청데일리

- 대 표_ 김구희
발행인_ 지순분
편집장_ 김구희
문화부/부장_ 김수연, 김지현
차 장_ 김태웅 객원기자_ 이민우
편집기자_ 이선희
인쇄/디자인_ 영광프로세스

정가 12,000원 (신용카드결제 가능)
입금계좌: 농협 302-0192-3847-01 예금주/ 지순분(충청매거진)

본사_ 대전시 중구 대흥로22아트빌딩 602호(대사동)

Email_ ccm3363@hanmail.net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문화가 숨 쉬는 명품도시 대덕구

최충규 대덕구청장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민선 8기 3년을 돌아보며 가장 의미 있었던 성과에 대해 “지난 3년간 대덕구는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실현을 위해 미래지향적 도시기반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해 왔다”며 “특히, △대전조차장 입체화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지정되며 50년 숙원의 과제를 해결할 기반을 마련했고, △대덕구 신청사 착공, △연축 도시 개발, △디지털 물산업 빨리 협약 체결 등 대 규모 미래 기반 사업들이 본궤도에 오른 점이 큰 의미를 가진다”고 회고했다. 최 구청장을 만나 성과와 현안사업 등을 들어봤다.

대담·글/ 김구희 편집국장

민선 8기 3년을 돌아보며 가장 의미 있었던 성과는 무엇인가?

지난 3년간 대덕구는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실현을 위해 미래지향적 도시기반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해 왔다.

특히, △대전조차장 입체화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지정되며 50년 숙원의 과

제를 해결할 기반을 마련했고, △대덕구 신청사 착공, △연 축 도시 개발, △디지털 물산업 빨리 협약 체결 등 대 규모 미래 기반 사업들이 본궤도에 오른 점이 큰 의미를 가진다.

아울러 △대전 최초 케어안심주택 늘봄채 개소, △1인 가구 안심케어 서비스, △전국 최초 어르신돌봄건강학교 등 대덕형 복지모델의 전국 확산 가능성을 보여준 점, 대덕물 빛축제 등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에 힘쓴 문화정책의 성과 도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성과 중심 행정, 적극행정, 전략적 재정 운영을 바탕으로 변화와 도약의 토대를 마련한 3년이었다고 생각한다.



구정 운영의 비전인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는 어떻게 실현되고 있나?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는 주민의 삶 전반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복을 실현하겠다는 민선8기의 핵심 비전이다.

이를 위해 대덕구는 6대 구정방향(△희망찬 미래사 회 △따뜻한 복지환경 △

활기찬 지역경제 △대단한 문화가치 △행복한 매력도시△친절한 공감행정)을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해 왔다.

먼저, 도시 기반 정비와 신청사 건립, 대전조차장 입체화 등 도시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인프라 사업을 통해 정주 여건 개선에 힘썼고, 케어안심주택 늘봄채, 방문의료지원센 터, 어르신돌봄건강학교 등 K-돌봄 대표도시로 돌봄 사각 지대를 줄여 나가고 있다.

또한, 대덕물빛축제와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등 문화생 활 향유 기회를 대폭 늘려 지역의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다.

미래지향적 도시기반 조성·주민 삶의 질 향상 주력



2025년 2월 2025 K-브랜드 어워즈 복지행정도시 부문 우수 브랜드 선정

구민이 일상 속에서 안전·문화·복지·교통·경제의 긍정적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즐거운 변화’를 계속 만들어 가고 있다.

공약사업 45개 중 33개가 완료 또는 계속 추진 중인데, 공약 이행 과정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민선 8기 대덕구의 공약이행률은 2025년 5월 말 기준 이행률이 86.6%에 달함. 전체 45개 공약 중 △6건 완료(13.3%) △27건 이행 후 계속 추진(60%)으로 총 33건이 이행 완료 단계에 있으며 △12건(26.7%)은 정상추진 중이다.

이러한 성과는 무엇보다도 실행력을 고려한 공약 수립, 정기적인 이행점검, 주민 참여 기반의 행정 운영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공약 단계부터 실현 가능성은 따졌고, 예산 확보, 제도적 기반, 행정 역량을 고려해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마련했다. 이후에는 ‘대덕비전 TF’와 분기별 이행점검 회의를 통해 부

서 간 협업과 문제 해결을 유도했고, 필요시 사업 내용을 보완하거나 일정 조정도 유연하게 대응해 왔다. 또한, 공약사업 주민 평가단 운영과 홈페이지 공개를 통해 주민이 직접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구조도 마련했다.

그 결과, 일자리 창출, 도시개발, 문화체육 인프라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상당수 공약이 실제 성과로 이어졌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도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2024·2025년 2년 연속 최우수(SA) 등급 을 획득했다.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정보공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 우수(SA) 등급 선정 및 공모사업 예산 확보의 비결은?

우리 구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준 결과로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으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SA) 을 받았음. 우리 직원들과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구민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



2025년 5월 마니페스토 공약평가 2년 연속 최고등급(SA) 달성



2024년 10월 최충규 대덕구청장이 대덕구 신청사 지열설비 착수 현장에서 인사 말씀을 건네고 있다



2024년 9월 덕암동에 개소한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둘러보고 있다.



2024년 11월 치매관리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저는 평소부터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생각하에 매주 수요일을 '현장 행정의 날'로 삼아 지역 곳곳의 민원 현장을 살펴 보고, 그 외에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였으며, 밤낮 없이 주민들을 위해 뛰어다녔다.

국·시·비 확보에 있어서는 대덕구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KOSIS 국가통계포털 2025년 5월 기준 재정자립도는 △대전시 41.1% △동구 9.9% △중구 12% △서구 16.3% △유성구 25.7% △대덕구 13.5%임. 자치구 간 큰 차이는 없으나 대덕구는 5개 자치구 중 3위에 해당한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대전시 및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구하기도 하고, 중앙·시·민간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공모 사업에 응모하거나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둬 포상금·사업비를 확보하는 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23년도 435억 원에 이어 2024년도는 493억 원을 확보했다.

대전조차장 입체화 사업이 본격화되었는데, 대덕구에 미칠 변화는?

대전조차장 철도 입체화 사업은 대덕구의 50년 숙원이었다. 지난 2025년 2월, 이 사업이 정부의 '철도 입체화 통합 개발 1차 사업'에 선정되며 마침내 국가 차원의 핵심 사업으로 공식화됐다.

이번 사업 확정에 따라 현 대전조차장을 타 지역으로 이전한 후, 기존부지(대덕구 읍내동 426일원, 약 48만㎡)를 대상으로 입체화 통합개발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상부 인공지반 조성(데크화)'을 중심으로 한 도심 공간 재구조화 등 단순 철도 지하화에서 입체화로 사업 범위를 확대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

대덕구도 추진 방향 연구용역 및 주민공청회 개최 등 주민 여론 수렴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 대전조차장 부지는 오는 2037년까지 약 1조 4000억 원이 투입돼 청년 창업지구, 빅테크, 미디어 등 IT 관련 특화 지구 등 대전산업단지·대덕연구개발특구 인프라를 적극 활용, 대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공간으로 재창조될 예정이다.



효자지구 조강도



신청사 조강도

조성 이후 수십 년간 지속됐던 대덕구 동서 단절 문제를 극복함과 동시에 △새로운 도시공간 창출 △청년 창업과 청년산업 유치를 통한 새로운 경제 거점 형성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유입 △정주 여건 개선 등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연축지구, 효자지구 등 주요 도시개발사업의 현재 상황과 향후 계획은?

연축지구는 대덕구의 미래 50년을 책임질 핵심 성장축임. 현재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연축지구를 관통하고, 대덕구 신청사도 이곳에 들어설 예정이라 도시 중심 기능이 집중되는 핵심 거점이 되고 있다.

우선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총 면적 24만 930㎡, 1,359 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2024년 4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후 약 15년 만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곳에는 공공청사, 공공주택, 학교, 도로, 공원 등 자족형 복합도시 기능이 들어서게 된다.

또 하나의 주목할 사업인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덕구 읍내동 240번지 일원 약 6만 6389.3㎡ 부지에 추진되며, 지하 3층~지상 29층, 11개 동 규모의 공동주택 1,620 세대가 조성될 예정이다. 2024년 중 보상 및 지장률 철거를 완료하고 2025년 착공,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두 지역은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추진과 연계되는 대전조차장역 통합개발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공공기관 이전 △신대동 디지털 물산업밸리 조성 △경부고속도로 회덕IC 완공 등 지역발전의 근간인 간선 및 대중교통시설, 관

공서 유치, 연구시설 입주 등 가치를 높일 개발 호재들도 예정돼 있다.

대덕구 신청사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 현재 상황은?

연축지구 중심부에 들어서는 대덕구 신청사 건립사업은 행정·문화·주민 기능을 융합한 미래형 복합청사 조성 사업으로, 총사업비 1598억 원을 투입해 추진 중이다.

현 청사(오정동)는 협소하고 노후화돼 공간 한계가 심각했지만, 신청사는 행정 효율성은 물론 주민 편의성과 접근성을 모두 고려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신청사는 연면적 48,810㎡, 지하 2층~지상 9층 규모로 조성되며, 구청과 의회, 보건소가 신청사 내에 들어와 대덕구의 위상에 맞는 크기의 건물이 될 것이다. 신청사 건립비용은 2014년 당초 계획된 1200억 원에서 1598억 원으로 증액됐다. 증액 사유는 인건비 및 원자재 등 물가상승 영향이며, 현재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2024년 기준 적립된 청사 건립기금 900여억 원과 오정동 현 청사부지 등 매각대금 500억 원, 나머지 198억 원은 2026년까지 연차별 신청사 건립기금 확보 등을 통해 무리 없이 건립비용을 충당할 것이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 10월 지열 공사 착수를 시작으로 2027년 준공과 입주를 목표로, 연축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 기반시설 조성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신청사는 단순한 행정 공간을 넘어, 대덕구 미래 50년을 담는 구심점이자 구민의 자부심이 될 것이며, 특히 공공·행정·문화 기능이 융합된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구민이 언제든 찾고 머물며 소통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대덕불빛축제(대청호뮤직페스티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최근 대덕구는 생활SOC 중심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데, 현재 추진사항은?

대덕구는 구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며 문화예술 등을 향유할 수 있도록 주민을 위한 생활SOC 시설인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 시설은 다양한 공공시설을 한곳으로 모으고 각종 생활기능을 유기적으로 배치하는 집적화를 통해 이웃과 소통·공유의 공간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대덕구의 첫 작품은 중리근린공원 복합문화센터다. 지난 2020년 생활SOC 복합화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사업비 58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231㎡ 규모로 건립됐으며, 2023년 10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센터 1층에는 작은 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가, 2층에는 국민체육 센터가 조성돼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은 물론 평생 교육의 장으로서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의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중리근린공원 복합문화센터 개관에 이어 2019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 선정으로 추진된 '석봉복합문화센터'도 마침내 2024년 7월 개관했다.

신탄진동·목상동·석봉동·덕암동 등 북부권 4개동 지역 주민을 위해 건립된 '석봉복합문화센터'는 총사업비 341억 원이 투입돼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 2,639㎡ 규모로 건립됐다.

해당 시설에는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도서관, 주민건강센터와 로컬푸드직매장, 국민체육센터 등 다양한 주민편의 시설이 곳곳에 배치돼 지역민들의 문화와 편의시설 갈증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교육부 주관 '2024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에 대덕구 새일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신탄진 지역에는 오는 2028년까지 또 하나의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연면적 4,300㎡, 지하 2층, 지상 1층 규모로 △지하 1층 생존 수영센터, 주차장, 도서관 △지상 1층 도서관, 북카페, 돌봄교실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전체 사업비 250억 원 가운데 총 175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며, 2025년 건축 기획설계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표축제인 대덕불빛축제가 대덕의 도시브랜드에 끼친 영향은?

"대덕불빛축제는 자연·문화·기술이 어우러진 대덕형 감성 생태축제로, 도시 브랜드 가치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2025년 축제는 '대청호, 고래는 바란다'를 주제로 3월 28일부터 4월 26일까지 한 달간 금강로하스대청공원 일원에서 개최되었으며, 총 31만여 명의 방문객이 찾았다.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에 따르면, △지역문화 발전 기여도 98.2% △브랜드 가치 향상 기여도 97.4% △관광산업 기여도 97.4% △상권 활성화 기여도 97.2% 등 모든 항목에서 97% 이상의 긍정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분석된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82억 원으로, 단순한 지역행사를 넘어 전국적 축제로의 성장 가능성을 입증했다.

축제는 야간 경관조형물, 프린지 무대, 고래고래노래자랑, 효 콘서트 등으로 구성되어 낮과 밤 모두 대덕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완성되었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 기획·운영에 참여하는 참여형 공동체 축제로 확장되었다.

특히 '빛과 문화가 흐르는 도시 대덕'이라는 이미지를 정착시키며, 불빛축제는 도시브랜드와 지역경제, 문화공동체 형성을 동시에 견인하는 핵심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남은 임기 1년 동안 꼭 이루고 싶은 정책 목표와 구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민선8기의 마지막 1년은 지금까지 다져온 성과 위에 실질적인 완성과 지속 가능성을 더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그동안 추진해 온 핵심 사업들이 흔들림 없이 마무리되고,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대덕형 통합돌봄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완성하고, 저출생 대응 및 1인 가구 정책도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가겠다. 아울러 문화·체육 인프라를 확충해 '살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 무엇보다 행정의 중심에 항상 '주민'을 두고,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

구청장으로서의 남은 임기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닌, 구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미래의 기반이다. 그동안 보내주신 응원과 비판 모두에 감사드리며, 마지막까지 한결같은 자세로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를 실현해 나가겠다.



지난 1월 법2동 탄소중립 녹색성장 주민실천연대 발대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문화예술 들춰보기

조선시대 축제, <월야선유도>

사람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 변화를 모색한다. 선진문화는 경험해보지 못한 문화, 상대적으로 앞서가는 우수한 문화이다. 앞서가는 것, 우수한 문화는 무엇일까? 경험하지 못하던 것,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이상향이라. 자유롭고 풍요로운 인간성 해방에 삶과 이성의 질 향상도 포함된다.

조선시대 전체가 문예부흥기란 주장도 있으나, 18세기가 문예부흥기라는 것에 대부분 동의한다. 기꺼이 문화예술을 즐겼음은 물론, 뒷날의 그것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문화는 물과 같아, 없는 곳으로 거듭거듭 스며든다. 보편화 된다. 차등의 구분은 일시적일 뿐 협사리 경계가 사라진다. 신분과 관계없이 참여하고 즐기는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우리는 본래 운치와 풍치를 즐기던 민족 아니던가? 막걸리 한잔에 온종일 신명낼 수 있는 특별한 민족이다. 멋스럽게 노는 풍류, 음풍농월(吟風弄月)이 자연스러워 너나없이 즐긴다. 일상생활에서도 아름다움, 멋스러움, 고상함을 즐기려는 속성이 매우 강하게 드러난다. 축제는 그러한 것이 함께 어우리지고 즐기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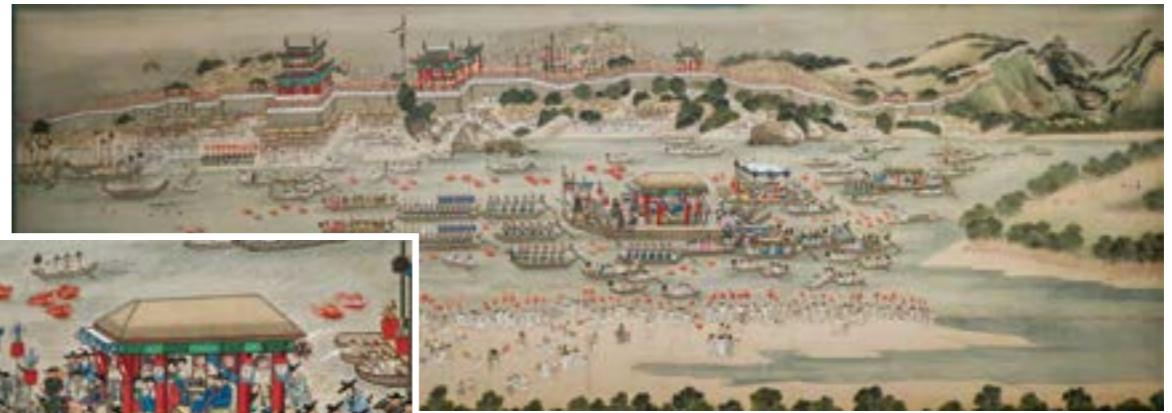
안타까운 것은 사치, 타락, 부패 등과 친밀하다는 사실이다. 이웃사촌이랄까, 호불호가 백지장 차이다. 경계가 모호하고, 동반자처럼 늘 따라다닌다.

“평양감사(평안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란 말이 지금도 곧잘 회자된다. 조선시대 평안감사는 왜 벼슬아치에게 선망의 대상이었을까? 지위뿐 아니라 누리는 혜택과 특권이 많고 재물도 쌓였던 까닭이리라. 그런 호사는 감사로 부임하면서부터 시작되었던 모양이다.

평안감사가 부임하면 축하연이 열린다. 그것도 세 번씩이나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장소를 옮겨가며 있었던 모양이다. 전 김홍도 필 《평안감사항연도》에 의하면 맨 먼저 부벽루에서 열리고, 연광정, 대동강에서 차례로 연회가 펼쳐진다. 대동강에서 열릴 때는 밤이다. 환하게 횃불 밝히고 노는 배놀이다. 그때 모습을 그린 것이 <월야선유도(月夜船遊圖, 종이에 채색, 71.2×196.6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이다.



양동길
대전동구문화원장



월야선유도



월야선유도 부분 클로즈업

지금 보아도 장관이다. 평양성 대동문 앞이다. 가운데의 가장 커다란 평저선 뒤쪽에 감사가 앉아 있다. 앉은 자리 앞에는 한 무리 여인이 있고, 배전에서는 악사가 악기연주에 열중이며, 뒤쪽으로 다양한 사람이 옮겨 타고 있다. 배 뒤쪽에는 공연자로 보이는 예인들이 탄 여러 척의 배가 있다. 빙 둘러선 배에는 군관과 군졸이 호위하고 있으며, 그 밖으로 늘어선 수십 척의 배에 서고 앉은 사람, 강과 성 사이 및 성위에서 수많은 사람이 놀이를 주시하고 있다. 성곽 위에 횃불이 빽빽히 꽂혀있고, 성벽 앞쪽에도 여기저기 횃불 치켜든 사람이 보인다.

아래쪽 백사장에도 횃불 든 사람과 구경꾼 모습이 자유분방하다. 자세히 분석해 놓은 책이 있다. 이영훈 저 <조선시대생활사 3>에 의하면, 그림 아래쪽 백사장에 등장하는 인물은 224명이다. 모두 일반인이다. 한 사람 한 사람 신분까지도 조사해 놓았다. 갓(黑笠) 쓴 사람이 45명, 병거지(氈笠) 쓴 사람이 20명, 초립(草笠) 쓴 사람이 3명, 삿갓(方笠) 쓴 사람이 2명, 두건(頭巾) 쓴 사람이 1명, 맨상투머리가 39명, 여성 6명, 냉기머리 총각 81명, 더벽머리 어린아이 27명이다.

횃불 들고 늘어선 사람은 노역으로 차출되었으리라. 그 뒤에는 다양한 신분의 구경꾼이 다수 서성인다. 어찌 이 엄청난 구경거리리를 마디할 수 있으랴. 아이와 손잡고 오가는 장면, 일가족이 모두 나온 모습,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부축

한 일행, 주정꾼, 안내하고 담소하는 연회장의 천태만상이 그대로 담겨있다. 뜯어보는 재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각계 각층의 복식, 평양성과 주변 환경, 당시의 사회상이 한 눈에 들어온다.

낙관 등 근거가 없어 단정하지 못하나 김홍도(金弘道) 작으로 전한다. 김홍도는 익히 아는 바와 같이 문예부흥기인 영조 시대 주로 활동한 화원이다. 어떤 그림이든지 이야기가 가득하다. 인물이나 사물이 작아도 저마다 나름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놀라운 순간 포착이고, 표현력이다.

세 폭의 그림을 보자면 연회의 어마어마한 규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시각으로 보자면 부정부패의 생생한 현장이다. 한 사람 즐겁게 하자고 백성을 동원하고 엄청난 재정을 민관이 부담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당시에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았던 것 같다. <부벽루연회도>에는 쟁기질하고 괭이질하는 농부 모습을 연회장 뒤편에 배치하였다.

축제뿐인가? 매사가 더불어 즐기자는 것이지 특정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누구라도 모를 리 없다. 단지, 가까이 있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옆길로 새는 것뿐이다. 때로는 아름다움도 집착하면 고해가 되며, 잘못된 신념은 헤어날 수 없는 수렁이 된다.

천수만에 찾아온 천연기념물 뜸부기

‘오빠생각’ 동요는 일제의 수탈과 징용을 피해 울분을 삽이며 서울로, 만주로 떠나간 오빠를 그리는 누이동생의 애절한 정이 담긴 노래로 동요시인 최순애(1914~1998) 선생이 어린 시절에 쓴 동심 가득한 작품이다. 노래가 지어진 1925년 우리 들녘에선 무수한 뜰부기가 새끼를 키우며 여름을 낸을 것이다.

해마다 봄이 찾아오면 나는 흙먼지 날리는 천수만 간척지 비포장길을 내달리다 뜰부기의 굵고 힘찬 울음소리를 듣기 위해 종종 논둑에 올라 귀기울여 본다.

뜰부기들이 살아가던 논에서 이놈들을 발견하기란 이젠 쉽지 않다. 우리 논들이 우렁이, 수서곤충, 미꾸라지 등 다양한 생명을 키워내던 습지에서 쌀만 생산해 내는 단순하고 척박한 땅으로 바뀌면서 화학비료와 각종 농약이 살포돼 그곳에서 먹이를 잡아먹으며 새끼를 키워내던 뜰부기들은 서식지를 잃고 자취를 감춰가는 형편이다.



번식기가 되면 수컷은 머리에 닭벗처럼 붉은 이마 판이 솟고 온몸은 검푸른 색으로 바뀌는데, 멀리서 조심스레 걷는 모습을 보면 마치 검은 닭 한 마리가 먹이를 찾아 나선 듯하다.

뜸부기 수컷들이 경쟁자들과 치열한 몸싸움을 벌일 경우 대부분 힘세고 덩치가 큰 놈이 승리를 거두는데, 승자에겐 좋은 번식지와 암컷이 예약되는 셈이다. 자기 영역으로 암컷을 유인하기 위한 수컷들의 처절한 ‘러브콜’과 ‘과시 행위’는 짹을 찾기 전까지 끊임없이 이어진다.

독특하게도 노랫소리 같지 않게 ‘뜸~, 뜰~, 뜰북, 뜰북, 뜰북’ 하며 단음절 혹은 두 음절의 소리로 울어댄다. 뜰부기는 번식기에만 노래하고 짹을 찾고 나면 은밀하게 풀숲 사이로 숨어 다니는 습성을 지니고 있다.

해질녘 들판에서 온 목소리를 다해 울어대는 수컷의 세레나데는 암컷에게 자기 위치를 알리려는 것이지만, 이 울음소리 때문에 사냥꾼들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큰 몸짓에 비해 날개가 작은 뜰부기는 비행능력이 떨어져 사냥꾼들로부터 제 몸을 지키기 힘겹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0만년 전에 태어나 지구를 생명의 무대로 삼아 번성하던 뜰부기들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천적은 바로 인간이다. 1600년 이래 전 세계에서 약 20종의 뜰부기가 멸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90%는 날개가 퇴화해 날 수 없는 새들이었다. 국내에서는 몸에 좋다는 속설 때문에, 동남아에서는 고기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사냥감으로 통하는 까닭에 개체수가 계속 줄고 있다.

Travelog

꽃밭이 된 섬 ... 그 옆 미술관이 된 섬

고흥 쑥섬·연홍도를 가다

전남 고흥은 '지붕 없는 미술관'을 자처합니다. 고흥 땅 곳곳의 경관이 빼어나서 미술관에 걸린 예술작품 못잖다는 뜻에서 내걸고 있는 구호입니다. 고흥에서 그 구호에 딱 맞는 곳은 어디일까요. 자연에 사람의 손길이 보태져 더 아름다워진 곳, 그래서 그것 그대로 '예술'이 된 곳. 고흥 땅에서 그런 곳들을 찾아봤습니다. 다음은 그렇게 찾아낸, 들꽃과 미술로 예술이 된 섬 두 곳과 그림 같은 풍경을 '걷는 길'에 대한 얘기입니다.

서정의 꽃밭을 가진 수수한 섬

전남 고흥에는 '쑥섬'이 있다. 섬의 정식 행정지명은 '애도'다. '쑥 애(艾)자와 '섬 도(島)'자를 쓴다. 지도에도 그렇게 써 있다. 하지만 입말로는 그냥 '쑥섬'이다. 주민들은 물론

이고, 섬을 드나드는 관광객도 모두 그렇게 부른다. 이름처럼 섬이 작고 소박해서 그럴까. 쑥섬이란 이름이 입에 칠싹 달라붙는다.

쑥섬은 나로도항 '코앞'에 있다. 나로도항에서 여객선을 타면 3분이면 섬에 닿는다. 선착장에서 섬까지가 직선거리로 350m에 불과하다. 수영을 아주 못하지만 않는다면 너끈히 헤엄쳐서 건널 수 있겠다 싶은 거리다.

섬은 가깝지만 한 게 아니라, 작기도 하다. 고구마 모양의 본섬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의 거리가 850m 남짓이다. 해안선의 길이를 다 더해도 3km를 조금 넘는 정도다. 섬이 작으니 섬에 사는 주민 수도 고작 서른 명 남짓이다. 삼치



잡이로 섬이 제법 번성했던 1980년대에는 파시가 들어서 인구가 400명을 넘겼던 때도 있지만, 지금의 적요한 섬 분위기로 보면 좀처럼 믿기지 않는 전설 같은 얘기다.

'예술이 된 고흥 풍경'이란 주제의 첫 번째 목록에 쑥섬을 올려놓는 것은 섬이 가까워서도, 작아서도 아니다. 이유인즉 쑥섬이 마을 주민의 손에 의해 통째로 매혹적인 비밀 정원으로 가꿔지고 있기 때문이다. 쑥섬 마을 돌담 뒤로 밭을 들여놓으면 아름드리 후박나무와 동백, 가지를 뒤틀은 육박나무들이 원시 난대림을 이룬 당숲이 있고, 그 숲의 터널을 지나 섬 정상에 오르면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꽃밭이 펼쳐진다. 주민들이 가꾸는 섬 정상의 꽃밭은 바다와 어우러져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서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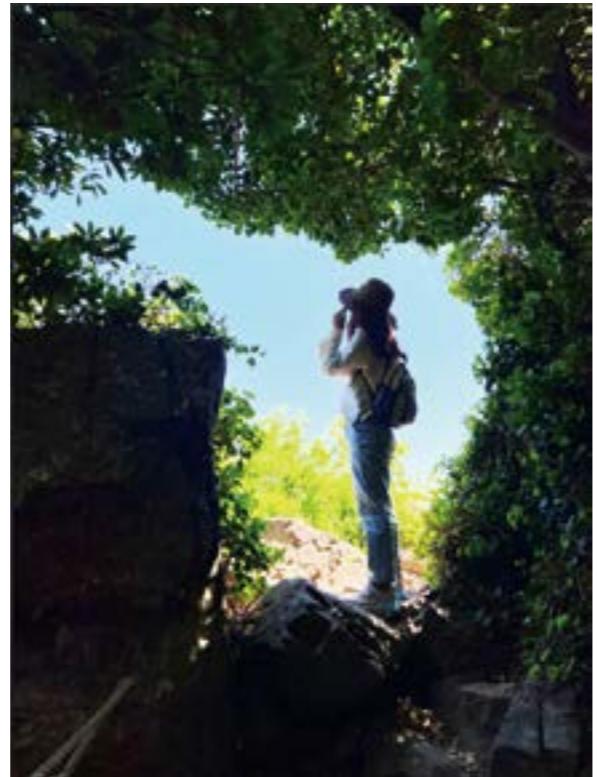
쑥섬 전체를 통틀어 가장 낭만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는 섬 정상의 꽃밭 '별정원'은 중학교 교사인 김상현(51) 씨와 약사 고채훈(48) 씨 부부가 섬 주민들과 힘을 합쳐 10년 가까이 가꾸고 있는 곳이다. 쑥섬에 가는 관광객들은 모두 이 꽃밭을 보러 간다고 해도 틀린 얘기는 아니다. 쑥섬이 '전남 1호 민간 정원'으로 지정된 것도, 행정안전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찾아가고 싶은 섬'이 된 것도 따지고 보면 다 섬 속의 이 꽃밭 덕분이다.

쑥섬의 힐링코스를 걷다

나로도항에서 쑥섬을 오가는 '쑥섬호' 여객선은 왕복 7000원의 요금을 받는다. 도선료 2000원에다 섬 탐방요금 5000원을 따로 붙인 가격이다. 5000원은, 말하자면 쑥섬 입장료인 셈이다. 섬에 들어갈 때 왕복요금을 내고 섬에서 나올 때는 그냥 배를 타고 나온다. 쑥섬에서 내리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지붕을 갈매기 모양으로 꾸민 카페다. 갈매기 카페는 마을회관 겸 여행자 쉼터. 섬 전체를 둘러보는 탐방로를 둘러리가 이 카페 뒤쪽에 있다.

탐방로에 밭을 들여놓으면 원시 난대림으로 가득한 별세계다. 어둑한 숲에는 태풍으로 뿌리가 뽁혔으나 죽지 않은 육박나무가 있는가 하면, 기이한 형태로 몸을 비틀며 자라는 후박나무도 있다.





좀처럼 보기 어려운 굵은 둥치의 불가시나무도, 마을 아이들을 위한 그네가 매어 있던 구실잣밤나무도 있다. 땔감이 부족한 작은 섬인데도 이렇게 울창한 숲이 베어지지 않았던 건, 섬사람들이 그곳을 당숲으로 여겨 신성시했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섬 안에 무덤을 단 한 기도 쓰지 않았던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다.

나뭇가지가 하늘을 가려 대낮에도 어둑한 당숲을 지나면 오솔길은 금계국이 환하게 피어 있는 언덕으로 이어진다. 언덕에서는 가슴이 탁 트이는 전망에 저절로 탄성이 난다. 먼바다 쪽으로 소거문도와 손죽도, 초도 등의 섬이 뒤擠하다. 여기서부터 해발 83m의 섬 정상 부근까지는 꽃의 영역이다. 섬 정상의 꽃밭 ‘별정원’은 섬 밖에서는 보이지 않고 짐작도 되지 않는 비밀의 정원이다. 선홍색의 꽃양귀비며 수레국화, 서양 봉선화 등 원색의 진한 색감을 뿐내는 꽃들이 어찌나 요령하고 화려한지 정신이 다 아찔해질 정도다.

지금 별정원의 꽃밭을 차지하고 있는 건 야생화가 아니라 원예종 꽃들이다. 봄꽃은 다 지고 여름꽃은 아직 먼 이즈음에는 주민들이 농사짓듯 일일이 원예종 꽃을 심어 기른다. 고되기로만 보면 꽃 가꾸기는 농사일과 진배없다. 이랑을

만들고 씨앗이나 모종을 심고 텁날 때마다 김을 매는 것도 같다. 종류에 따라 시기를 맞춰 꽃을 피우려면 온갖 정성을 다해야 한다.

그렇다 해도 이만한 크기의 꽃밭은 사실 워 그리 특별할 게 없다. 쑥섬의 꽃밭이 특별한 이유는 딱 한 가지. 꽃밭이 ‘작은 섬에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있기 때문’이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흐드러진 꽃의 서정은 작은 섬이 아니고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풍경이다.

예술로 단장된 섬, 연홍도

고흥의 작은 섬, 연홍도는 섬 전체가 미술을 담고 있는 곳이다. 쑥섬과 연홍도는 여려모로 비슷하다. 쑥섬이 고흥의 나로도에 딸린 섬이라면, 연홍도는 고흥의 거금도에 딸린 섬이다. 연홍도는 쑥섬보다 크지만 그래 봐야 ‘손바닥만 한’ 섬이다. 지금은 고흥반도에서 거금도로 건너가는 다리가 높였지만 5년 전까지만 해도 연홍도에 가려면 배를 두 번 타야 했다. 고흥 녹동항에서 배를 타고 거금도로,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연홍도로 건너가야 했던 것이다. 연홍도를 ‘섬 속의 섬’으로 불렀던 건 그래서다. 쑥섬도 나로도에 연륙교가 놓이기 전에는 연홍도와 마찬가지로 ‘섬 속의 섬’ 신세였다.

연홍도도 쑥섬처럼 뱃길이 가깝다. 선착장에서 연홍도까지의 거리는 500m에 불과하다. 선착장에서 보면 섬에서 누가 배를 기다리는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다.

연홍도에는 연홍미술관이 있다. 섬 안에 미술관이 들어선 건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의 일. 불편하기 짝이 없는 작은 섬에서, 미술관이 살아남은 건 순전히 미술관장의 혼신과 연홍도를 사랑한 예술가들의 힘 덕분이었다. 연홍도는 ‘미술관이 있는 섬’에 주목한 전라남도가 2014년부터 ‘가고 싶은 섬’ 사업대상자로 선발해 지원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미술관이 있는 섬’이란 주제로 5년에 걸쳐 40억 원을 투입한 사업은 올해 끝난다. 지금의 연홍도가 ‘미술관이 있는 섬’의 완성된 형태라는 얘기다.

섬 가꾸기 사업으로 연홍도 곳곳이 설치미술품으로 장식됐다. 배가 달는 방파제 끝에는 소라껍데기 조형물과 가족을 형상화한 원색의 철제 구조물을 세웠고, 마을 골목의 담벼락에는 독특한 소재를 활용한 조형물이 설치됐다. 바다를 끼고 있는 미술관 주변의 해안도로에도 상상력을 자극하는 다양한 조형물이 세워졌다. 미술관은 새로 다듬어졌으며 띄엄띄엄 열던 미술 전시도 이제는 1년 전시 일정을 꽉 채웠다. 식당과 찻집이 없어 관광객이 불편을 겪자 미술관은 근사한 음식점과 카페를 열었다. 이렇게 5년 만에 연홍도는 ‘미술섬’이 됐다. ‘지속가능’이란 큰 과제가 남아 있긴 하지만, 연홍도는 예술이 섬을 살려내는 충분한 동력이 될 수 있음을 훌륭하게 보여줬다.

해안도로 트레킹 코스 ‘미르마루길’ 출발지점인 고흥 우주발사전망대에서 내려다본 남열해수욕장 일대의 경관. 백사장 안쪽으로 모내기를 막 마치고 물을 담아놓은 논이 가지런하다.

해안도로 트레킹 코스 ‘미르마루길’ 출발지점인 고흥 우주발사전망대에서 내려다본 남열해수욕장 일대의 경관. 백사장 안쪽으로 모내기를 막 마치고 물을 담아놓은 논이 가지런하다.

길이 보여주는 예술적인 미감

예술로 가꿔진 두 섬에 이어 바다와 아름다운 해안 풍경 사리를 걷는 매혹적인 길 얘기를 덧붙인다. 고흥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걷기 길이 있다. 고흥 우주발사전망대에서 영남 용바위까지 4km의 해안을 잇는 ‘미르마루길’이다. 미르는 순 우리말로 ‘용’을, 마루는 ‘하늘’을 뜻한다. 이 길은 고흥에서 드라이브 코스로 이름난 영남 해안도로의 바다 쪽 절벽을 끼고 이어진다. 때로는 순한 흙길로, 때로는 나무 덱으로 다듬어낸 이 길 위에서는 해안 경관은 물론이고 다랑이논이며 몽돌해변까지 다채로운 경관을 두루 감상할 수 있다.

미르마루길의 출발은 고흥 남열리의 우주발사전망대. 전망대 앞에서 나무 덱을 밟고 해안 절벽을 내려가면 모내기를 마치고 찰랑찰랑 물을 담고 있는 다랑이논과 사자 형상을 한 바위섬 ‘사자바위’를 지난다. 미르마루길 구간에는 바닥을 유리로 마감해 절벽에 세운 스카이워크 ‘미르전망대’도 있고, 바다 가까이 내려가 용이 승천했다는 전설 속의 용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전망대도 있다. 걷기 길의 종점은 영남 용바위다. 용바위는 기이한 형상으로 가득한 거대한 바위인데, 이곳에서 용이 승천할 때 떨어진 비늘이 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Travelo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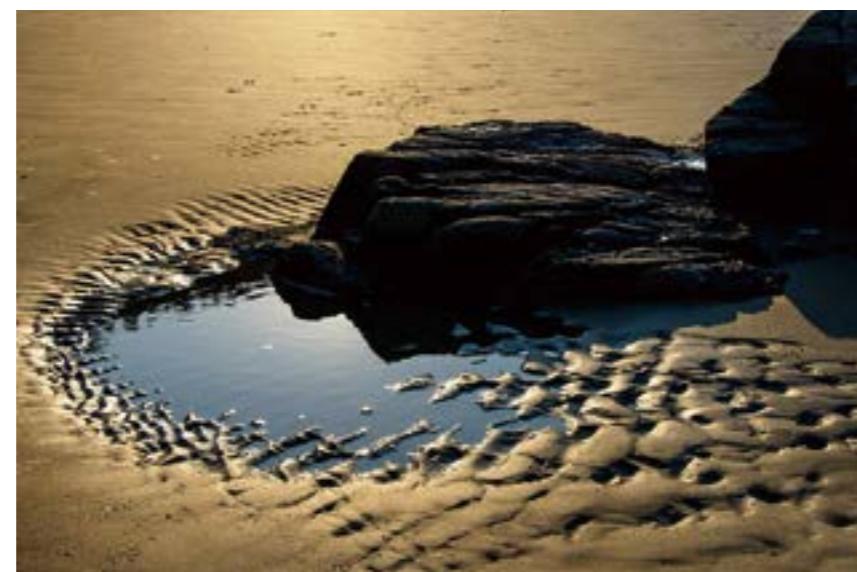
아슬랑아슬랑 낙원의 섬 영광 낙월도

낙월도는 전남 영광군 서쪽에 있다. 상낙월도와 하낙월도로 나뉘며 진월교가 두 섬을 잇는다.
 관광객의 손이 타지 않은 섬으로, 피서지의 번잡함을 피하고 싶은 이라면
 낙월도를 ‘낙원도’라 읽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힌트가 되는 몇 가지 정보가 있다. 낙월도에는 마트나 매점이 없다. 상낙월도선착장 대기실에 자판기 한 대가 전부다. 식당도 없다. 민박을 예약하면 ‘집밥’을 맛볼 수 있다. 섬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성찬은 아니어도 정갈한 식사다. 민박도 한 손에 꼽을 만큼 적다. 그러니 어지간한 간식거리는 미리 챙기자. 이쯤 되면 훈한 관광의 섬이 아님을 짐작할 테다. 먼바다 풍경을 보며 섬 둘레를 따라 아슬랑대는 것뿐이지만, 그때 얻는 여행의 기쁨은 도시 생활을 벗어나야 누리는 희열이다.

낙월도둘레길은 상낙월도와 하낙월도를 잇는다. 면사무소와 보건소 등 공공시설이 모여 있는 상낙월도가 큰 마을이고, 민가가 옹기종기한 하낙월도는 작은 마을이다. 상낙월도와 하낙월도를 각각 2시간으로 셈해 4시간 정도면 한 바퀴 돈다. 둘레길에 제주올레 같은 특별한 표식은 없다. 대체로 외길이라 길 잊을 염려는 없다. 의자나 정자 등을 자주 만나 원하는 만큼 걷다가 쉬면 된다. 그러니 섬에 굳이 차를 가지고 들어갈 이유도 없다.

둘레길 가운데 한 곳만 택한다면 자연 풍광은 하낙월도가 조금 낫다. 보통 진월교 지나 오른쪽으로 돈다. 곧장 외양마지 입구 전망 쉼터가 나오고 서쪽 바다와 북쪽 상낙월도, 동쪽 영광군 내륙이 보인다. 조금 더 걸으면 하늘을 가린 그윽한 대숲이다. 곧 갈림길이 나오는데 왼쪽은 당너매언덕, 오른쪽은 해안으로 이어진다. 당너매언덕은 땀방



울이 송골송골 맺히지만, 팔각정전망대에 서면 장대한 풍경이 단숨에 땀을 씻어준다. 이때 남쪽은 수평선 끝까지 트인 바다가 아니라, 섬에 둘러싸인 바다로 낙월도의 절경을 만든다.

장벌해변은 낙월도둘레길의 백미다. 둘레길에서 절벽 아래로 내려다볼 때 마음은 어느새 해변을 향해 달린다. 지도 앱으로 지형만 확인해도 알 수 있다. 섬 안쪽으로 ‘ㄷ’자를 그리는 아담한 해변은 명사십리가 부럽지 않다. 정자 쉼터에 가만히 앉아 바다만 바라봐도 마음이 편안하다.

둘레길 완주보다 아슬랑거리는 게 목적이라면 상낙월도가 좋다. 색색 그물이 길을 가득 채우고 별을 찐다. 그물에선 새우 짠 내가 살살 코끝을 간질인다. 낙월도는 한때 젓새우로 명성이 자자해 ‘작은 목포’로 불렸다. 마을 앞길이 곧장 바다와 접하는데, 눈앞에 신안군 지도와 임자도 등이 바다 위 능선처럼 펼쳐진다. 맑은 날에는 그 사이로 난 임자대교까지 보인다. 물때에 따라서 앞바다 펼이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렇다고 상낙월도둘레길이 맛밋하진 않다. 길가의 나무가 연출한 초록 터널, 둘레길까지 올라온 붉은발말똥게 등이 반긴다. 짧게 맛보길 원할 때는 땅재(고개) 너머 큰갈마 골해변(상낙월해수욕장)까지 다녀온다. 주택가에서 떨어져 ‘프라이빗 비치’나 다름없다. 여름 해변이 이토록 차분할 수 있다는 게 놀랍다. 물에 발을 담그지 않고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충분할 정도다. 낙월도는 육석(墨石)이 유명한데, 해변의 기암괴석 역시 뜻지않은 볼거리다.

북어갈 수 있다면 진월교에서 하루의 끝을 마주할 일이다. 섬을 가로지르는 해는 낙월도 동쪽 영광군 내륙까지 길게 물들인다. 영광군 해안에서는 낙월도로 해가 지는 듯 보이기도 할 것이다. 시간이 맞으면 해가 진 방향으로 바통을 이어 달이 지는 그윽한 풍경을 마주할 수 있다. 낙월도(落月島)는 순우리말로 ‘진달이섬’이다. 영광 법성포에서 낙월도로 달이 지는데, 그때 낙월도가 바다에 걸친 달처럼 보인다. 나당 연합군에 쫓기던 백제 왕족이 달이 지자 낙월도로 피신해 정착했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쫓길 일 없는 한적한 섬의 시간, 일몰과 월몰은 낙월도의 정취를 간직한 또 다른 낙원 풍경이다.



겨서 그리 부른다. 송이도해변은 다른 곳에서 보기 어려운 하얀 몽돌이 유명하다. 물때를 맞추면 송이도에서 대이각도까지 드러나는 모랫길을 볼 수 있다. 영광군에서는 송이도와 안마도, 낙월도를 '삼형제 섬'이라 부른다. 세 섬이 바다 가운데 점점이 이웃한다.

낙월도 가는 여객선은 향화도선착장에서 하루 세 차례(07:30, 10:30, 15:00) 운항하며, 약 1시간 10분 걸린다. 출항 시각이 정해졌으나 물때에 따라 달라지니, 출발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낙월도까지 송이도 역시 향화도선착장에서 하루 두 차례 여객선이 오가며 1시간 30분쯤 걸린다. 송이도는 소나무[松]가 많고 섬 모양이 귀[耳]처럼 생



백수해안도로는 백수읍 길용리에서 백암리 까지 약 16.8km 구간이다. 영광9경 가운데 1경으로, 영광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해안 드라이브 코스다. 도로에는 전망대와 카페, 공용 주차장이 많아 여유롭게 돌아볼 수 있다. 그 가운데 노을전시관과 칠산정, 괤이갈매기 날개 포토 존이 있는 노을전망대 등이 인기다. 노을전시관에서 칠산정 쪽으로 해안노을길을 조성했다. 바다를 보며 산책하는 덱 길이다. 여름에는 노을전시관에서 노을종 구간이 무난하다. 노을전시관 야외 덱은 백수해안도로의 노을을 감상하기에 적격이다. 햇살이 좋은 날에는 대신등대와 윤슬이 한 폭의 그림 같다. 일대는 열린 관광지로, 휴게실과 유모차 이용이 수월하다.



우리 얼의 아름다움을 새겨 넣는 ‘은실박이’

홍정실 국가무형유산 입사장 [入絲匠]



차가운 금속에 뜨겁게 새긴 은실

입사(入絲)란 금속 표면에 흠을 파고 금선(金線)이나 은선(銀線)을 끼워 넣어 장식하는 상감기법을 말한다. 입사는 우리나라 금속공예 중에서도 섬세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전통공예 기법이다. 금속 표면에 금실이나 은실을 박아 무늬를 장식하는 기예로써 금속공예의 정화(精華)로 일컬어 오고 있다.

이러한 입사는 금속표면에 흠을 파거나 쪼아서 금속선이나 금속판을 그 위에 박음으로 두 금속을 땊없이 붙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금속물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이 기법은 전 세계 여러 곳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술로, 각 나라마다 고유한 이름으로 불려졌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기법을 입사라고 불렀으며 주로 은실을 박아 장식한 데서 연유하여 은실박이, 은입사라고 부르고 있다.

입사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금속 표면에 가는 흠을 파고 그 안에 은선을 박아 넣는 오래된 기법이고, 다른 하나는 금판, 은판이나 선을 옮겨 놓고 망치로 세게 쳐서 붙이는 방법으로 조선 중기 이후에 나타나는 제작기법이다. 이런 방식으로 금속 표면에 빗살무늬, 아(亞)자 무늬 등 기하학 무늬는 물론 사군자와 같은 회화적 문양을 새기기도 하였다.

오늘날 우리 금속유물에서 보이는 이 기법을 흔히 입사 대신 상감이란 용어로 많이 사용해 왔다. 상감(象嵌)은 어떤 용기의 표면에 흠을 파고 색감이나 질감이 다른 재료를 그 안에 끼워 넣어 장식하는 기법을 말한다. 금속에만 적용되어 말할 수 있는 입사와는 달리 상감은 재료에 상관없이 쓰일 수 있는 넓은 의미의 장식 기술 용어이다. 유물 중에는 신라 유물 중 6세기 신라 시대에 만든 것으로, 금에 마노를 박아 장식한 장식보검(보물, 국립경주박물관 소장)에서 상감기법의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입사의 기원은 삼국시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삼국시대의 입사유물은 백제, 가야, 신라를 중심으로 20여점 정도인데 대부분이 고리자루칼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지 가장 오래된 입사유물로는 현재 일본 이소노카미(石上) 신궁에 보관되어 있는 백제시대의 철지도이며, 국내에서 출토된 가장 빠른 시기의 유물은 충남 천안 화성리에서 출토된 4세기 후반 백제의 철제입사고리자루칼이다.

이러한 칼들은 백제에서는 4~5세기에, 가야에서는 5~6세기, 신라에서는 6세기에 주로 나타나며, 남북국 시대를 거쳐 고려시대에 입사 기술이 더욱 발전하여 불교 공예품을 통하여 찬란히 꽂피우게 되었다. 향완, 정병, 합과 같은 불교용품을 중심으로 하였던 고려의 입사공예품은 유교가 성행하였던 조선시대에 이르면서 일상생활의 기물들로 바뀌었으며 그 사용의 범위가 보다 넓어지고 품목도 다양해진다.

조선중기 이후 한반도에는 종전의 입사방법과는 다른 입사방법이 나타나며 전대의 입사전통을 잊게 되는데 이전의 청동에 장식하던 입사물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대신 철제에 은입사 되는 기물들로 대체되었다. 바탕금속의 재질이 청동에서 철로 바뀌어짐에 따라 무늬를 새겨 넣는 기술은 물론, 무늬의 표현방법, 내용 등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고려시대가 입사기술의 절정기였다면 조선시대는 입사공예가 생활 속에 자리잡은 가장 보편화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조선시대에는 국가기관에서 경공장으로써 입사장을 두어 전통적으로 그 기교를 계승함과 동시에 국가나 궁중에서 필요한 작품을 충당하게 하였다.





금속 위에 마음의 수를 놓는 흥정실 선생

흥정실 선생은 1947년 평양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아름다운 것을 보면 그것을 가지고 싶고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했었다고 한다. 1965년 이화여고를 졸업하고 서울여자대학교 공예학과에 입학하였으며, 1969년부터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미술교육을 전공하였다. 이후 서울여자대학교 공예학과 교수이자 금속공예가인 권길중 선생에게 현대적 공예기술을 배우며 모교인 서울여자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현대 금속공예를 전공했지만 우리 전통 금속공예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중 예용해 선생이 쓴 [인간문화재]라는 책을 읽고 우리의 전통입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인사동의 고미술가를 드나들던 때인 1978년 우연히 인사동에 위치한 한국전통기능보존협회로 찾아가 당시 협회 사무국장의 소개로 국가무형문화재 조각장 기능보유자인

김정섭 선생의 제자가 되었다. 김정섭 선생의 문하에서 조각기술을 연마하던 중 78세의 고령인 이학용 선생(이학용 선생은 60세 이후로는 입사작업을 그만 둔 상태였다.)의 존재를 알게 되고 수소문 끝에 찾아뵙고 제자가 되기를 청했다. 1978년 가을, 이학용 선생의 문하에서 입사기술을 배우게 되는데 이학용 선생은 당시 80대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흥정실 선생이 우리 전통의 입사를 배우겠다고 찾아온 것을 기특하게 여겨 성심을 다해 가르쳤다고 한다.

흥정실 선생은 입사의 예술성과 전통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기에 전통 입사의 보전과 전승을 위해서는 입사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입사에 관련된 자료와 스승인 이학용 선생에 관한 자료를 당시 문화재관리국(현 문화재청)에 제출하고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신청했다. 문화재위원회의 심사에 의해 1983년 입사기능이 국가무형문화재 입사장으로 지정되었고 이학용 선생이 초대 입사장 기능보유자로 인정되었다.



당시 흥정실 선생은 국가무형문화재 조각장 김정섭 선생의 문하에서 조각기법을 연마하던 중이었고 조각장의 전수장학생 신분이었는데 이 학용 선생의 바람으로 입사장 전수장학생으로 변경, 선정되었다. 이후 입사기술의 연마와 작품활동을 활발히 하여 1987년 전수교육조교(현 전승교육사로 개칭)로 인정되었고, 스승인 이학용 선생이 1988년 노환으로 별세한 이후 1996년 국가무형문화재 입사장 기능보유자로 인정되었다.

흥정실 선생은 입사기술을 후학들에게 가르치는 일에도 힘써 왔다. 1995년에는 전수생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칠만한 공간의 필요성에 따라 '길금공예연구소'를 설립하였다. 길금공예연구소는 서울시 송파구에 설립되었다가 1998년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강남구 삼성동 위치) 설립 후 이곳으로 이전되었다. 현재까지 길금공예연구소에서 입사기술을 배운 이들은 대학교수, 강사, 디자이너 등이며 작품제작과 전시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작과정

입사의 재료는 크게 바탕금속과 입사재료로 나눌 수 있는데 바탕금속은 철과 청동이, 입사재료로는 금, 은, 동이 사용된다. 입사의 실제 제작과정은 크게 바탕 작업과정, 은실박이 작업과정, 마무리 작업(착색) 과정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에 앞서 기물을 만들고, 작업 시 진동을 막고 탄력을 주어 쪼음질과 박음질을 효율적으로 하게 하기 위해 입사될 기물 내부에 채워 넣게 되는 감탕을 만드는 작업과 입사할 금실이나 은실을 만드는 작업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선행작업이 끝나면 첫 번째 공정인 바탕작업이 시작되는데 입사를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공정으로 입사될 금속의 바탕을 정으로 고르게 쪼아가는 쪼음질로 거칠어진 표면을 정돈하여 부드럽게 만들고, 은선을 고르게 박을 수 있도록 하는 갈기질을 한다.

은실박이 작업은 쪼음질 바탕에 은실을 박는 과정으로 입사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실현되는 공정이다. 이 과정은 무늬 옮기기, 은실박기, 뿔질, 광쇠질, 무늬 놓기 등의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은실박이 작업이 완전히 끝나면, 기물에 채워져 있는 감탕을 제거하고, 기물의 표면을 산(弱酸) 처리하여 녹내기 작업을 하고, 기물에 슨 녹을 털어낸 후 검댕웃(검댕이와 들기름의 혼합물)을 만들어 녹이 난 부분에 바르고, 2차에 걸친 굽기 과정을 거친 후 검댕웃을 굽어내고 광쇠로 문질러 은실박이 된 무늬를 따라 광내기를 하는 것으로 모든 작업공정이 끝이 난다.



윤의향 대전시립관장 경과보고



이장우 대전시장 축사

DMA 대전시립미술관
DAEJEON MUSEUM OF ART

지역미술조명사업Ⅱ ‘비상 飛上’ 개막

지역미술 조명사업의 하나로 내놓은 전시전

대전시립미술관(관장 윤의향)이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지역 미술 조명사업Ⅱ <비상 飛上>전을 개막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해 문화예술계 인사, 미술인 등 2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올해는 대전 현대 한국화의 기틀을 형성한 심향(心香) 박승무, 운산(雲山) 조평휘, 유산(酉山) 민경갑,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조각가 최종태의 작업 세계를 조망하고 '컬렉션과 구조'를 이야기한다.

전시는 크게 섹션1 <발전적 해체 : 박승무, 조평휘, 민경갑>, 섹션2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최종태>로 나뉘어져 지속된 깨달음과 영원한 인식의 공간으로써 미술관이 무엇을 발견하고 해방할 것인가 고민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고(故) 민경갑 화백의 유족이 지난 2019년 기증한 수작과 최종태 작가의 미공개 판화, 파스텔화와 <얼굴> 연작의 초기작부터 근작까지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어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역미술 조명사업은 민선 8기 주요 사업인 '원로 예술인 특화 전시관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한 대전시립미술관의 장기 프로젝트다.

윤의향 대전시립미술관장은 "대전 미술은 독자적 조형 언어로 한국 현대미술의 주요 작가들을 배출했다"며, "지역 미술 조명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미술관 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전 미술의 발전과 화단의 양분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 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비상 飛上’전 원로작가 4인의 예술세계 집중 조명

조평휘·박승무·민경갑·최종태 원로 4인 예술세계 집중 조명
'한국화의 해체와 재구성'에서 '영원성의 탐구'까지 입체 구성

대전 현대미술의 시작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대전시립미술관은 올해 하반기 첫 기획전으로 '비상 飛上'을 통해 지역 원로작가 4인의 예술세계를 집중 조명한다. '지역미술 조명사업'의 두 번째 장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는 단순한 회고전이 아니라, 수집과 연구, 전시와 교육을 아우르는 '시립미술관 의의'를 재확인하는 실천이기도 하다. 영원한 깨달음과 진정한 미술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이번 전시를 소개한다.

발전적 해체: 한국화의 뿌리를 다시 짚다

1~2전시실에서의 첫 번째 섹션 '발전적 해체'는 대전 한국화의 기틀을 닦은 세 명의 원로 화가 박승무, 조평휘, 민경갑의 예술세계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전통 수묵화의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로운 표현을 시도한 화가들이다.

박승무는 충북 옥천 출신으로, 근대 동양화단의 중심에서 활동하다 1957년 대전에 정착했다. 은둔적이고 탈속적인 삶을 살며 오롯이 작품에 몰두한 그는 부드럽고 섬세한 필치로 설경과 산수의 고요한 정취를 표현했다.

남종화풍의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안개 낀 산과 점묘식의 표현을 통해 자신만의 정서를 담아낸 작업은, 대전 한국화의 정신적 원류로 평가된다.

조평휘는 1932년 태어나 격변의 현대사를 온몸으로 겪은 작가다. 황해도 연안 출신인 그는 전쟁통에 피란길에 올라 남하했고, 그 이후 평생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1970년 대 중반 목원대학교 미술교육학과 교수로 부임하여 대전에 정착했지만,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은 남아 있었다. 그의 그림 속 산수는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되돌아갈 수 없는 곳'을 그리는 마음 그 자체다.



박승무 작



조평휘 작



'운산산수'라 불리는 그의 독자적 화풍은 이러한 기억과 감정을 바탕으로 한다. 여백을 거의 남기지 않고 화면을 먹빛으로 가득 채운 그의 산수화는 하늘에서 내려다본 것처럼 장엄하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풍경이지만, 그에게는 유토피아이자 기억 속 고향이다. 마치 구름을 타고 내려다보는 듯한 독특한 시점으로 펼쳐지는 산과 강의 이미지는 '실재하는 풍경을 넘어선 상상 속 고향'의 형상이라 할 수 있다.

민경갑은 절제된 색감과 단순한 구성으로 한국적인 자연미를 표현한 화가다. 충남 논산 출신인 그는 먹이 번지는 효과를 이용한 '선염 기법'을 통해 깊고 그윽한 산수의 정서를 전해준다. 그의 그림은 복잡한 장식을 피하고 기하학적인 선과 면을 조화롭게 배치해 한국 전통의 미학을 현대

적으로 재해석한다. 특히 강렬한 원색을 사용한 그의 후기 작업은 자연을 넘어 인간 정서의 상징으로 기능한다.

세 작가의 공통점은 전통을 기반으로 하되 새로운 표현 방식에 끊임없이 도전했다는 점이다. 기존 형식을 해체하면서도 그 안에서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려 했던 이들의 작업은, 한국화의 경계를 넓히는 동시에 대전 화단의 정체성을 구축해온 핵심이었다.

최종태, 본질을 조각하다…영원에 대한 질문

3~4전시실에서 이어지는 두 번째 섹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는 대전 출신의 조각가 최종태의 예술세계를 집중 조명한다. 전시 제목은 가톨릭 기도문 '영광송'의 마지막 문장에서 가져왔다. 종교적 배경은 그의 작업 전반에 중



민경갑 작



최종태 작

요한 영향을 미쳤지만, 그 의미는 단지 신앙에 머물지 않는다. 최종태의 조형 언어는 경계 없는 탐색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전시는 6년 전, 그가 남긴 짧은 한 문장에서 비롯됐다. 당시 미술관이 전시를 기획하면서 부탁한 도록 서문에서 그는 ‘꿈을 늘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은 천양지판으로 다르다’는 문장으로 글을 시작했다. 이미 조각계의 원로로 자리매김한 예술가가 ‘꿈’을 이야기했다는 점은, 후배 작가들에게 던지는 조용한 격려이자 깊은 울림이 됐다. 꿈을 향한 길은 곧 예술의 길이라는 그의 신념이 이번 전시를 통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의 조형 세계는 특유의 미감으로 풀어낸 곡선과 재료 본연에서 드러나는 소박함이다. 작품 속 인물은 대부분은 단아하고 동양적인 이미지를 자아내는데, 이는 자식을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어머니의 사랑을 은유한다.

아울러 얼굴과 사람, 손, 여인, 성상 등 반복적으로 다루는 형상들은 모두 인간의 보편성과 영원성에 대한 사유로 이루어진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미공개 판화와 파스텔화, ‘얼굴’ 연작의 초기작부터 최근 작품까지 폭넓게 소개돼 작가

의 변모 과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사색에 잠긴 여인부터 청초하고 편안한 얼굴의 다양한 인물을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섹션은 단순한 작가 회고가 아니다. 대전시립미술관이 ‘지역미술 조명사업’을 통해 강조하는 ‘미술관 본연의 기능’을 구조적으로 연결하는 큐레이토리얼 전략이기도 하다. 작품은 단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석되고 계승돼야 하며, 그 구조적 기반이 마련된 곳에서 비로소 ‘살아 있는 미술관’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이번 전시의 기저에 있다.

‘비상’의 조건, 살아 있는 미술관을 위한 제안

‘비상 飛上:’이라는 전시명은 단순한 도약을 뜻하지 않는다. 그 끝에 붙은 ‘세미콜론(:)’은 문장을 일단 멈추고 다시 이어간다는 문장 부호처럼 전시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계속 이어져야 함을 암시한다.

이번 전시에서 대전시립미술관의 소장품은 총 47점으로 전체 출품작의 30%에 못 미친다. 작품에 대한 심화 연구가 이뤄진 ‘해제’도 13점 남짓. 이는 미술관이 지역 작가의 작업을 지속적으로 연구·보존·전시할 수 있는 기반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전시 서문에 나오는 ‘비익조’의 은유는 이 지점을 날카롭게 찌른다. 짹이 없으면 날 수 없는 전설 속 새처럼, 작가와 미술관은 서로에게 필수적 존재다. 작가의 작업이 날개를 펴기 위해선 미술관이라는 보호막과 연구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전시는 그러한 기반 마련을 위한 첫걸음이자 선언이다.

윤의향 대전시립미술관장은 “대전 미술은 한국 미술사에서 매우 특별한 위치에 있다. 미술 역사가 그리 길지 않지만, 독자적 조형 언어로 한국 현대 미술의 주요 작가들을 배출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미술 조명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미술관 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전 미술의 발전과 양분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비상 飛上:’ 전시는 1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대전시립미술관에서 진행된다. 별도의 예약 없이 누구나 관람 가능하며, 외국인을 위한 쉬운 해설 프로그램, 감상룸·리딩룸 등 다양한 관람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전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미술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승무작



조평휘작



민경갑작



최종태작





대전 작가 15인, 몽골 초원에 '쉼표'를 그리다

몽골 모리톤미술관 초대전, 대전 작가 15인 참가

초원과 은하수의 나라 몽골, 하늘과 땅 그리고 바람과 초원 밖에 존재하지 않는 공허한 이곳에서 자연의 모든 것들은 현대문명을 조율하는 송배의 대상물이다.

대전 작가 15인은 지난 7월 25일부터 30일까지 몽골 대초원을 다녀왔다. 이번 일정은 몽골 모리톤(MORITON) 미술관이 기획한 초대전으로 무더위에 지친 대전 작가들의 심신을 달래며 '쉼표'를 찍는 시간이었다.

작가들의 5박 6일의 일정은 몽골을 돌아다니며 마주한 풍경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의 모습을 스케치북에 담느라 여념이 없었다. 몽골 여름의 목초지, 푸른 초원에 덩그러니 놓여진 하얀색 게르 몇 채, 그 단순함들은 자연 속에 어우러지면서 묘한 해방감을 줬다.

초록 일색인 대지와 하늘에 떠있는 구름 조합만으로도 매 순간 풍요로웠다. 도시 생활과는 성분이 다른 즐거움으로 충만한 시간이었다.

가장 인상적인 체험은 '미니사막 엘승타사르하이' 낙타체험이다. 작지만 파도처럼 일렁일 듯한 모래 언덕이 인상적이다. 쌍봉낙타를 타고 모래언덕까지 다녀오는 짧은 코스이지만 설렘, 두려움 등이 공존하는 시간이었다.

이번 몽골의 대표 체험으로는 유목민 문화 체험이다. 끝없이 펼쳐진 평원에 덩그러니 놓인 유목민 전통 게르에서 양고기로 요리한 허르헉의 풍미에 모두 감동했다. 유목민과 가이드 태수씨의 혼신에 감사드린다.

게다가 수천마리의 양떼들이 그림처럼 노니는 모습은 소름 끼치는 역대급 장관으로 경이로운 감동을 안겨주었다.





이윽고 맑은 저녁. 몽골의 백미로 꼽히는 밤하늘은 별들이다. 무수히 쓸어지는 별들의 장관을 눈에 담았다. 요요한 풀섶에서 쳐다보는 밤하늘에는 별들이 촘촘하게 박혀 형용할 수 없는 자태의 빛을 발하고 있었다.

휘이~ 손을 내저으면 우수수 떨어질 것만 같았다. 어린 시절 고향에서 보았던 그 광경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습이 고스란히 몽골의 초원에서 재현되고 있었다. 아주 오랫동안 뒤로 고개를 꺾고 그 모습을 바라보니 가슴이 울렁거렸다. 기대하지 않았던 만남이 주는 설레임 때문이었다.

몽골 체류 중 들렀던 나란투 재래시장도 기억에 남는다. 뛰약볕 아래 제법 넓적하게 펼쳐진 재래시장은 인파로 북적였다. 온갖 잡화가 풍성하게 진열된 그곳은 생각과 달리 잘 정리되어 있었고 사람들의 표정도 밝아 보였다.

여행 마지막 일정으로 찾은 테렐지는 국립공원으로 해발 1600m에 자리해 시원한 바람과 기기묘묘한 바위산에 둘러싸인 아름다운 풍경이 우리를 압도한다. 테렐지에서 가장 유명한 바위는 거북바위이다.

거북바위 앞에는 커다란 게르 모양의 기념품점이 있어 일행과 함께 쇼핑에 나섰더니 손님 중 거의 대부분이 한국인이다. 작가들은 기념품을 사느라 바쁘다.

짧은 몽골 스케치 여행이었지만 몽골인의 역사와 삶 그리고 문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아직도 그들에게는 그토록 소중한 말이 있고, 대 초원이 있기에 그들의 삶은 여유롭다. 그 훈훈한 마음을 가슴속에 새기게 된다.





2025 이응노미술관 파리이응노레지던스

제 10기 파리이응노레지던스 프로그램 시작



파리 이응노레지던시 고암서방

이강욱, 박효정, 이시온 작가

8월부터 3개월간 보-쉬르-센파리이응노레지던스 입주
대전 출신 작가들의 해외 진출 기회 확대와
창작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재)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이응노미술관(대표이사, 관장 이갑재)은 7월 10일 2025년 파리이응노레지던스 입주작가로 이강욱, 박효정, 이시온 3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3인의 작가는 오는 8월 4부터 10월 30일까지 3개월간 프랑스 파리 인근의 보-쉬르-센(Vaux-sur-Seine)에 위치한 ‘이응노 아틀리에’에 입주해 창작활동을 진행한다.

올해 파리이응노레지던스 입주작가 선정에는 대전 출신 및 대전에 거주하며 활동 중인 작가들 중 ▲작품의 창의성이

돋보이는 작가 ▲레지던스 활동 계획이 분명한 작가 ▲작업에 대한 의사전달 능력이 높은 작가 ▲미래 발전 가능성이 보이는 작가가 고려 대상이 되었다.

선정된 작가들은 항공권과 창작지원금을 제공반으며 8월부터 파리 미술 탐방, 비평워크숍, 전시개최 등 이응노미술관이 준비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특히 올해는 파리의 마레지구에 위치한 ‘오르-샹 갤러리 Galerie Hors-Champs’에서 창작결과물 가지고 전시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4년부터 시작된 파리이응노레지던스 업은 대전 지역 예술작가들이 해외 미술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까지 모두 27명의 작가들이 보-쉬르-센의 ‘이응노 아틀리에’에서 작업했다.

○ 이강욱 작가는 회화가 만들어내는 세계와 그 변화를 순환적 과정으로 인식하며 새로움을 모색한다. 초기에는 콩테와 파스텔을 활용한 흑백 작업을 통해 점, 선, 면의 균형과 긴장을 탐색하며 빛과 색감을 연구했다. 최근에는 신화, 종교, 민화에서 영감을 받아 색채와 형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채색목판과 입체 설치작업을 병행하여 평면을 넘어서는 표현을 시도한다.

○ 박효정 작가는 어린 시절의 기록과 삶의 경험을 재구성하여 내면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집을 그린다. 초기에는 조형적으로 접근했지만 점차 자신의 기억과 감정을 기록하는 작업으로 변화하며 내적 성장을 이루었다. 집은 개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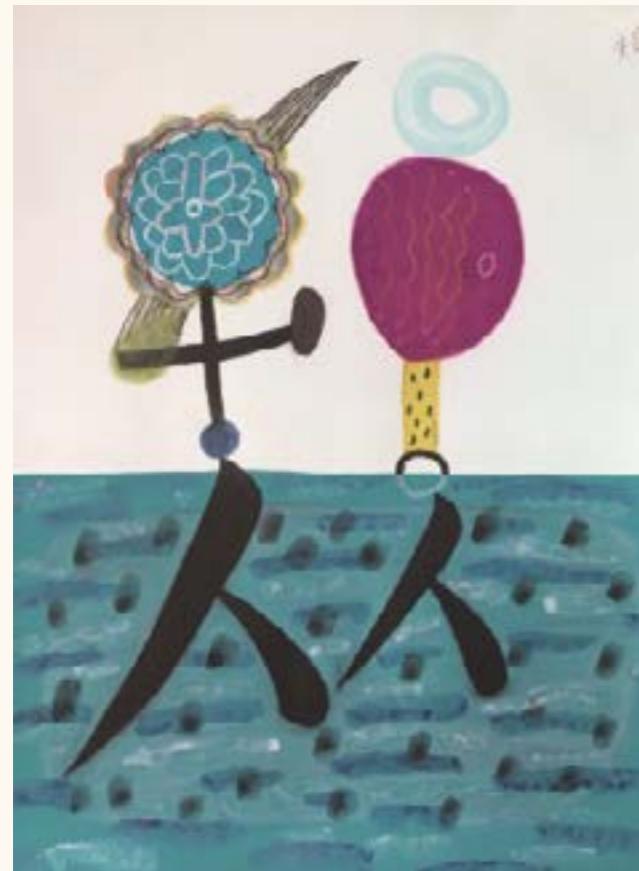
성장과 삶의 이야기가 쓰이는 상징적 공간이며, 조각과 채색 과정은 불안한 감정을 치유하는 행위가 된다.

○ 이시온 작가는 말을 통해 인간의 내면을 조명하며, 승마 경험에서 얻은 교감을 작품으로 확장시켰다. 말은 순응하면서도 본능을 간직한 존재로, 작가는 이를 통해 현대인의 모습을 반영하고자 했다. 시간이 흐르며 작업의 주제는 자연으로 확장되었으며, 특히 산과 나무에서 삶의 순환과 영원성에 대한 통찰을 얻었다. 그는 자연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되돌아보고, 인간의 유한성과 자연의 무한성을 탐구한다.

이갑재 이응노미술관장은 “올해도 파리이응노레지던스를 통해 우리 지역의 작가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응노 화백의 발자취를 따라 작가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파리 이응노 레지던시 내부 전경



이강욱 작가
두 개의 꽃
종이에 콩테, 오일파스텔, 아크릴 채색
57x76cm
2018



박효정 작가
나를 만나는 곳
나무 커팅에 아크릴
130x97cm
2024



이시온 작가
SHINE No.2
캔버스에 유채
116.8x80.3cm
2021



파리이옹노레지던스 (Paris Lee Ungno Residence)

파리이옹노레지던스는 대전시가 2014년부터 추진하는 지역 작가 대상 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 지리적,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 해외 진출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지역의 우수한 작가들이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별히, 파리이옹노레지던스 프로그램은 고암 이옹노 화백의 주 활동 무대이자, 전 세계 문화 예술의 중심지인 프랑스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강점을 지닌다.

3개월 단기 과정으로 입주한 작가들은 작업 공간을 비롯한 전시, 교류,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지원 받게 된다.

레지던스가 위치한 보쉬르센은 파리 근교 도시로, 클로드 모네, 반 고흐, 피사로, 앙드레 드랭, 모리스 드니 등 세계적인 화가들이 작품 활동을 했던 지역들이 센 강을 중심으로 밀집해 있으며, 고암의 예술적 성과와 자산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하다.

현재 보쉬르센에는 총 3,000여 평에 이르는 대지에 고암 후학 양성기관인 ‘고암 아카데미’를 비롯하여, 유럽 내 최초이자 유일의 전통한옥인 ‘고암서방’과 ‘고암 기념관’ 및 ‘고암 작품 보관소’ 총 4개의 건물이 위치해 있다.

레지던스 공간은 고암 작품 보관소로 사용되고 있던 건물 1개동으로, 박인경 이옹노미술관 명예관장의 지역의 후학 양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대전광역시가 작가 작업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문을 열었다.



파리 이옹노 레지던시 장소



대한민국 무더위 날릴
대전 0시 축제

축캉스가 시작된다!

8월 8일(금) ~ 16일(토), 9일간

매일 14:00~00:00

중앙로(대전역~옛 충남도청) 등
원도심 일원

개막행사, 퍼레이드, 공연, 경연, 체험, 마켓, 이벤트 등

※ 프로그램 일정과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향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전 0시 축제 공식 홈페이지 <https://dzerofe.com> 참고

200만의 여름 축제, 대전 0시 축제가 돌아왔다.
매년 화려하고 흥미로운 콘텐츠들로 전국은 물론 전 세계인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여름 축제로 자리 잡은 대전 0시 축제. 올해 역시 한층 더 다채롭고 풍성한 즐길거리로 축제장을 가득 채웠다. 특히 이번 축제는 '올여름 휴가는 대전 0시 축제 축캉스로!'를 테마로 한여름 무더위를 시원하게 잊게 만들 0시 축제만의 재미를 대폭 더했다. 도심 한복판에서 즐기는 특별한 여름휴가, 대전 0시 축제로 떠나보자!



“이번에 놓치면 후회할걸”

단 하루만 떨쳐지는 화려한 개막행사

블랙이글스 에어쇼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초음속 항공기 T-50B 8대가 출격해 고난도 곡예비행으로 대전 0시 축제장을 화려하게 수놓는다.

▲ 8월 8일(금) 18:00~18:30

▲ 대전역~옛 충남도청 상공

개막 퍼레이드

과거, 현재, 미래를 상징하는 증기기관차, 수소트램, 측캉스카 등 퍼레이드카와 함께 해외 무용단, 서울대 응원단, 전통민속놀이 공연단 등 대규모 퍼레이드 공연이 축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다

▲ 8월 8일(금) 18:30~20:00

▲ 중앙로 전 구간(과거존~현재존~미래존)



공식 개막 행사

‘세상을 개척하는 대전’, ‘축캉스, 대전을 알리다’를 주제로 한 LED 영상공연이 펼쳐지고 대전의 상징 캐릭터인 꿈씨패밀리가 춤출동해 특별 이벤트 무대를 선보인다. 이어 글로벌 대전을 주제로 한 ‘대전 브루스’ 공연이 분위기를 뜨겁게 달군다.

▲ 8월 8일(금) 20:00~21:00

▲ 중앙로역네거리 특설무대

올해 축제장 이렇게 달라졌다!

① 꿈돌이만 따라오세요

누구나 쉽게 축제장을 찾을 수 있도록 대전역 방향 축제장
입구에 대형 꿈돌이 인형 설치

② 관람 명당 찾지 마세요

360도 원형 초경량 LED 고화질 시스템을 도입해 축제장 어느 곳에서든 선명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

③ 상가 이용 불편 없어요

축제 시작 전(01:00~14:00)
안전 펜스를 개방해 상가 0
용 차량, 구급차 등 이동에
불편 없는 동선



개척자들의 도시 — 과거존 —

대전역 앞 특설무대에서 목척교 까지 이어지는 구간으로 '대전 역'과 '대전부르스'를 테마로 한 레트로 감성의 기차 여행 콘셉트 공간이다. 추억의 대전을 소환하는 무대와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빵지순례 성지 대전에서 처음 만나는 '빵(0)시즌 체험'

축제 방문객을 맞이하는 웨컴존에 마련되는 지역 우수 제과점 부스 체험
▶ 8월 8일(금)~16일(토) 16:00~22:00 웨컴존(대전역 앞 과거존 입구)

추억의 대전역을 테마로 과거와 만나는 '뉴트로 이머시브 체험'

과거 대전역을 주제로 한 레트로 감성의 기차 테마 세트장에서 전문 연기자들의 상황극에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몰입형 체험 공간
▶ 8월 8일(금)~16일(토) 14:00~24:00 과거존(레트로 기차마을 체험공간)
※ 축제장을 순환하는 꿈들이 무궤도 열차 운행 08:00~14:00

대전부르스와 함께하는 레트로 K-콘서트 '대전부르스 가요콘서트'

매일 밤 대전부르스를 테마로 국내 최정상급 트로트 가수들이 펼치는 추억의 가요 콘서트
▶ 8월 8일(금)~16일(토) 21:00~24:00(공연별 일정 변동) 대전역 특설무대

8.8.(금)	8.9.(토)	8.10.(일)	8.11.(월)	8.12.(화)	8.13.(수)	8.14.(목)	8.15.(금)	8.16.(토)
예녹	김수환	박서진	박준현 김의영	이현숙 지원이	김태웅 백봉기	홍명원 윤수현	그라나다 민수현	정진욱 류자광



지역 우수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로컬 문화예술 한마당'

2025 상설공연지원사업 선정 우수 문화예술단체 등 아마추어부터 프로 공연팀까지 다양한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선사하는 대전만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
▶ 8월 10일(일)~16일(토) 19:00~23:00(공연별 일정 변동) 대전역 특설무대



해외 초청 공연단 등이 선사하는 이색적인 '글로벌 문화예술 한마당'

제34회 전국무용제 초청 해외무용단, 자매·우호도시 초청 공연단 등 해외 공연단 및 외국인이 참여하는 글로벌 공연
▶ 8월 8일(금)~12일(화) 19:00~20:00 대전역 특설무대

7080세대 감성의 신나는 DJ 파티 '대전 0시 고고장'

매일 밤 전문 DJ와 무대 특수효과 연출로 70~90년대 레트로 댄스 음악을 선사하며 관객과 함께 즐기는 신나는 추억의 고고장 DJ 파티
▶ 8월 8일(금)~16일(토) 22:00~24:00 대전역 특설무대



문화예술의 도시 — 현재존 —

목척교부터 미래존 게이트까지 이어지는 구간으로 대전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한자리에 서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지역 아티스트들의 공연과 체험, 응장한 특설무대가 어우러진 역동적인 예술 축제의 장.



미래에서 과거로 떠나는 시간여행 '대전 시간여행 퍼레이드'

과거, 현재, 미래를 테마로 상설 퍼레이드카와 공연단, 그리고 매일 달라지는 특별 공연단이 어우러져 과거존에서 미래존까지 행사장 전 구간을 누비며 흥겨운 퍼포먼스를 펼치는 대규모 퍼레이드

▶ 8월 8일(금)~16일(토) 18:00~20:00 중앙로 행사장 전구간

대전형 에든버러축제 프로그램 '대전보러 페스티벌'

영국 에든버러 축제를 모티브로 원도심 내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지역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프로그램

▶ 8월 8일(금)~16일(토) 14:00~20:00 현재존(원도심내 소극장, 지하상가, 길거리 등 40개소)

대전의 개척자들과 함께 15분 공감토크 '세상을 바꾸는 대전 15분'

대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만들어가는 개척자(지역 대표 인사)들의 이야기가 담긴 15분 토크콘서트

▶ 8월 8일(금)~16일(토) 20:00~23:00(날짜별 일정 변동) 중앙로 역네거리 특설무대

일자	주제	공연팀
8.8.(금)	과거 개척자	코레일 대전역장
8.9.(토)	현재 개척자	꿈틀이
8.10.(일)	미래 개척자	대전시 고등학교 학생의회 의장
8.11.(월)	Aerospace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상철 원장
8.12.(화)	Biohealth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정은채 박사
8.13.(수)	Chips	나노종합기술원 박홍수 원장
8.14.(목)	Defense	국방과학연구소 지원진 실장
8.15.(금)	Quantum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호성 원장
8.16.(토)	Robot	라이온로보틱스 황보체민 교수

K-POP 뮤지션들의 화려한 무대 공연 'K-POP 콘서트'

매일 밤 국내 최정상급 K-POP 아티스트들이 펼치는 음악 콘서트

▶ 8월 8일(금)~16일(토) 21:00~24:00(날짜별 일정 변동) 중앙로역네거리 특설무대

일자	테마	출연진
8.8.(금)	개막축하 공연	나린-2IP4·코요태·허용별(허각, 신용재, 임한별)
8.9.(토)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은행의 밤	청하-이창섭(비투비)-홀리뱅-비와이-효린
8.10.(일)	일상을 새롭게, 계룡건설 엘리프	멜로망스-에이핑크-풀킴-브브걸-불빨간사춘기
8.11.(월)	을 여름 휴가는 대전 0시 축제 축캉스로!	최성수(면정국악단 협연)-스모킹구스-VOS-비트펠라하우스-조째즈
8.12.(화)	K-힙합 페스티벌 (1일차)	마쉬베놈-팔로알토-루피
8.13.(수)	K-힙합 페스티벌 (2일차)	다이나믹듀오-레디-쿠기-한요한
8.14.(목)	CNCITY와 함께하는, 에너지 스테이션	선우정아-까데호-킴-창모-그레이-비오
8.15.(금)	K-Water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스타의 밤	소향-민우혁-서문탁-프로미스나인-김진호(SG워너비)
8.16.(토)	폐막 공연	설운도-김경민



코요태



풀킴



에이핑크



멜로망스



소향



다이나믹듀오



허용별



쿠기
팔로알토
조째즈
청하

파워 유튜버 초청 거리공연 '춤추는 곰돌 랜덤 댄스'

관객 참여형 인기 유튜브 채널 '춤추는 곰돌 랜덤 댄스' 이벤트 거리공연

▶ 8월 9일(토), 16일(토) 15:00~17:30 프린지 무대(중앙로 무대 앞 그라운드 구역)



비트펠라하우스

0시 축제 테마의 대전 도시브랜드 팝업 홍보 공간 '축캉스존'

대규모 물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관, 도시브랜드 상징 조형물 등 목척교 공간 재창조

▶ 8월 8일(금)~16일(토) 16:00~22:00 현재존(목척교)

지역과 스포츠, 기업, 대학이 연결되는 공간 '글로컬존'

하나시티즌, 삼성블루팡스 등 지역 스포츠 구단과 대학, 자매·우호 도시, 기업이 참여하는 글로컬 홍보 공간

▶ 8월 8일(금)~16일(토) 16:00~22:00 현재존(대우당약국 앞 중앙로 구간)

가족단위 체험 및 각종 홍보 이벤트 공간 '꿀잼대전존'

다양한 놀이 및 만들기 등 가족단위 체험과 각종 홍보, 이벤트 부스 운영

▶ 8월 8일(금)~16일(토) 16:00~22:00 현재존(중앙로역네거리 무대 전후 구간)

2025 대전 0시 축제의 현장 사진을 보내주세요

8월 8일(금)부터 16일(토)까지 증구 중앙로 등 원도심 일원에서 열리는 2025 대전 0시 축제에 참가해 즐거운 한때를 보냈던 여러분들의 사진과 사연을 기다립니다.

- ▶ 사진주제: 축제 현장에 참여한 본인, 혹은 가족 및 지인들의 사진과 설명글(100자 이상)
- ▶ 응모대상: 축제에 참가했던 누구나(지역제한 없음)
- ▶ 응모기간: ~8월 17일까지
- ▶ 응모방법: 네이버폼(해당 QR코드를 스캔해 공란을 채워주세요)
- ▶ 선정혜택: 채택된 사진은 9월 소식지에 수록 및 소정의 원고료 지급



과학기술의 도시 미래존

과학수도 대전의 첨단 기술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미래존은 대전의 혁신적인 과학기술과 대형 포토존이 조성된 신비로운 체험 공간이다.

미래 도시를 상상하게 하는 흥미로운 콘텐츠들이 준비돼 있다.



더울 땐 '꿈돌이 아이스호텔'로!

이번 대전 0시 축제에는 짹통더 위를 단번에 날려줄 이색 공간이 있다. 이른바, 국내 최초 미디어 아이스호텔인 '꿈돌이 아이스호텔'. 현재존 목적교에 조성된 이 아이스호텔은 1990년대 '꿈돌이랜드'를 모티브로 한 가로 25m, 세로 11m 규모의 대형 미디어 체험관으로 냉동 공간 시스템이 가동되는 '진짜 시원한 호텔'이다.

1관에서는 눈 덮인 '꿈돌이의 겨울왕국' 속에서 꿈씨패밀리와 사진을 찍을 수 있고 2관 '폭포관'에서는 시원한 폭포 미디어 영상, 3관 '파도관'에서는 미디어 파도 영상과 함께 대전의 정취를 담은 미디어 아트 '대전 부르스'를 감상할 수 있다.

대한민국 과학수도 대전의 미래 '대전미래과학기술 체험관'

대전 6대 핵심 전략산업 및 미래혁신기술을 흥미롭게 접할 수 있는 전시·체험 통합 부스

▶ 주요 체험: VR 사격·축구·농구, AI 기반 스트레스 측정, 자율주행 기술,

3D펜 작품 만들기, 모형 위성 만들기 등

▶ 8월 8일(금)~16일(토) 16:00~22:00 미래존(중앙로 메가박스 앞)

꿈돌이와 떠나는 실감나는 우주여행 '4D 어트랙션 체험관'

VR 3D 영상과 모션체어 장비로 실감형 4D 어트랙션 우주여행 체험

▶ 8월 8일(금)~16일(토) 16:00~22:00 미래존(중앙로 흥국화재 앞)

꿈씨패밀리가 한자리에 모두 모였다! '꿈씨패밀리존'

대규모 꿈씨패밀리 테마 포토존 조성 및 굿즈 팝업스토어

▶ 8월 8일(금)~16일(토) 14:00~24:00 미래존(중앙로 대전테크노파크 앞)

옛 충남도청사에 펼쳐지는 가족형 과학체험 '가족테마파크'

옛 충남도청 내·외부 공간을 활용해 사이언스, 액티비티, 힐링을 키워드로 조성한 가족단위 문화예술 체험공간

▶ 8월 2일(토)~16일(토) 14:00~24:00

중앙로 무대 일정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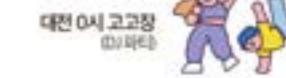
구분	8.8(금)	8.9(토)	8.10(일)	8.11(월)	8.12(화)	8.13(수)	8.14(목)	8.15(금)	8.16(토)
14:00~15:00									
15:00~16:00			중앙로 꿈들이 순환 열차 (08:00~14:00) 체험 마켓 부스 (16:00~22:00) 먹거리 운영 (17:00~24:00)						
16:00~17:00									
17:00~18:00									
18:00~19:00	블랙아일스 에어쇼	시간여행 파레이드 (청춘 파레이드) (개막 파레이드)	시간여행 파레이드 (마이크 파레이드)	시간여행 파레이드 (시민 파레이드)	시간여행 파레이드 (음악단 파레이드)	시간여행 파레이드 (한국 파레이드 경연대회)	시간여행 파레이드 (광복 70주년 파레이드) ※ 19:00 시작	시간여행 파레이드 (광복 70주년 파레이드) ※ 19:00 시작	시간여행 파레이드 (폐막 파레이드)
19:00~20:00									
20:00~21:00	대전시립예술단 (서울교향악단)	해외자매우호도시 예술단 초청공연 (아트 실버아트)	대전시립예술단 (연장국악단)	대전시립예술단 (연장국악단)					
21:00~22:00	개막 행사	세상을 바꾸는 대전 15분	세상을 바꾸는 대전 15분	세상을 바꾸는 대전 15분	세상을 바꾸는 대전 15분	세상을 바꾸는 대전 15분	세상을 바꾸는 대전 15분	세상을 바꾸는 대전 15분	세상을 바꾸는 대전 15분
22:00~23:00	세상을 바꾸는 대전 15분	K-POP 콘서트 / 힙합 해이와이즈 대전 에스티벌(2)	K-POP 콘서트 / 힙합 해이와이즈 대전 에스티벌(2)	K-POP 콘서트 / 힙합 해이와이즈 대전 에스티벌(2)	K-POP 콘서트 / 힙합 해이와이즈 대전 에스티벌(2)	K-POP 콘서트 / 힙합 해이와이즈 대전 에스티벌(2)	K-POP 콘서트 / 힙합 해이와이즈 대전 에스티벌(2)	K-POP 콘서트 / 힙합 해이와이즈 대전 에스티벌(2)	K-POP 콘서트 / 힙합 해이와이즈 대전 에스티벌(2)
23:00~24:00	K-POP 콘서트 / 개막축하 공연	나는 나를 나는 나를 나는 나를	나는 나를 나는 나를 나는 나를	나는 나를 나는 나를 나는 나를	나는 나를 나는 나를 나는 나를	나는 나를 나는 나를 나는 나를	나는 나를 나는 나를 나는 나를	나는 나를 나는 나를 나는 나를	나는 나를 나는 나를 나는 나를

※ 험의 및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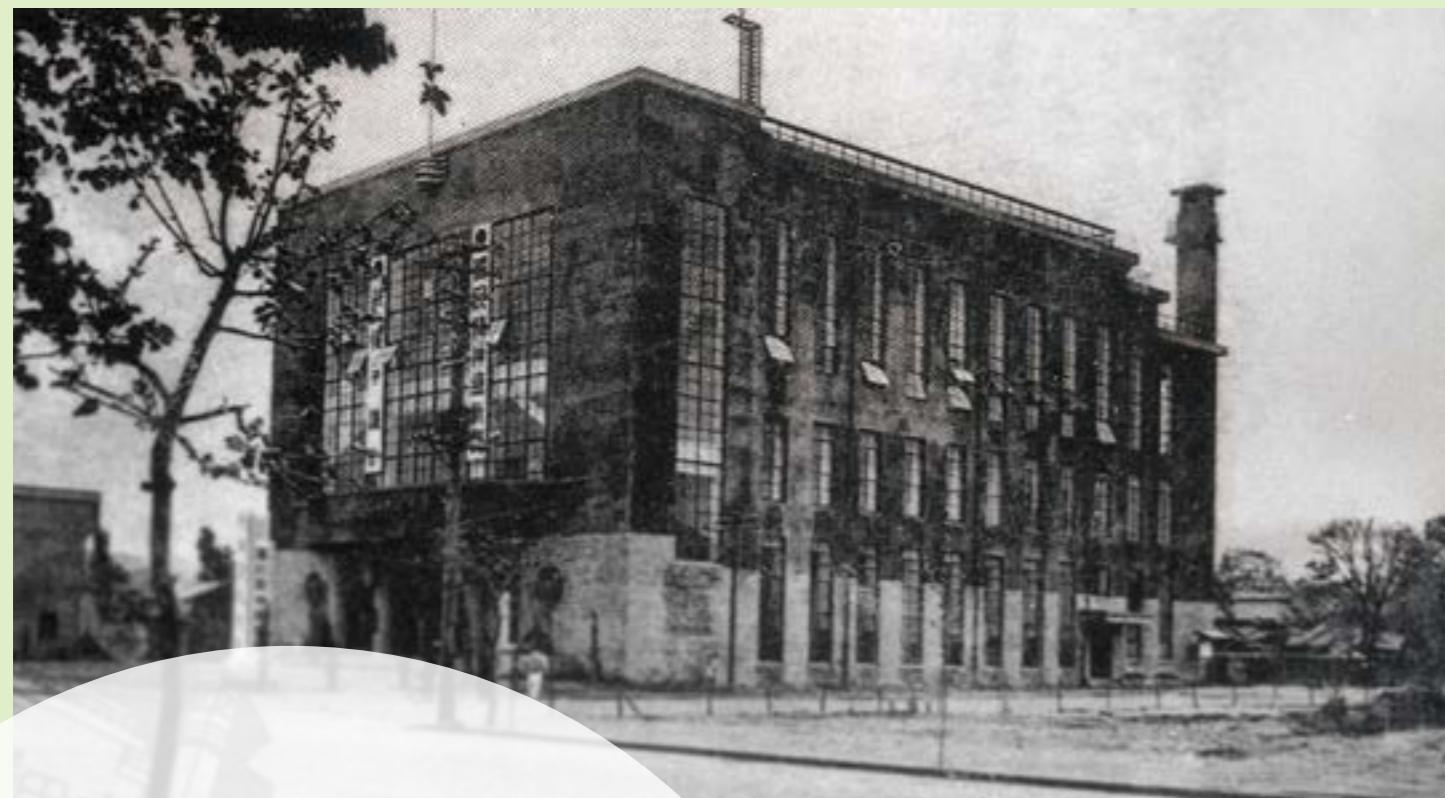
대전역 무대 일정표

구분	8.8(금)	8.9(토)	8.10(일)	8.11(월)	8.12(화)	8.13(수)	8.14(목)	8.15(금)	8.16(토)
14:00~15:00									
15:00~16:00			중앙로 꿈들이 순환 열차 (08:00~14:00) 레트로 기차 마을 체험 (14:00~24:00) 먹거리 운영 (17:00~24:00)						
16:00~17:00									
17:00~18:00									
18:00~19:00	블랙아일스 에어쇼	시간여행 파레이드 (대학생 파레이드) (개막 파레이드)	시간여행 파레이드 (마이크 파레이드)	시간여행 파레이드 (시민 파레이드)	시간여행 파레이드 (음악단 파레이드)	시간여행 파레이드 (한국 파레이드 경연대회)	시간여행 파레이드 (광복 70주년 파레이드) ※ 19:00 시작	시간여행 파레이드 (광복 70주년 파레이드) ※ 19:00 시작	시간여행 파레이드 (폐막 파레이드)
19:00~20:00	대전시립예술단 (연장국악단)		레브 드 집시	컬러스 트럼펫 양상별	타악그룹 판타지				
20:00~21:00	전국무용제 해외무용단 초청공연(1)	전국 와국인 장기자랑대회	자애우호도시 예술단 초청공연(4)	전국무용제 해외무용단 초청공연(4)	전국무용제 해외무용단 초청공연(4)	119 음악회	충청브라스밴드 창작가요제	립스 타악기 협상회	
21:00~22:00	개막행사 2원 생중계	전국무용제 해외무용단 초청공연(2)	전국무용제 해외무용단 초청공연(3)				대전부르스 가요콘서트		
22:00~23:00	대전부르스 가요콘서트	대전부르스 가요콘서트	정은혜 민족무용단						
23:00~24:00	대전 0시 고고장 (1) 파티	대전 0시 고고장 (1) 파티	대전부르스 가요콘서트						



※ 험의 및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대전시 「일류도시대전」 편집실



1950년대 대전시청사(은행동)

국내 유일의 공회당 건물 전국 최고의 시민공간으로

‘첫 대전시청사’ 2027년까지
시민 복합문화 플랫폼 새단장

오랜 시간 원도심의 풍경 속에 묻혀 있던 ‘첫 대전시청사(옛 대전부 청사)’가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 1937년 대전부 최초의 도시계획시설로 ‘대전공회당’이 건립된 이후 지역 주민의 주권 의식과 사회참여를 상징하는 공론의 장으로, 대전 최초의 시청사로, 그리고 청소년회관, 상공회의소 등으로 활용되며 지역사회를 품었던 공간이 단순한 보존을 넘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시민 중심의 복합 문화플랫폼으로 시민들을 다시 맞이한다.

대전 최초의 시청사…건축학적 가치 높아

일제강점기 지방 공회당(公會堂) 건물로는 현재 국내에 남아있는 유일한 건축물인 첫 대전시청사는 지역 공론과 참여의 상징이자, 이후 대전시청·청소년회관·상공회의소 등으로 활용된 대전 근현대사의 주요 건축물이다.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직후 재건기를 거쳐 산업화 시기에 이르는 대전의 변화상을 잘 보여준다.

특히, 근대 모더니즘 양식을 반영한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장방형의 절제된 입면과 대형 커튼홀 창호, 수직 창, 벽면 타일 마감, 높은 층고의 옛 공회당(3층) 등 당시 기술적으로 적용하기 힘들었던 선진 건축기법이 집약돼 있어 건축학적 가치로도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건립 당시 1층은 청사 업무시설과 충남상공장려관(지역 소상공인 상품 판매시설), 2층은 회의실, 3층은 공회당과 강당으로 사용됐다. 해방 이후엔 미군정청, 대전시청사로 활용됐으며 라디오가 귀했던 한국전쟁 시절에는 건물 옥상에 방송시설을 동서남북으로 설치해 뉴스를 전파했다는 기록도 있다. 1959년 청사를 중구 대흥동으로 옮기기 전까지 시청사로 사용하다 이후 다양한 기관·단체들과 민간 소유로 넘어간 건축물은 시간이 흐르며 방치됐고 점점 원형이 훼손됐다. 최근에는 오피스텔 신축 계획으로 철거 위기를 맞기도 했다.

대전시는 첫 시청사 건물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여러 공간으로 활용되며 지역사회를 품었던 공간이 철거로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342억 원을 들여 매입계약을 체결,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무리했다.

최대한 원형 복원해 역사적 의미 계승
첫 대전시청사가 오는 2027년 하반기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새로운 대전공회당’으로 다시 문을 연다. 시는 단지 오래된 건물을 고치는 작업이 아닌 ‘하나의 건축물이 도시의 변화와 함께 역사를 이어간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이곳을 대전의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즐기며 미래를 구상하는 시민들의 커먼즈 공간으로 만든다.

최대한 원형 복원해 역사적 의미 계승

첫 대전시청사가 오는 2027년 하반기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새로운 대전공회당’으로 다시 문을 연다. 시는 단지 오래된 건물을 고치는 작업이 아닌 ‘하나의 건축물이 도시의 변화와 함께 역사를 이어간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이곳을 대전의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즐기며 미래를 구상하는 시민들의 커먼즈 공간으로 만든다.

이를 위해 1930년대 당시 대구, 군산, 함흥 등 공회당 도면을 고증하고 일본·대만의 같은 시기에 건물 자료와 사진 자



료를 분석해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복원할 계획이다. 해체 공사를 통해 원형 구조를 확인하고 건축 당시의 공간성과 기능까지 재현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나아가 공회당이 지닌 ‘공론과 참여’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며 대전의 정체성과 시민의 삶을 담아내는 열린 공간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공회당은 일제강점기 지역 유치들의 사교 공간으로 출발해 3·1운동을 전후로 지역 주민의 주권 의식과 사회참여를 상징하는 공론장으로 발전했으며 ‘공회’라는 단어 자체가 참여와 집회, 공공성을 뜻하는 근대 신조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

“대전공회당 이렇게 꾸며집니다”

1층:로컬콘텐츠 실험실 ‘대전로컬랩D’

과거 충남산업장려관이 자리했던 1층은 이제 대전 고유의 브랜드와 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로컬 크리에이티브 존’으로 바뀐다. ‘꿈씨 패밀리’, ‘0시 축제’, ‘한화이글스’ 등과 같은 지역 대표 콘텐츠를 중심으로 디자인·출판·F&B 브랜드들이 입주하는 테스트베드형 콘셉트 스토어 ‘대전 로컬랩 D’가 들어설 예정이다. 청년 창작자와 로컬 크리에이터의 실험 무대이자, 소비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된다.



1974년 중소기업육성간담회 모습



1974년 개천절 행사 모습



첫 대전시청사 복원 조감도



2025년 첫 대전시청사 복원 현장

2층:근대콘셉트 카페와팝업전시장

과거 대전상공회의소가 사용했던 2층은 1930~40년대 대전의 정취와 느낌을 재현한 카페와 팝업 전시장으로 새롭게 조성된다. 근대 대전의 사교 문화를 재현하는 콘셉트로, 당시 분위기를 반영한 인테리어와 함께 지역 문화예술인의 전시, 로컬 아카이브 전시가 병행된다.

3층:다목적컨벤션홀 ‘프런티어홀’

과거 대집회장 역할을 했던 3층은 ‘프런티어홀’이라는 이름의 350석 규모 다목적홀로 조성된다. 이곳은 강연, 영화 상영, 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수용하는 시민 참여형 복합문화공간이 될 예정이다. 첫 시청사 건축물의 상징성을 고려해 좌석별 역대 시장의 명패, 대전 발전에 기여한 인물들에 대한 ‘아너십’ 부여 등 상징적 요소도 함께 계획돼 있으며 대전의 ‘개척자 정신’을 기억하고 공유하는 공간으로 거듭난다.

옥상:휴식과전망의 ‘옥상정원’

건물 옥상은 도심 속 녹지 공간이자 전망대 기능을 하는 옥상정원으로 꾸며진다. 시민들이 원도심을 내려다보며 쉴 수 있는 테라스 공간으로 2층 카페와 연계한 야외 전시, 소규모 음악회 등 열린 문화공간으로도 활용된다.

흐르는 시간 따라 변화하는 대전의 모습 한눈에 보수 현장 ‘아트펜스’ 첫 설치 화제



첫 대전시청사 원형 복원 공사 현장에 예술 작품을 전시한 것처럼 눈길을 끄는 아트펜스가 최근 화제다. 공사 현장 가림막을 단순한 차단용이 아닌 대전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담은 아트펜스가 지역의 문화유산 보수 현장에 처음으로 설치됐다.

지역의 젊은 디자이너인 박수연(32), 장영웅(30), 이성빈(26) 씨가 공동 작업한 ‘흐르는 시간, 움직이는 도시’라는 작품으로,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대전 중앙로의 풍경과 건축물, 사람들을 콜라주 형식으로 표현했다.

작품은 시대는 다르지만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대전 시민들의 유대감을 강조하며 과거 중앙로를 채웠던 다양한 간

판과 이정표의 타이포그래피를 하나하나 수집해 보여줌으로써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를 전달하는 동시에 시각적인 재미를 더했다.

아트펜스 작업에 참가한 박수연 씨는 “이번 아트펜스 작업은 첫 대전시청사를 중심으로 대전역부터 옛 충남도청까지 이어지는 중앙로의 시간과 기억을 시민들과 나누고자 기획됐다”며 “오랜 시간 동안 도시의 중심에 자리해 온 옛 대전 부청사 건물과 거리의 변화는 그 자체로 대전의 역사를 품고 있다. 같은 장소를 서로 다른 시간에 살아간 사람들이 이 펜스를 함께 마주하며 도시의 변화와 기억을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공/대전시 「일류도시대전」 편집실



대전예총

2025 한여름밤 서람이 팝스콘서트 마무리

지역 예술인과 주민이 함께한
한여름 밤 특별한 문화 향연



대전예총은 지난 7월 25일 관저문예회관 3층 공연장에서 '2025 한여름 밤 서람이 팝스콘서트'를 성황리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대전 서구청으로부터 관저문예회관을 수탁 운영 중인 대전 예총이 주최하고 문화기획협동조합 예담과 세종시메세나협회의 예술지원 매칭펀드 후원으로 마련됐다.

공연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무대에 올라 지역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선사하며 여름밤의 더위를 식혔다.

대전연예협회 팝스오케스트라의 생동감 있는 연주를 시작으로, K-POP 걸그룹 앵두걸스, 재즈 보컬리스트 김미영, 데이지, 김미애, 싱어송라이터 이영하, 그리고 미스트롯3에서 주목받은 가수 한수정이 무대에 올라 감동과 흥겨움을 더했다.

또한 식전공연으로는 관저문예회관 문화강좌팀의 우쿨렐레 공연팀과 진도북춤팀이 무대에 올라 주민들의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내며 공연의 문을 열었다.

성낙원 대전예총 회장은 "대전예총은 앞으로도 지역 문화예술인과 주민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기획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며 다양한 예술 콘텐츠를 통해 지역문화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IWPG 새 수장에 전나영... “평화의 사자로 국제적 도약 이끌겠다”



“무에서 유 창조한 8년”...
IWPG 전나영 대표, 윤현숙 이어 새 출발

(㈔)세계여성평화그룹(IWPG) 수장이 새로 추대됐다. 8월 1일 서울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대표이사 이·취임식에서 전나영 사무총장이 신임 대표로 취임했다. 윤현숙 전 대표는 이날 이임했다.

전나영 신임 대표는 취임사에서 “세계여성평화그룹이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여성 평화 단체로 더욱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희망과 사랑의 빛을 밝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평화의 메시지를 크게 노래하고 전하는 평화의 사자가 되겠다”며 “늘 낮은 마음으로 많은 분의 말씀을 경청하되 분명한 원칙과 뜻대를 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 신임 대표는 2015년 8월 IWPG에 합류해 약 10년간 단체와 함께해온 인물이다. 외교정책부장으로 시작해 기획부장, 해외인사부장을 거쳐 2023년 5월부터 사무총장을 맡아 왔다. 대표이사 취임 직전까지는 글로벌 1국장도 겸임했다.

특히 2018년부터 유엔(UN) 활동에 본격 참여하며 국제무대에서 경험을 쌓아왔다. 매년 UN 여성지위위원회(CSW) 및 국제행사에서 연사로 참가하며 전 세계적으로 여성 평화 활동가 양성에 힘써왔다.

전 대표는 “2018년부터 UN이라는 곳에 처음 발을 내디뎠다”며 “그때는 IWPG에서 단 세 명만이, 용기만을 가지고 뉴욕까지 날아갔다”고 회상했다. “지금은 각 글로벌국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 UN 안에서도 국가의 여성부와 협력해서 행사를 개최할 만큼 국제적인 여성 단체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이임하는 윤현숙 전 대표에 대해서는 “우리 단체가 무에서 유를 만드는 모든 과정에서 한결같이 함께해 주셨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신해 주셨다”며 “그 노고와 헌신에 전 회원의 마음을 대신해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윤현숙 전 대표는 2017년부터 8년간 IWPG를 이끌어 왔다. 재임 기간 중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민간 차원의 자유 왕래와 국제사회의 지지 확대를 주장했다. 또한 CSW 등에 참석해 각국 정부 및 NGO와 평화통일,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 법제화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 활동을 전개했으며 ‘폭력과 불평등이 사라진 지속 가능한 평화 실현’을 핵심 가치로 세계 각국 여성 리더와의 협력 확대에도 힘써왔다.

IWPG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와 글로벌소통국(DGC)에 등록된 국제 여성평화단체로, 여성평화교육, 연대 확산, 평화문화 전파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 대전여성미술가협회 |

제27회 대전여성미술가협회전 개최

7월 10일~7월 15일까지 대전시청 전시실

대전여성미술가협회(회장 최경선)는 지난 7월 10일부터 15일까지 대전시청 제1전시실에서 제24회 협회전을 개최했다.

‘사락 사락(소리)전’ 이란 부제로 열린 이번 정기전에는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져 여성의 시선으로 포착한 삶의 이야기와 예술적 해석을 담아낸다.

작가들은 이번 전시회에서 한국화, 서양화, 공예, 서예, 천연염색 등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인다.

시민들에게 체험과 감상 문화공간을 제공해 정서함양과 지역 문화예술의 저변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해마다 열리는 협회 정기전에는 지역 여성 미술계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작가 8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대전여성미술가협회는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 미술가를 총망라하는 단체로 애향심과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고취하기 위해 이번 전시회를 준비했다.



오지호 김기창 김환기…

‘한국미술 100년’을 만난다

국립현대미술관 ‘근현대미술전’… 1900~1990년대 총 255점 전시
작품 5점 이상 모은 ‘작가의 방’… 인터뷰-도록-의자 뒤 방처럼 구성
근대 조상화-풍경화-한국화 외에 모더니스트 여성 미술가 작품 등
완성도 높은 근현대 작품 한눈에

국립현대미술관(MMCA)이 소장품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미술 100년사를 조명하는 상설 전시의 전체 모습이 MMCA 과천에서 공개됐다. 지난달 1일 MMCA 과천은 상설전 ‘한국근현대미술 I’이 개막하며 1900~1950년대 미술 작품 145점을 먼저 소개했다. 25일 공개된 ‘한국근현대미술 II’는 1950~1990년대 작품 110여 점을 전시한다. MMCA가 조명한 20세기 한국 미술은 어떤 작품들을 통해 어떤 모습으로 정의되는 걸까.

‘작가의방’을 주목하라

미술관의 20세기 소장품 상설전은 2020~2022년 MMCA 과천 ‘시대를 보는 눈: 한국근현대미술전’을 통해 선보인 적 있다. 당시 전시와 이번 전시에서 먼저 눈에 띄는 차별점은 전시장 중간마다 마련된 ‘작가의 방’이다. 전시장의 다른 곳에는 한 작가의 작품이 1, 2점 전시되는 것과 달리, 작가의 방은 한 작가의 작품을 최소 5점 이상으로 구성했다. 영상 인터뷰나 도록, 의자를 비치해 진짜 하나의 방처럼 공간을 구성했다.



안상철의 ‘청일’(1959)

미술관은 ‘방’으로 초대한 작가들을 앞으로 1년마다 교체할 예정이다. 이번 첫 전시에선 오지호, 박래현, 김기창, 이중섭, 김환기, 윤형근이 선택됐다. 이를테면 오지호의 방에는 인상파 화풍으로 한국의 초가집을 담은 ‘남향집’이나 미완성 유작 ‘세네갈의 소년들’ 등 대표작 15점이 소개됐다. 도록을 볼 수 있는 소파도 마련됐다.

상설 전시를 처음으로 공개하는 자리인데, 백남준이나 이우환처럼 국제적인 명성을 지닌 작가는 왜 ‘작가의 방’ 목록에 오르지 못한 걸까. 이는 미술관의 소장품 규모나 전시 가능 여부 등 현실적인 요소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시대를 보는 눈’ 전시 때는 외부 대여를 받기도 했지만, 이번 전시는 미술관 소장품으로만 구성해 더욱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술관 측은 “1년마다 작가의 방이 교체되는 만큼 향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상설전 _한국근현대미술 II_ 전시장 전경



박성광의 '무속 4'(1980년)

백남준의 '브람스'(1993)



김환기의 방



이불 작가의 '스턴바우 No.9'(2009)

채용신, '하유, 유인명 초상'(1924~1925)

이불 '스턴바우 No.23' 첫 공개

또 이번 상설전은 근대 초상화나 조선 명승 유적을 담은 풍경화, 1980년대 한국화, 모더니스트 여성 미술 등 평소에 보기 어려웠던 미술관 소장품들을 전시하기도 했다. 이현주 학예연구사는 “전체적으로 전시는 시대나 사조 흐름을 크게 바탕에 두고 있지만, 주요 사조나 양식사에서 배제되거나 주목하지 못한 부분을 ‘주제’로 들여다보고자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맥락에서 남관 ‘태양에 비친 허물어진 고적’과 최욱경 ‘환희’, 이신자 ‘노이로제’, 황창배 ‘20-1’, 서용선 ‘청계천에서’ 같은 작품들을 만나는 즐거움이 크다. 주요 사조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완성도가 높은 작품들이다. 이불의 ‘스턴바우 No.23’은 올해 초 미술관이 새롭게 소장한 작품이다.

아쉬운 점도 명확하다. 작품들을 전시하는 주제는 시간 순서에 따라 배치됐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어떤 시기는 추상이나 구상 등 그림 속 주제를 조명하고, 어떤 때는 한국화와 유화 등 매체에 초점을 맞췄다. 20세기 한국 미술사를 재구성했다기보다 MMCA 소장품을 시대순으로 분류한 전시에 가깝다. 따라서 명확한 가치를 기준으로 정리된 한국 미술사를 살펴보기보다는 미술관이 소장한 작품을 훑어 본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미술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준비하며 소장품을 다시 연구하고 돌아보며 분류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빠진 작품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비어 있는 것은 적극 소장하려 노력했다. 이불 작품도 그중 하나”라고 했다.

대한문인협회 시 문학 발전을 위한 임원 워크숍

(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및 대한문인협회 추진하는 임원진의 워크숍이 지난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안면도와 대천에서 펼쳐졌다.

이 행사는 김락호 이사장을 비롯한 주응규 부이사장, 김혜정 부이사장, 박영애 부이사장, 임원 등 20여명이 참가해 화합과 친목을 다짐하는 행사로 진행됐다.

김락호 이사장은 “시 문학 발전을 위해 임원들이 먼저 나가 되어 솔선수범으로 함께하는 행사”라며 “먼저 등단하고 임원이라고 해서 대우받기를 원하지 말고 서로 존중

하면서 배려하는 문인이 되어 주길 바라며 꾸준하게 작품 활동을 멈추지 않도록 지도해 주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그리고 “글을 쓰면서 후배 양성을 위해 임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신인 문학인을 발굴하고 추천해 더 많은 문인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임원진 워크숍은 시 문학 발전을 위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지친 날씨에 잠시 쉬어가며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있다.



이날 임원들은 어린 시절로 돌아가 물놀이도 하면서 함께 사진도 찍고, 이야기 나누면서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락호 이사장은 워크숍에 참가한 임원들의 시 노래를 제작하여 하나의 음반으로 만들어 제작 배포하여 시문학과 글의 위대함을 널리 홍보하기로 하고 임원들은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김화정 글로벌 10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멕시코 타バス코 후아레스 자치대학교 국제법 교수 이본느의 축사 모습



튀르키예 그린 크레센트 협회 부대표 수메이에 세일란의 발제 모습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IWPG 평화위원장 사울레 코자무라토바의 발제 모습



IWPG 글로벌 10국 제7회 '세계여성리더 평화간담회' 개최 '여성 리더들이 만들어가는 다차원적 평화' 주제로 열려

㈔세계여성평화그룹(IWPG) 글로벌 10국(글로벌국장 김화정)이 19일 제7회 '세계여성리더 평화간담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여성 리더들이 만들어가는 다차원적 평화'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국내 6개 지부와 튀르키예·카자흐스탄·멕시코·미국·일본·파키스탄·인도 등 7개국에서 300여명의 여성 리더와 회원이 참석했다.

김화정 글로벌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은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핵심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여성 리더를 통해 다차원적인 평화 전략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여성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변화로 연결하는 글로벌 연대의 장으로 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본느 아드리아나 가이탄 베르트루이(멕시코 타バス코 후아레스 자치대학교 국제법 및 인권법 교수)는 "IWPG가 지지하는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이 유엔에 상정돼 국제법이 된다면 시민사회 및 인권단체들은 각국의 입법 활동을 감시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며 "오늘 이 자리가 서로 다른 삶의 색깔들이 하나 돋 더 큰 평화를 이루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사를 했다.

수메이에 세일란(튀르키예 그린 크레센트 협회 부대표, 아동교육재단 설립자)은 "디지털 평화가 건강하고 공정한 사회 구축을 위한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다"며 "진정한 예방은 단순히 위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웰빙, 사회적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화 행사 주최 사례도 공유됐다.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IWPG 평화위원장이자 평화강사인 사울레 코자무라토바는 4월에 '평화주간' 행사를 주최했다. 이에 제7회 평화사랑 그림그리기 국제대회와 평화를 주제로 한 에세이 대회, '4.26 세계여성평화의 날' 등 평화주간을 통해 실천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멕시코 4개 지역 평화위원회의 위원장 4명에게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IWPG는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와 글로벌소통국(DGC)에 등록된 세계적인 여성 NGO로서 122개국에 115개의 지부와 68개국에 800여 개의 협력단체와 연대하고 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세계 평화 실현'을 비전으로 평화 문화 전파, 여성평화교육,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 법제화 지지와 촉구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박일호의 미술여행>



박일호 이화여대 명예교수·미학

벌써부터 인천공항은 피서를 떠나는 사람들로 북적인다는데, 해외여행 길에 많은 사람이 들르는 곳이 미술관이고 그중에서도 런던의 대영박물관이 손안에 꼽힌다. 미술관의 공공적 기능을 대표하는 곳으로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일반인들의 교양 수준을 향상한다는 목표를 내세우며 설립됐다. 그 후 270여년이 지났고, 전 세계에서 모은 약 800만점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그곳에 이 작품도 있다.



'아슈르나시르팔 왕의 사자 사냥' 이라크 북부 님루드 궁전 벽(기원전 645~640년쯤)

영국에서 만나는 메소포타미아 미술

이 작품은 이런 전통을 더욱 다듬어진 형태로 선보인 대표적인 유물이다. 기원전 7세기쯤 이라크 북부에 있는 님루드 궁전 벽에 부착한 작품인데, 아시리아 제국의 전성기를 이룬 아슈르나시르팔 왕의 사자 사냥 장면을 담았다. 달리는 전차 위에서 뒤돌아보며 활을 쏘는 왕의 강인 모습을 중앙에 두고, 한편에는 사자 몰이를 하는 병사들의 진지한 모습도 새겨 넣었다.

기원전 3000년쯤 탄생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꽂피운 아시리아 제국 시대 작품이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페르시아만을 향해 흐르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 탁트인 넓은 평원에서 형성됐다. 어떤 방향으로도 침범이 가능한 개방된 지형 탓에 전쟁이 계속됐고, 아카드, 바빌론, 아시리아,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복잡한 정치사를 남겼다.

이렇듯 변화 많고 팍팍한 환경에서 살아온 때문인지 그곳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나 문명도 현실주의적인 성향을 띠었다. 미술도 자연스럽고 사실적인 묘사가 주를 이뤘다.

바닥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자도 생생하고 실감 나게 표현됐다. 화살을 맞고도 전차를 따라가며 포효하는 사자의 동작에서는 역동성이 느껴진다. 겁에 질려 두려움에 떨면서 날뛰는 말들, 말들을 진정시키며 전차를 끄는 병사의 침착한 모습까지 모두 합쳐져 사자 사냥의 현장감을 더하고 있다.

이 작품을 영국인들이 문화재를 잘 보존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님루드 궁전 벽에서 떼어내 대영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다. 현장에 남겨두는 게 더 적합한 문화재 보존이지 않았을까.

미술작품은 작가의 발언이며, 그 시대의 산물이기도 하다. 작가가 자신이 살았던 시대에 대한 생각과 정서를 작품으로 담아내기에 그렇다. 이런 점이 특히 두드러진 작품이 자크 루이 다비드의 '마라의 죽음'이다. 전 세계에 근대 시민사회로의 전환을 촉발시킨 역사적 사건은 프랑스대혁명이었다. 봉건 왕정을 무너뜨리고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근대 시민사회를 만들어냈지만, 그 후에도 계속된 혁명과 18세기 말의 혼란이 이어졌다.



자크 루이 다비드 '마라의 죽음'(1793)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때

이런 시대의 혼란을 다비드는 어떻게 표현하려 했을까. 절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했던 고대 그리스 미술의 형식을 실현함으로써 예술뿐 아니라 사회까지도 정화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그의 시도에 의해서 신고전주의의 양식이 탄생했다.

신고전주의는 새로운 시민계급의 취향을 반영한 미술 양식이었다. 이성적 합리적 사고를 존중하고 절도와 규율을 강조하는 시민계급의 이상에 맞는 예술이었다. 다비드는 그 이상을 단순하고 절제된 미술작품으로 실현하려 했다.

'마라의 죽음'은 그렇게 탄생했다. 다비드는 프랑스대혁명 후 국민의회의 지도자였던 로베스피에르의 친구였고, 혁명기의 예술 감독이었다. 이 그림은 그가 나라를 위해 죽은 영웅을 기리기 위해서 그린 것이다. 모두 6장을 그렸는데, 이 그림은 벨기에 왕립 미술관에 있고, 다른 그림이 파리의 루브르미술관에도 있다.

혁명의 지도자였고 민중의 친구로 불린 마라가 목욕 중에 암살당한 장면인데, 다비드가 마치 목욕하면서 잠든 것처럼 평온한 모습으로 묘사했다. 배경을 진한 갈색조로 단순하게 처리했고, 작가의 모든 감정을 배제하고 차갑고 냉정하게 나타내려 했다. 명확한 윤곽선과 조각적 입체감을 살리고 고통스러워하는 표정도 엄숙한 모습으로 절제 있게 표현했다.

힘들고 혼난한 시대는 언제나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대처했는가에 따라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어 왔다. 세계가 요동치고 있는 지금은 선동보다 이성적 설명과 판단이 앞서야 한다. 차분한 마음가짐과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때이다.

무등산 자락 걸터앉은 건물… 숲의 풍경 고스란히 품었네 **광주 의재미술관**

미술관 안으로 무등산이 가득 들어왔다. 짙푸른 녹음 사이로 하늘이 보인다. 울긋불긋 단풍이 들 때, 나뭇가지에 흰눈이 내려앉을 때, 미술관 안과 밖에서 바라다보이는 무등산은 아름다운 풍경화를 그려보이고 미술관은 그 풍경을 그대로 품는다. 안과 밖의 경계가 없고, 자연의 흐름을 거역하지 않는 의재미술관은 무등산에 오롯이 안겨 있다.



남종화의 대가 허백련을 기리다

한국 남종화 문인화의 마지막 대가 의재(毅齋) 허백련(1891~1977)의 삶과 작품 세계를 조망하는 의재미술관은 유네스코 세계 지질 공원인 무등산 국립공원에 터를 잡았다. 무등산 자락은 의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머물렀던 곳으로 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1891년 전남 진도에서 태어난 의재는 소치 허련의 뒤를 잇는 우리나라 남종 문인화의 대가다. 1938년부터 광주에 정착한 그는 산수화와 사군자 등 수많은 작품을 통해 자신만의 화풍을 완성하고 연진회를 조직해 제자들을 가르치며

한국화의 명맥을 이었다. 겸허하고 청빈한 사상가이자 계몽가이기도 했던 그는 농업기술학교를 설립, 교육에 힘썼고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자는 삼애사상(三愛思想)을 제창했다.

의재는 차(茶)와 인연이 깊다. 일본인으로부터 인수한 무등산 기슭의 차밭을 일군 그는 수확한 차에 '춘설차'라는 이름을 짓고 차 보급에 나섰다. 의재는 "차를 마시면 정신이 맑아지고 그 맑은 정신으로 일을 해야 실수가 없다"고 믿었기에 언제나 차와 함께였고 제자, 지인들에게 차를 나누며 인연을 이어갔다.



무릉도원

의재미술관은 주차장에서 20여분 걸어 올라가야 만나는 수고로운 곳이다. 의재가 수도 없이 걸었을 중심사 계곡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한 폭의 그림처럼 아담한 현대식 건물을 만난다. 미술관의 위치는 의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가 거주하며 화업을 이어갔던 춘설헌과 묘소가 지척이고, 미술관 뒤편으로는 춘설 녹차밭이 자리하고 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미술관

오래된 아름드리 펑나무가 자리한 미술관 입구를 지나 비스듬한 경사길을 걷다 보면 전시동이 나온다. 미술관은 등산로 옆 경사진 길을 따라 자연스레 배치돼 있다. 돌담을 쌓아 경계를 표시한 미술관은 화려한 건축이 주를 이루는 요즘 풍경과 비교할 때 규모도 작고 소박하다. 대지 면적 1824평, 건축 면적 246평의 미술관은 지상 2층, 지상 1층 규모의 전시동과 옛 농업학교 강당을 리모델링한 삼애헌, 관리동 등 3개 동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01년 완공된 미술관은 아시안게임 선수촌 및 기념공원, 선유도공원, 소마미술관 등을 설계한 조성룡 건축가와 한국예술종합학교 김종규 교수의 공동 작품이다. 미술관은 자연과 어우러진 건물로, '소규모 다기능 건축의 백미'라는 호평을 받으며 그 해 한국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다. 이후 미술관 개관 20주년, 허백련 탄생 130주년이던 지난 2021년 한 차례 리노베이션을 거쳤다.

의재미술관은 노출콘크리트와 목재, 유리로 마감한 건물이다. 미술관은 비스듬한 경사를 그대로 이용했다. 중심사 계곡 등산로 옆 경사진 길을 따라 직렬로 배치된 세 개의 건물은 돌담으로 구성된 긴 기단 위에 놓여 있다. 산비탈에

세워진 만큼 사각형의 형태가 아닌 아래쪽이 더 넓고 위쪽이 더 좁은 사다리꼴 형태로 건축되어 있다. 건물 외관에서 눈에 띠는 건 병풍처럼 세로로 길게 나눈 유리벽으로, 이 모습은 실내 공간에서도 계속된다. 전시관 입구에서부터 휴식 공간인 로비까지 길게 이어진 여섯 폭 병풍 모양의 유리창은 무등산의 경치를 그대로 끌어들인다. 빨강, 파랑, 초록 등 옻칠로 마감한 다양한 색감의 테이블이 놓여 있는 로비는 사계절을 만끽하며 춘설차를 앞에 두고 담소를 나누고 사색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의재미술관의 전시장은 여타 미술관의 전시장 구조와 다르다. 가로로 긴 직사각형 형태로 1, 2 전시실 사이에 작은 계단을 둘 오르내리도록 했다. 2전시실에는 생전의 소박했던





제후

춘설헌 작업실을 재현해 선생이 쓰던 봇, 벼루, 다기, 가구 등을 전시해 두었다. 2전 시설에서 의재 상설관인 3전시실로 이어지는 통로는 미술관에서 인상적인 곳 중 하나다. 마치 산길을 걷는 듯한 반투명 경사로를 따라 걷다 보면 '25시'의 작가 게오르 규 등 의재가 교류했던 인물들을 만날 수 있으며 한복 차림으로 환한 웃음을 터트리는 선생의 대형 사진이 관람객을 전시장으로 이끈다.

의재와 제자, 후손들의 작품 등 모두 350여점을 소장하고 있는 미술관은 1년에 4차례 기획전을 연다. 현재는 '꽃피고 물 흐르니-의재 목재 형제전'(8월31일까지)을 진행중이며 상설전시관에서는 의재의 대표작을 만날 수 있다. 특히 20세기 초 광주의 근현대사를 이끌었던 석아 최원순, 오방 최흥종, 의재 허백련의 남다른 사연이 담긴 '석아정·오방정 혼판'(광주시 문화유산 자료)은 흥미로운 자료다.

전시동과 관리동 사이에 위치한 삼애헌은 예전 농업학교 강당을 수리한 공간으로 서까래 등 옛 모습을 그대로 살려 리모델링해 차 교육장과 행사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건물 밖으로 나와 둘러보는 전시동은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전시동 사이 경사로를 따라 걷다 건물 끝에 서면 미술관 사이로 멀리 무등산 새인봉이 바라다 보이는데, 특히 새인봉 위로 달이 뜨는 모습과 미술관이 어우러진 풍경은 많은 이들이 꼭 사진에 담고 싶어한다.

춘설헌과 의재 묘지

무등산에는 의재의 흔적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많다. 중심사 계곡을 사이에 두고 미술관 맞은 편에 자리한 춘설헌은 유서가 깊은 곳이다. 의재는 타계하던 1977년까지 30년간 이곳에 기거하며 작품 활동을 했고 루이제 린저, 최남선 등 국내외 유명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갔다.



의재 허백련 선생의 작업실인 춘설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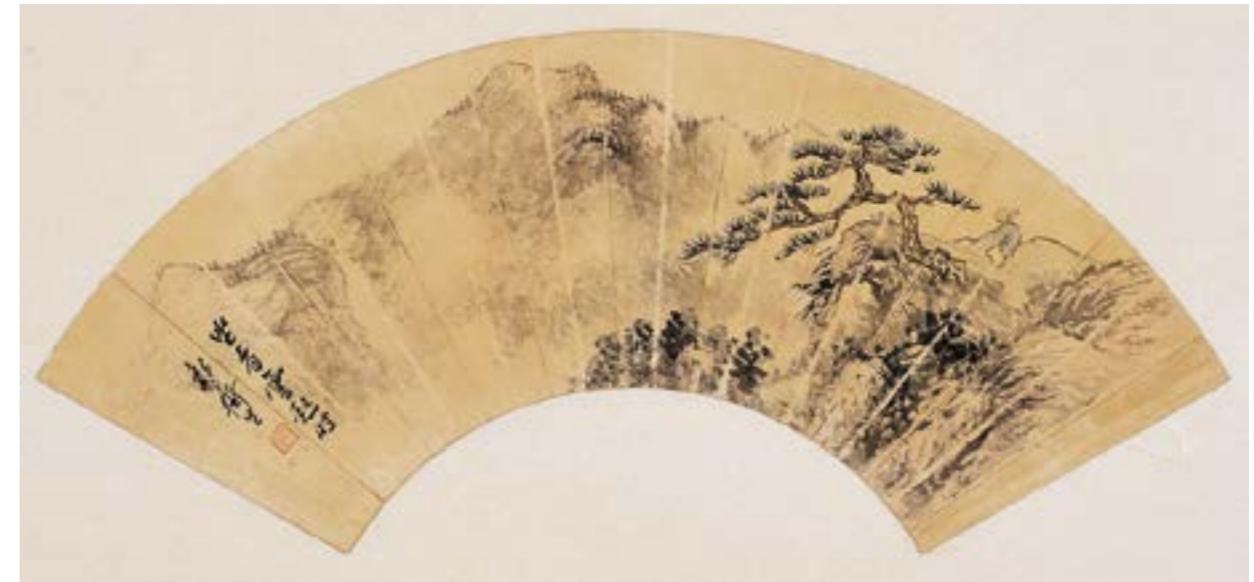
수국주향

춘설헌은 1919년 2·8독립선언의 중심 인물로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역임했던 석아 최원순이 요양했던 곳이자 해방 후 오방 최흥종이 살았던 장소다. 의재는 이 거처를 벽돌집으로 고쳐 사용한 뒤 나중에 별채를 새로 지어 연결해 기거했다.

춘설헌 옆 오솔길을 따라 걸으면 의재 묘소가 나온다. 묘비에는 '한 평생 산수를 그리고 산수 속에 누우신 이여'라는 이은상의 시가 새겨져 있다. 또 의재미술관 뒤로 돌아가는 길을 따라 5분 정도 올라가면 5만평 규모의 녹차밭을 만날 수 있다.

한편 현재 광주시 동구는 춘설차밭과 의재의 흔이 살아 있는 의재미술관 인근, 광풍각 일대 등 의재 문화유적지를 복원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새로운 관광명소로 꾸리는 사업을 진행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점목 애행관광 공간 조성사업'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280억원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다.

현재 미술관이 추천하는 '광주무등산 의재루트'는 중심사 계곡 입구 주차장에서 시작해 의재미술관, 광풍대, 중심사, 춘설차밭, 약사사 등을 아우르는 구간으로 미술관에서의 감상시간을 포함해 5시간 정도 소요된다.



좌간운기

2025년
7월 22일~7월 27일까지
다온아트갤러리

심향맥전

심향 선생의 예술세계 새롭게 조명하다

심향 박승무 선생의 예술세계와 정신을 기리기 위한 <2025 심향맥전>이 다온아트갤러리에서 성대히 개막했다.

심향선양위원회(위원장 이재호)가 주최하는 심향 맥전에는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해 백춘희 대전 문화재단 대표, 윤의향 대전시립미술관장, 이갑재 이응노미술관장, 조종국 한중문화교류회장, 조성남 대전문학관장, 박상권 충청미술전람회장, 김명동 영동예총회장, 김인환 대전미협 회장, 김용호 다온 아트갤러리 관장, 미술인 등 200여명이 전시장을 가득 메우며 대성황을 이뤘다.

이번 전시에는 심향 선생 작품 10여점을 비롯해 회원 작품 120여점이 전시되었다.

개막식에 앞서 심향 선생 타계45주기 추모행사를 현화형식으로 간소하게 진행했다. 추모행사는 지난 2003년부터 약 15년 동안 묘소를 참배하고 제사를 봉행해 왔었지만, 묘소 출입에 제한이 생겨 부득이 전시행사로만 진행하고 있다.

개막식에 참석한 이장우 대전시장은 서재홍 한남 대교수의 <우주로의 여행>이란 작품을 구매하여 미술인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이장우 시장은 미술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미술품을 자주 구입하는 시장으로 알려졌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이장우 시장이 서재홍 교수의 작품을 구매하고 기념사진 한 컷



이장우 심향 선생의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이재호 위원장은 “심향 선생은 군자이고, 위대한 화가”라며 “심향 선생은 서울에서 활동할 때 화랑과 작가들의 아��다툼을 피해 대전으로 내려와 작품세계를 정리하신 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선생의 수많은 작품 속의 화제를 보면, 학문으로 인격과 교양을 닦으면서 정신적인 여유를 통해 여백이 많은 작품을 선보였다”며 “그 것은 내려놓고 취함을 행한 화가 이기에 군자의 인품을 갖춘 분”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축사에서 “심향맥전은 한국화의 맥을 잇고 전통미술의 가치를 되새기는 소중한 자리”라면서 “올해도 심향 선생의 작품뿐만 아니라, 그 정신을 계승하는 작가님들의 걸작과 함께 전시된 만큼, 많은 시민들이 전시장을 찾아 풍성한 감동을 경험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심향선양위원회는 박승무 화백의 예술세계와 정신을 기리는 미술인, 후원인 등 300여명으로 구성됐다. 2004년 설립돼 주로 전시 및 주제제를 진행해오다가 2009년 대전·시카고 국제교류전을 시작으로 해마다 ‘심향맥전’을 개최하고 있는 대전 최대 회원이 활동하는 미술단체다.



2025년
7월 9일~7월 22일까지
갤러리M

김영심 개인전

마음의 고향- 그 향기를 담다



김영심 한국화가

한국화가 김영심 작가의 열두 번째 개인전이 갤러리M에서 펼쳐졌다. 이 전시는 지난 7월 9일부터 22일까지 마음의 고향에서 만났던 정겨운 풍경을 선보였다.

<춤추는 행복- 心鄉(마음의 고향)>이란 주제의 이번 전시에선 수목담채로 전통 미감을 살린 대작 2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다.

계곡을 흐르는 물을 보면 거울처럼 투명하다. 금방이라도 물고기가 뛰어오를 것 같다.

돌 하나 하나, 나무 한그루 한그루 모두 극사 실적이다. 김영심 작가는 철저한 대상의 관찰과 투시로 심연을 깨뚫듯 정교하게 자연을 묘사하고 있는 작품을 선보였다.

대표작 100호 ‘고향길에서’란 작품은 작가가 고향집 가는 길에서 우연히 만난 실뿌리까지 드려난 아카시아나무와 그 사이를 비집고 피어난 여린 예쁜꽃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자연의 정신과 조화를 화폭에 담아 사회적 메시지를 품어내고 있다.



웃음꽃 피는 장승마을



장가계 II

김 작가는 한 때 꽃과 나비를 주요 소재로 독특한 색감과 조형미가 인상적이라 평가를 받으며, 전통의 형식을 뛰어넘어 현대 한국화를 선보이기도 한 작가다.

김 작가는 “작품 속에 보여지는 자연물과 작품을 보는 이의 감정이 동화되어 그림 속에 주인공이 되어본다”며 “아름답고 행복했던 추억과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는 내 모습을 화폭에 담아 또 다른 하나의 작품세계로 감상자를 인도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영심 작가는 한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한국화 전공) 석사졸업을 했다. 개인전 및 아트페어 12회, 국제전 및 단체전 300여회의 전시경력이 있다.

현재, 대전MBC금강미술대전 초대작가, 대전시미술대전 초대작가, 광주무등미술대전 초대작가, 한국미협, 대전미협, 대전한국화회, 대전국제교류회, 한국화동질성전, 대전불교 미술가회, 사금회, 심향회, 채원회, 금동회, 청림회, 한국민화진흥협회, 유담화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미술심리상담사로 봉사도 펼치고 있다.



2025년
7월 3일~7월 12일까지
대전갤러리

이성영 한국화가 칼날로 쓴 자유와 평화의 서사

새로운 기법의 한국화를 구사하는 이성영 작가가 정명희 미술관 기획전인 정예작가전에서 그의 작품을 선보였다. 대전갤러리에서 펼쳐진 이 전시는 7월 3일부터 12일까지 관객을 맞이했다.

이성영 작가는 홍익대학교 동양화 학·석사를 거쳐 단국대학교에서 조형예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 미술의 세계화와 발전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작가이다.

이 작가는 전통 수묵화에서 출발한 작가이지만, 전통과 현대를 넘나들며 동양화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작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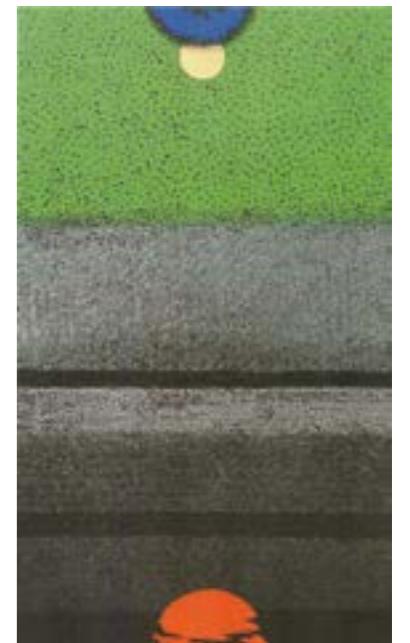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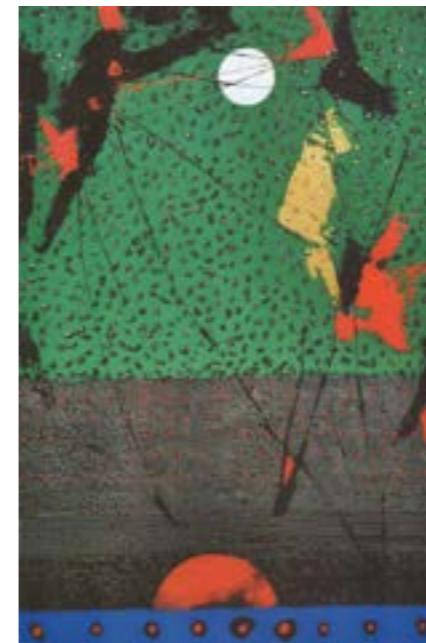
그의 작품은 화려하지만 정제된 색채와 반복적 오브제 배치하는 등 현대적 감수성과 재료의 조합이 돋보이고 있다.

이번 작품들은 전통 수묵 기법을 기반으로, 다양한 재료들을 활용해 자신만의 어법인 질감을 개발했고, 이를 바탕 삼아 전통적 구성 방법과 변형된 전통 기물을 조합해 이성식 현대 회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번 선보인 작품들은 칼날의 파편을 이용한 수천 번의 붙이고, 칠하고, 바르는 작업을 거쳐 질감을 살리는 독창적인 작업의 결과물이다. 특히 오브제의 질감을 통해, 보는 이로 하여금 촉각적 경험과 철학적 사유를 유도한다.



이성영 한국화가



이 작가의 칼날이 만들어 낸 빛과 그림자는 결국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어떤 세계를 꿈꾸는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관객으로 머무를 수 없다. 우리는 그의 예술 속에서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는 동반자가 된다.

이성영 작가는 홍익대학교 동양화 학·석사를 거쳐 단국대학교에서 조형예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개인전 52여

회, 한국·미국(LA·뉴욕·산타모니카)·일본(도쿄)·중국(베이징)·프랑스(파리) 등 국내외 무대에서 단체전 및 아트페어에도 수십 차례 참여했다.

이 전시는 정명희미술관이 2017년부터 기획전으로 열고 있는 정예작가전으로 차세대를 이어갈 역량 있는 작가를 발굴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2025년
7월 22일~7월 27일까지
대전예술가의집

제7회 아인의 사계전

아인캘리협회전, 손글씨로 피어난 따뜻한 감성



전국 캘리그라파들의 대향연인 <제7회 아인캘리그라피디자인협회전- 아인의 사계>전이 대전예술가의집 3층 1~4관에서 펼쳐졌다.

<아인의 사계>란 주제의 이번 전시는 7월 22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며, 개막행사는 7월 26일 오후 2시에 열렸다.

이번 협회전에는 아인캘리그라피디자인협회 전국 지부 회원 65여 명이 참여해 전시 및 체험 행사로 진행된다. 시연행사는 관람객과 소통하고 저변확대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캘리그라피(calligraphy)는 그리스어로, 손으로 그린 그림 문자라는 뜻이다. 글씨를 아름답게 쓰는 기술을 말한다. 작가들은 붓끝에 실린 감성을 작가만의 시선으로 재해석된 독창적인 작품들로 한글의 아름다움을 맘껏 표출하며 춤을 추듯 붓과 먹의 조화로움을 선보여 감상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김나현 협회장은 “이번 전시는 글씨를 단순한 문자가 아닌, 감성과 철학이 담긴 회화로 바라보며 저와 우리 협회가 함께 걸어온 길을 담은 자리”라며 “뜨거운 열정으로 준비해 주신 덕분에 이 자리가 완성될 수 있었다. 회원들 수고와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아인캘리그라피디자인협회는 2019년 1월에 창립돼 전국 지부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 최대 캘리그라파들이 활동하는 단체다. 또한, 캘리그라피 지도사자격 검정시험을 통해 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단체다.

2025년
8월 6일~8월 12일까지
대전MBC 갤러리M

김나현 개인전

묵으로 쓰고 그린 '나현 생각'



김나현 작가



캘리그래퍼로 잘 알려진 김나현 작가의 개인전이 대전 MBC 갤러리M에서 열렸다. 이 전시는 8월 6일부터 12일 까지 작가의 감성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지난 6월 26일 한남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조형미술학과 석사학위 청구전에 이어 펼쳐진 개인전으로 작가의 시선을 오롯이 담은 전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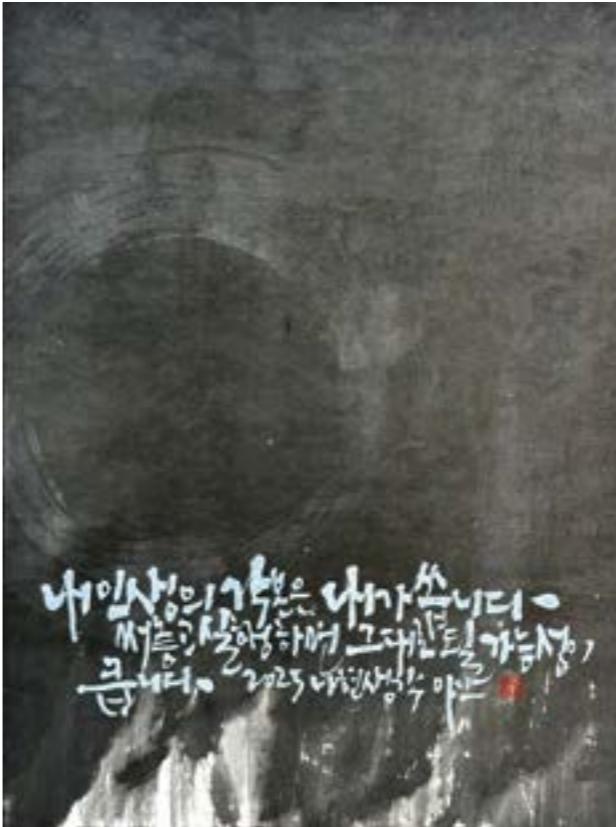
보여주기 위한 형식을 벗어나 작가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 작가가 살아낸 시간, 성찰과 깨달음, 그리고 작가의 시선을 솔직하게 담고 있는 작품들을 펼쳐 보인다.

캘리와 수묵화를 콜라보 한 작품들은 지난 2월 19일 출판기념회를 가진 에세이 <빛은 어둠에 물들지 않아>란

저서에서 가져온 주옥같은 시어들이다. 작가의 경험과 생각을 기록한 일기와 살아왔던 태도, 앞으로 살아 각오를 다지는 글들이다.

김나현 작가는 “내 작업의 중심에는 캘리그라피가 있다. 상업 캘리그라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글자는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나를 표현하는 방식이 되어 갔다”며 “이 전시는 나 자신의 언어와 태도를 ‘글씨’라는 매체로 정리한 시도”라고 말했다.

김 작가는 캘리그래퍼, 한국화가로서 한남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조형미술학과(석사) 졸업했다. 아인캘리그라피 디자인협회 회장, 충청미술전람회 캘리그라피 분과장, 전국공모전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 전국공모전 초대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2025년
8월 7일~8월 13일까지
윤갤러리

박진현 개인전 고회를 맞아 '墨에서 길을 묻다'



고회(古稀)를 맞는 문인화가 옥당 박진현 선생의 스무 번째 개인전이 선화동 윤갤러리에서 펼쳐졌다. 이 전시는 8월 7일부터 13일까지 은은한 묵향을 관객에게 선사한다.

고회전 개막식에는 정태희 대전서예진흥원장, 조종국 한중문화예술교류회 회장, 양동길 동구문화원장, 김두한 충청서단 이사장을 비롯해 지역예술계의 내노라는 지도자급 예술인들 200여명이 참석해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 전시에서 옥당 선생은 <墨에서 길을 묻다>란 주제로 점점에 다다른 수묵산수 40여 점을 선보이며 그의 화력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가벼운듯하면서도 중후함이

있고, 부족한듯하면서 여유로움이 배어있는 작품에는 경허함까지 느껴진다.

그의 수묵산수는 호탕한 성격만큼이나 임팩트한 일필휘지의 조합은 화면에 긴장감을 준다. 작가의 화력이 전성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수묵산수는 단순한 묘사가 아닌, 자연을 살아 숨 쉬는 존재로 여긴 예술적 철학의 표현이다. 그는 한국의 산하,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느낀 감흥을 오롯이 화폭에 담고 있고, 여백의 미와 절제된 봇질로 자연의 숨결을 드러내고 있다.



옥당 박진현 선생은 전남 진도 출생으로 19878년경에 대전에 정착하여 47년여간 후학을 양성해온 대전 미술계의 지도자이다. 그의 예술은 품격이나 기품이 높은 서화로서 지역에서는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완성한 대가(大家)로 인정받고 있다.

옥당 박진현 선생은 한남대학교 조형미술대학원을 졸업했다. 개인전 및 초대전 20회, 한국예총 대상 수상, 대전시미

술대전 초대작가상 수상, 정수미술대전 초대작가상 수상, 한국미술협회 공로상 수상 등 굵직한 수상경력이 있고, 한국미술협회 분과위원장,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 및 운영위원, 대한민국서예대전 심사 및 운영위원장을 역임을 했다.

현재, 충청남도미술대전 초대작가, 대한민국서예대전 초대작가, 대한민국미술대전 문인화 초대작가, 대전시미술대전 초대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2025년
7월 15일~7월 20일까지
J갤러리 복합문화공간



임효숙 선생



제3회 수임회

여름날의 '빛을 담은 물놀이'전 개최

맑은 감성을 가진 수채화 작가들의 모임인 수임회(회장 조용임) 회원들이 펼치는 '제3회 수임회전'이 선화동 J갤러리 복합문화예술공간에서 열렸다.

지난 7월 15일부터 7월 20일까지 열린 이 전시는 <빛을 담은 물놀이>란 주제로 14명의 작가가 참여해 자연과 일상을 모티브로 표현한 구상계열의 최근작들을 선보였다.

회원들은 수채화 작가 각각이 가진 독특한 화풍으로 자연물을 서정적이고 낭만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종이에서 물어나는 맑고 투명한 수채화 작품을 느껴볼 수 있다.

여행에서 만나 소소한 풍경들과 화사한 꽃들, 상상 속으로 그려낸 생명 공간까지, 회원들은 저마다의 감성을 수채화 화폭에 담아냈다.

이번 전시엔 조용임 회장을 비롯해 강세종, 김선미, 김성례, 김재은, 김주하, 성나윤, 이기호, 이명희, 임미옥, 임종관, 정보윤, 최정 등이 참여하고 임효숙 선생은 찬조 출품했다.

임효숙 선생은 격려사를 통해 "2025 제3회 수임회 회원전 <빛을 담은 물놀이전>에는 일상 속 조용한 감정들, 스치는 계절의 빛, 그리고 함께 그려온 시간의 결이 맑은 수채화로 스며든 자리"라며 "투명한 색채에 마음을 실어, 마치 어린 시절의 물놀이처럼 자유롭고 설레는 감정을 이 전시에서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임회는 임효숙수채화교실 회원들의 모임으로 임효숙 선생의 지도로 영혼의 순수함과 따스함을 추구하는 회원들이 수채화를 사랑하고 연구하는 모임이다. 2023년 11월 창립 전을 시작으로 올해 3회째를 맞고 있다.



임미옥 작품



조용임 작품



임효숙 작품



2025년
8월 1일~8월 31일까지
씨젠갤러리

박경희 개인전

<여름 향기> 그윽한 복숭아의 향연



복숭아를 모티브로 작업을 하는 박경희 작가의 열아홉 번째 개인전이 씨젠갤러리에서 펼쳐졌다. 이 전시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달큰한 여름향기를 선사한다.

<여름 향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씨젠갤러리 초대전으로 열고 있으며, 박 작가는 평면회화를 비롯한 판화, 입체 조형작품도 함께 선보인다.

작가는 유년 시절 아버지가 운영했던 복숭아 과수원에서의 행복했던 기억을 소환해 작품에 표현하고 있다. 사실적인 화법으로 기억을 재현하면서 유년기 시절의 감정을 잘 담아내고 있다.

재활용의 중요성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담아내고자 한 조형작품도 선보인다. 종이 계란판을 이용해 ‘기억의 서랍’ 등 업사이클링(Upcycling)한 작품도 눈길을 끈다.

박 작가는 “행복이란 그리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과거 유년기 시절처럼 걱정 없이 살았던 평범한 일상과 같다”며 “작품을 통해 신비롭고 환상적인 행복의 감정을 표현하며, 작품으로서 행복한 일상의 하루를 다시 한번 꿈꾸며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경희 작가는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회화(서양화) 석사를 졸업했다. 개인전 19회, 단체전 및 국제전 150여회, 아트페어 10회의 전시경력과 한류문화공현대상(미술부문), 보문미술대전 대상, 무등미술대전 우수상 등 수상경력이 화려하다.

현재, 한국미술협회, 창작미술협회, 시나브로, 총원전, 이코노텍스트, 대전국제교류회, 대전구상작가회, 대전카톨릭미술가회, 대전시미술대전 초대작가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경희 서양화가



2025년
8월 7일~8월 13일까지
KBS대전방송총국
2전시실

아리아 드로잉 창립전



김기자 회장의 인사말

아리아 드로잉(회장 김기자) 창립전 지난 8월 8일 오후5시 KBS대전방송총국 2전시실에서 개최됐다. 창립전은 8월 7일부터 13일까지 관객을 맞이한다.

드로잉은 인체의 순간적 포즈나 인물의 표정을 빠르게 담아내는 것에서부터 작가가 가진 개념이나 의식, 철학을 나타내는 표현 수단으로써, 그 의미가 확장된, 미술가가 누릴 수 있는 매력적인 장르이다.

이번 '아리아 드로잉'전은 전공자들을 포함한 취미 작가들이 참여해 우리 삶의 소소한 일상과 인체의 아름다움을 회원 각각의 시선으로 표현한 작품 30여 점을 선보인다.

참여 작가는 김기자 회장을 비롯해 김선태, 김순의, 김진희, 송인권, 신복순, 안의종, 안혜린, 양윤영, 엄미영, 오정숙, 우순이, 우제권, 이병주, 이은철, 임인순, 정장직, 조인영, 차선영, 최종애 작가 등 20명이다.

특히, '검은 그림자'란 작품을 출품한 안혜린 작가는 영아티스트로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의 일차원적인 한계를 넘어 그녀는 인간관계에서 파생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 감각, 생각들을 시각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기자 회장은 "이번 아리아드로잉회 창립전은 그 첫걸음 이자 앞으로 펼쳐질 창작 여정의 서막"이라며 "작가들의 다양한 시선과 표현이 담긴 작품들을 통해 모든 분들에게 작은 울림과 여운이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리아 드로잉'이라는 표현은 특정한 고정된 의미가 있는 단어가 아니라, '아리아(Aria)'와 '드로잉(Drawing)'이라는 두 단어의 조합이다. 음악, 특히 오페라의 아리아(감정이 풍부한 독창곡)에서 영감을 받아 시각적으로 표현한 그림이나 일러스트레이션을 의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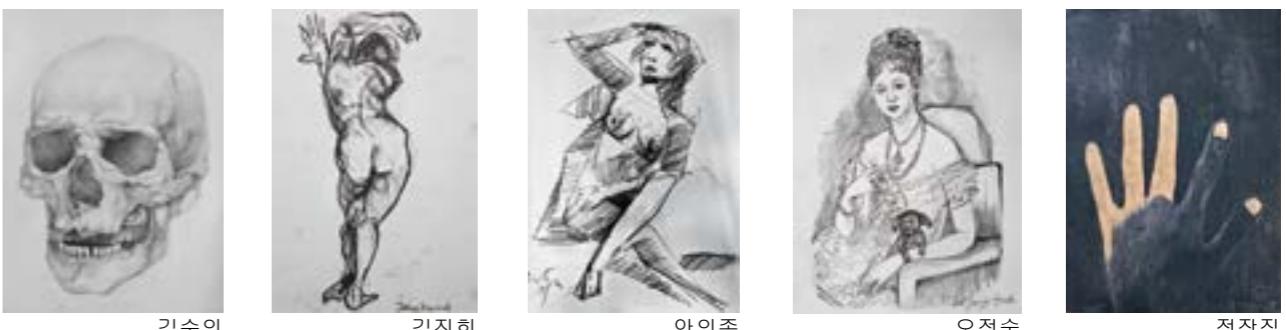
김기자

김선태

송인권

신복순

양윤영



김순의

김진희

안의종

오정숙

정장직



안혜린

엄미영

우제권

이병주

임인순



조인영

우순이

이은철

차선영

최종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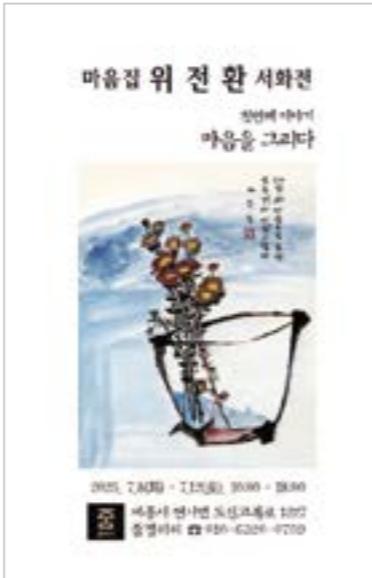
2025년
7월 8일~7월 12일까지
세종 줌갤러리

위전환 작가

첫 번째 서화전 '마음을 그리다'



위전환 서화가



목향 가득한 봇끝으로 오롯이 시서화 작품을 그려내는 마음집 위전환 작가의 개인 서화전이 열렸다. 이 전시는 7월 8일부터 12일까지 세종 줌갤러리에서 펼쳐졌다.

'마음을 그리다'란 주제로 50여점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에서 위 작가는 섬세한 필선으로 그린 문인화 위에 마음에 울림을 주는 시와 좋은 글귀를 붓글씨로 녹여냈다.

리듬감 있는 간결한 필획과 그 필획을 감싸는 수묵의 번짐 효과는 입체감을 자아내고 그림과 어우러진 개성 있는 서체는 문인의 심미적 정취를 증폭시킨다. 감상자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위전환 작가는 "한국화, 문인화, 사군자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자연의 아름다움과 삶의 의미를 화폭에 담아왔다"며 "특히, 국화와 배를 비롯한 자연의 풍경에서 얻은 영감을 섬세한 필선으로 표현하고, 마음에 울림을 주는 시와 좋은 글귀를 붓글씨로 자연스럽게 녹여냈다. 이번 첫 개인전 '마음을 그리다'전에서 목향 가득한 봇끝으로 그려낸 작가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위 작가는 삶의 자유와 행복을 찾아 책을 읽고 여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지난 5월 <두 발로 중앙아시아 4개국 여행> 발간에 이어, 7월 <두 발로 러시아& 발트 3국 여행 그리고 핀란드> 기행문을 발간한 여행 작가이기도 하다.



2025년
7월 14일~7월 17일까지
유성문화원 갤러리유성



이순례 규방공예 작가

이순례 작가 규방공예 바느질 개인전

규방공예가 이순례 작가의 개인전이 유성문화원 갤러리 유성에서 열렸다. 이 전시는 지난 7월 14일부터 17일까지 전통문화의 진수를 선보였다.

이 작가는 <순애보1- 느린손 이야기>란 주제로 50여점의 작품을 전통 여성의 삶과 정서를 바느질로 한땀 한땀 풀어내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보자기, 모시발, 테이블러너 등 공예품을 비롯해 평소 즐겨 그리던 한국화, 서양화도 함께 선보였다.

이 작가의 규방공예전은 여성에게 주어졌던 제한적인 공간 ‘규방’에서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펼쳐나갔던 옛 여인들의 맥을 잇는 전시다. 작가 특유의 감각을 녹여낸 작품들이 돋보였다.

규방의 여성들은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손수 제작하였는데, 한복과 이불을 만들고 남은 조각을 일뜰히 모아 보자기와 주머니 같은 소품을 만들었다. 이러한 소품들은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장식적이며 미적가치가 높아 ‘규방 공예품’이라 지칭하고 있다.



잊혀진 대전의 인물 백호 윤휴 白湖 尹鑄 그를 기억하다

성리학 교조주의에 맞선 개혁적 사상가…
재조명 작업 활발

“천하의 이치를 어찌 주자(朱子) 혼자 안다는 말이냐!”

윤휴(1617~1680)는 17세기 조선시대 산림학자, 실천적 경제가, 개혁적 사상가이다. 본관은 남원, 초명은 尹鎮(鎮)은 정, 경, 간 등 여러 음으로 발음된다), 자는 희중(希仲), 호는 백호(白湖), 하현(夏軒), 붕당은 남인(청남)이다.

부친 윤효전(尹孝全)은 광해군 9년인 1617년 2월 외직인 경주 부윤으로 부임했는데 그해 10월 윤휴가 아버지 임지인 경주관아에서 태어났다. 윤휴가 출생하던 날 마침 유효전의 스승 한강 정구(寒岡 鄭述)가 찾아왔다. 유효전이 대현(大賢)께서 방문하시자 아이가 태어났으니 가문의 광경(光慶)이라면서 반겼다. 정구는 아명(兒名)을 북두칠성 으뜸 별이라는 뜻의 ‘두고(斗魁)’라고 지어주었다.

어린 시절 윤휴는 세 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그후 인조반정, 이괄의 난, 정묘호란에 이어 병자호란까지 겪었다. 7세인 이괄의 난 때는 경기도 여주로 피난, 10세인 정묘호란 때는 충북 보은으로 피난했다. 보은 삼산 외가에서 지낼 때 송시열과도 아는 사이가 되었다.

“청나라 치욕 씻을 때까지 벼슬에 나가지 않아”

병자호란이 끝나고 1637년 윤휴와 송시열은 속리산 복천암에서 만났다. 복천암(福泉庵)은 보은 법주사의 말사로 지금도 복천이라는 샘물이 솟아나고 있다. 송시열에게 인조의 굴욕적인 삼배구고두례(三拜九叩頭禮·세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예법, 중국 청나라 시대 황제에



중구 사정동에 있는 백호 윤휴의 묘소



윤휴의 아버지 윤효전 초상. 윤휴의 초상으로 알려져 있으나 소장자의 연구에 의하면 부친인 윤효전의 것이라고 한다. 윤휴는 아버지인 윤효전과 똑같이 생겼다고 한다.



대전역사문화 학술대회 ‘금기된 이름 윤휴’ 포스터

게 인사하는 방법) 항복 정황을 듣고 윤휴는 청나라에 치욕을 씻을 때까지 벼슬에 나가지 않겠다고 작정해 과거 응시를 단념한다. 이때부터 윤휴는 독서와 저술에만 전념한다.

윤휴는 만 21세 때인 인조 16년(1638) 모친 김씨를 모시고 공주 유성현 유천의 선산 아래(현 대전 서구 변동추정)로 이사한다. 윤휴는 특정한 스승 없이 공부했는데 이것은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컸다. 틀에 얹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었다.

윤휴의 학문 실력이 소문나면서 인근의 많은 사대부들이 찾아와 교제를 청했다. 탄옹 권시, 석호 윤문거, 미촌 윤선거, 월천 권준, 시남 유계, 그리고 나중에 정적이 되는 우암 송시열과 동춘당 송준길, 초려 이유태 등 재야의 젊은

학자들이 모여 유학의 진리를 논하고 청나라에 대한 복수 설치(復讐雪恥)를 계획하던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훗날 이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비극을 연출할 줄은 이때는 아무도 몰랐다.

주자에 반기들자 송시열 “윤휴는 사문난적”

윤휴는 유천 시절에 흥법설(洪範說), 주례설(周禮說)을 지었다. 27세(1644) 때는 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경기도 여주로 돌아왔는데 집 근처(현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금사2리)에 백호(白湖)가 있어 호로 삼았다. 여주에서는 중용설(中庸說)을 완성했다. 36세 때인 효종 4년(1653)에 윤휴가 주자의 중용장구가 틀렸다고 하면서 송시열과 사이가 갈라지게 된다.

송시열은 주자의 서술에서 1자 1획을 더하고 빼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서 윤휴를 사문난적으로 선포했다. 사문난적(斯文亂賊)이란 성리학을 주자(朱子)의 가르침대로 하지 않고 새로운 해석으로 학설을 펼치는 사람을 비방할 때 사용하던 말이다. 사문은 ‘바로 이 학문’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이 학문은 유학을 의미한다.

유교를 국시로 삼은 조선에서는 학문이라는 단어는 별도의 설명 없이 그 자체로 유학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난적은 세상을 어지럽히는 도둑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사문난적은 유교의 도리를 어지럽히는 요즘 유행어로 ‘빌런’이라는 뜻이다.

윤휴가 송시열에게 “공은 어찌하여 주자만 공자의 뜻을 알고 나는 모른다고 하시는가” 하자 송시열은 두 번 다시 윤휴를 찾지 않았다. 여담으로 송시열은 성격상 호불호가 매우 강했는데 외가인 충북 옥천군 이원면 구룡리를 성장한 이후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다. 그 이유는 외가인 선산 곽씨들이 송시열이 어린 시절 가난하다고 괄시했기 때문이었다.

호포법 통해 양반의 특권 폐지 주장

1674년 제2차 갑인예송이 발생했다. 효종비 인선왕후 사후에 인조의 계비 자의대비(장렬왕후 조씨)가 상복 입는 기간

을 두고 서인과 남인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했다. 남인의 1년설이 채택되어 남인이 정권을 잡게 된다. 인조반정 이후 51년 만의 정권교체였다. 1675년 정4품 사업(司業)의 직을 받아 58세 늦은 출사 후 이조참판, 대사헌, 성균관 채주, 이조판서, 우참찬, 좌참찬 등을 지내고 1679년 종1품 우찬성까지 승진했다.

윤휴는 청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도체찰사부(都體察使府) 설치, 무과인 만과(萬科) 실행, 병거(兵車)인 전차와 화차의 개발을 고안해 보급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지폐법(紙牌法)과 호포법(戶布法)을 주창했다. 호포의 재질은 상아로 만든 아파, 뿔로 만든 각파, 나무로 만든 황양목파, 소목방파, 대목방파 등 신분에 따라 각기 달랐다.

지폐법은 기존의 호포 대신 신분 구별 없이 모두 종이로 만든 지폐를 차자는 것이었다. 지폐법은 양반, 상민 구분 없이 다섯 집을 하나의 통으로 묶는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과 함께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윤휴의 구상이었다. 호포법은 양반 포함 모든 호(戶)가 군포를 납부하는 법이었다. 북벌을 하려면 나라와 백성이 부강해야 하고 그렇게 되려면 양반들의 계급적 특권이 폐지 또는 완화되어야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혁안은 탁남과 서인들에 의해서 저지되었다.



속리산 범주사 복천암. 병자호란 후 송시열과 윤휴가 만난 곳이다.



윤휴 묘소 입구 안내판

제345주기 백호 윤휴 선생 추모제를 알리는 현수막

윤휴 묘소(중구 사정동 201-1)

서인들이 역모 사주로 결국 사약 받아

조선 숙종 6년인 경신년(1680), 김석주 등 서인들의 사주로 정원로, 강만철이 허견을 역모로 고변했다. 이 사건은 확대되어 남인 계열 인사들이 연루되었다. 윤휴도 연루된다. 서인들은 윤휴를 살려 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주자에 맞서면서 사상의 자유를 논하고 사대부의 특권을 폐지하려 한 윤휴를 용서할 수 없었다. 다시는 윤휴 같은 인물이 나타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해야 했다.

마침내 1680년 5월 20일 서대문 밖 민가에서 장독(杖毒·곤장을 심하게 맞아 생긴 상처의 독)으로 앓고 있던 윤휴에게 사약이 내려왔다.

윤휴가 사약을 마시기 직전 “나라에서 유학자를 쓰기 싫으면 안 쓰면 그만이지 죽일 것은 무엇인가”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는 유언이 아닌 유언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후 1689년 기사환국으로 서인이 축출되어 남인이 집권하게 되었을 때 사면되고 영의정에 추증(追贈)되었다. 그러나 그 후 1694년 갑술환국으로 서인이 재집권하면서 추탈되었다가 정조 때 다시 복권되었지만 정조 사후 또 추탈되



지난 6월 27일 효문화마을에서 열린 ‘제6회 대전역사문화 학술대회’

기를 반복했다. 1908년 순종 년간에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에 의해 최종 복권되었다. 매국노 이완용이 조선(대한제국)이 망하려 하자 정리사업으로 복권을 처리한 것이다. 묘소는 1970년 경기도 여주 장흥동에서 이장해 현재 보문산 자락인 중구 사정동 201-1에 자리하고 있다.

그의 역자들은 당시 정치적인 상황으로 묻혀있다가 1927년 경남 진주 용강서당에서 <백호집(白湖集)>이 발간되었다. 1974년에는 10세손 윤용진에 의해 <백호전서(白湖全書)>가 출판되었다.

중구 사정동 묘소에서 매년 추모제 열려

윤휴는 소년기에 외가인 충북 보은 삼산에서 외할아버지 첨지중추 김덕민에게 배웠고 청년기에는 유성의 유천에서 호서산림들과 활발하게 교유했다. 윤휴의 장남 윤의재는 탄방동에 사는 권시의 사위가 되었다. 송촌동에 사는 동춘당 송준길과도 자주 왕래하면서 송준길이 도산의 남쪽에 집을 지어 우락이라는 당호를 짓고 기록을 청했을 때 우락재명(憂樂齋銘)을 써주기도 했다.

이렇듯 윤휴는 대전과 연고가 많은 대전의 인물이다. 오랫동안 역사에서 잊혀진 인물이었고 고향 땅인 대전에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인물이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2021년 묘소 입구에 이정표가 설치되었고 <산성마을신문>이 주최하는 백호선생 추모제가 2022년부터 매년 5월 20일에 개최되고 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제6회 대전역사문화 학술대회가 ‘금기된 이름 윤휴’라는 주제로 열렸다.

윤휴는 주자 성리학이 교조주의를 이룬 시기에 창의적인 해석과 체계를 수립한 대전의 역사인물로 그의 생애와 업적에 대해 더 많은 대전시민의 관심과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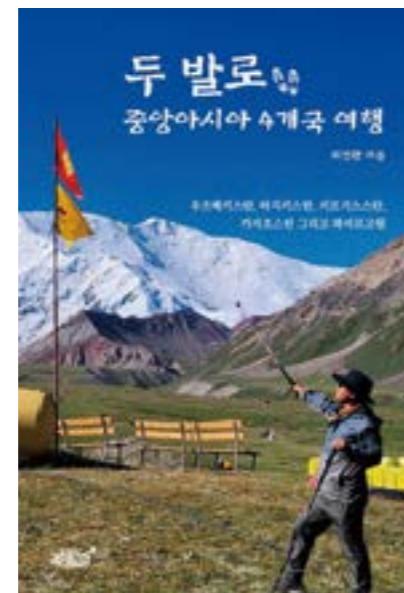
위전환·임귀옥 여행작가 <두 발로 중앙아시아 4개국 여행> 발간

'중앙아시아 여행을 위한 최고의 길잡이' 책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책을 읽고 여행하고 일상을 기록하며 성장하는 지구별 여행자인 위전환, 임귀옥 여행 작가가 쓴 <두 발로 중앙아시아 4개국 여행>이 바로 그 화제의 책이다.

중앙아시아 여행 정보가 자세히 담긴 적당한 여행 도서가 없어서 여행자들이 이곳 여행을 하면서 SNS에 담긴 떠도는 정보에만 의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전환, 임귀옥 작가가 쓴 이 책은 중앙아시아 4개국을 실제로 여행하고서 기록한 여행 보고서 같은 책이기 때문에 최근의 생생한 정보가 담겨 있다.

팬데믹 이후 중앙아시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다. 이들은 누구나 한 번쯤 중앙아시아 여행을 하고 싶지만 이곳을 여행하기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우리는 여행을 떠나기 전 언제 어디를 다녀올 것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게 된다. 인터넷과 SNS에는 많은 여행 정보들이 넘쳐나지만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막상 여행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참고하기가 힘들다. 이럴 때 필요한 책이 <두 발로 중앙아시아 4개국 여행>이다.

이 책은 위전환, 임귀옥 저자가 33일간 중앙아시아 4개국을 직접 여행하며 배우고 느낀 노하우를 토대로 중앙아시아를 여행한다면 꼭 봐야 할 아름다운 명소, 먹거리, 숙소, 교통 이동 등을 현지 실정에 맞게 정리하여 소개해 주는 여행서다. 자유여행자를 비롯해 패키지 여행자에게도 많은 도움을 제공해 준다. 중앙아시아 4개국의 역사·문화적 명



소들을 중심으로 현지인들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선정하여 담았고, 많은 내용을 실제 촬영한 사진들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

<두 발로 중앙아시아 4개국 여행>은 지금 이 순간, 중앙아시아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이 책은 중앙아시아 여행의 시작,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Tashkent), 말라 버린 바다 무이나크 (Moynaq), 실크로드의 오아시스 히바 (Khiva), 도시 전체가 박물관 부하라 (Bukhara), 실크로드의 중심지 사마

르칸트, 멀지만 아름다운 파미르고원 길, 중앙아시아의 알프스, 키르기스스탄(Kyrgyzstan), 대자연 속 예쁜 진주 콜 사이 호수 국립 공원, 카자흐스탄의 심장 알마티(Almaty), Again Tashkent 등 10개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다.

작가는 "키르기스스탄을 다녀온 지인이 '중앙아시아는 아름다운 나라가 많다'고 말해 2024년 7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33일간, 중앙아시아 4개국을 여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아시아는 아시아 핵심 지역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실크로드 중심이기도 하다"며 "중앙아시아란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5개국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작가는 "실크로드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고성 히바, 부하라, 사마르칸트, 세계의 지붕이라는 파미르고원 길, 대자연의 예술 작품 레닌봉과 알라콜 패스 등 환상적인 풍경을 지닌 환상적인 이름들을 처음 만났다"고 전했다.



작가는 "저는 중앙아시아 여행의 길잡이가 되고 싶다"며 "독자들이 자유여행을 하고 싶어도 막연한 두려움에 겁을 먹고 있다면 이 책을 읽고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을 떠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시간이 부족하다면 우즈베키스탄의 히바, 부하라만이라도 여행하기를 권한다"며 "수많은 길 위에 서서 세상을 보았어도 유독 마음에 남는 곳이 있는 것은 그곳에서 경험한 사람들과 사건들이 오래 각인되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책은 중앙아시아 여행을 꿈꾸는 사람에게 참고서(reference book)가 되기를 바라는 저의 정성이 스며 있다"며 "여행 중 느꼈던 디테일한 경험과 팁들을 꼼꼼하게 정리했다"고 소개했다.

위전환 작가는 또 "책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당신도 중앙아시아 여행을 꿈꾸었으면 좋겠다"며 "이 책이 그 꿈의 다정한 안내서이자, 친절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삶의 자유와 행복을 찾아 책을 읽고, 여행을 하는 사람, 일상을 기록하며 아름다운 성장을 해 나가는 사람, 남은 생은 '해 보고 싶은 일'을 하며 삶이 우리에게 준 것들로 최고의 삶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나태주 시인은 추천사에서 "여기 한없이 부려운 한 여행자와 그 여행자의 기록이 있다"며 "그야말로 말로만 듣던 중앙아시아이고, 그곳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했다.

나 시인은 "위전환 선생님은 오랫동안 교직에 봉직하다가 퇴임한 분으로, 문화나 예술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며 "아마도 교직에서도 물러나고, 인생에서도 이제 후반부에 이르니 새로운 인생을 꿈꾸고 싶었나 보다"고 말했다.

또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매우 섬세하고 꼼꼼한 여행의 기록"이라며 "누군가 이 책을 들고 저자가 다녀온 나라를 되짚어가더라도 매우 편안하게 찾아갈 수 있는 안내서"라고 전했다.

특히 "여기서도 저자의 성품과 특성이 잘 나타난다"며 "첫째는 교직에 오래 있었다는 것, 둘째는 예술이나 문화에 관심이 많고 식견이 높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시인은 "그러므로 이러한 책은 저자 본인에게만 의미 있는 책이 아니라 독자들에게도 수월찮게 의미 있는 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수 최고의 비경 '덕산계곡'서 여름을 씻다

사람 손덜 타고 청정 … 숲 어우러져 시원



장수 '덕산계곡'은 울창한 원시림과 맑은 물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는 구간이다. 특히 용소(龍沼)를 비롯한 크고 작은 소(沼)와 기암괴석들이 많고, 수심이 깊지 않은 곳에서는 계곡물에 입수가 가능해 여름철 피서지로도 인기가 많다.

낭만산악회(회장 박용우)는 지난 7월 27일 전북 장수군 번암면에 소재한 '덕산계곡'을 찾아 무더위를 식혔다. 출발점에서 덕산계곡 용소까지 이어지는 이 산길은 멋진 트레킹 코스다.

이날 회원들은 방화동 자연휴양림에서 출발하여 아랫용소- 윗용소- 덕산계곡을 다녀오는 트레킹 코스를 잡았다. 덕산계곡의 아랫용소는 장수 최고의 비경으로, 기암괴석 사이로 계곡물이 굽이쳐 흐르는 모습이 장관을 이루며 더위를 식혀준다.

계곡을 따라 짙은 녹음이 드리운 보드라운 흙길이 이어지고, 가파른 바위 위에는 나무 데크가 깔려 있다. 물놀이하기는 수심이 깊지 않은 윗용소가 적당하지만, 그윽한 풍광이나 서늘한 기분은 아랫용소가 훨씬 낫다.

회원들은 계곡으로 내려서 발을 담그니 그야말로 신선이 된 기분이다. 물이 어찌나 차가운지 30분 이상 발을 담그고 있기 어렵다. 계곡 곳곳의 기암괴석을 돌아 흐르는 폭포 등 시원하고 맑은 계곡 물이 더위를 한 방에 날려준다.

특히 물기를 머금은 진한 숲의 향이 제대로다. 깊게 들이마실수록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이 속에 쌓인 해로운 것들까지 다 몰아낼 것 같다.

올 여름 무더위는 잊기 위해 찾아온 회원들은 덕산계곡의 시원한 그늘 아래서 숲의 바람을 느끼며 계곡의 물놀이 매력에 풍덩 빠지는 날이었다.





백주열
대전선병원 심장혈관센터전문의



의료 기술의 발전은 해를 거듭할 수록 빠른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뿐 아니라 치료를 주도하는 의사들 역시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에 적응하지 않으면 뒤처질 만큼 치료 기술 및 의료 장비의 발달은 눈에 띄게 진화하고 있다. 부정맥 질환 중 심방세동의 치료가 바로 그러하다.

해마다 달라지는 심방세동치료의 변화, 적절한 치료 선택이 중요!



심방세동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질환 중 하나로 부정맥 중 가장 흔하며 주로 고령층에서 발생하지만 40~50대에서는 종종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심방세동은 약 30%가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애매한 증상을 보여 치료 및 진단이 늦어질 수 있는데 방치될 경우 뇌졸중 위험을 5배 이상 높여 사회적 기능 상실이나 신체적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아주 골치 아픈 질환이다. 이러한 심방세동의 치료는 최근 매우 빠른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10년전부터 최근까지의 치료 변화를 살펴보자.

심방세동의 근본적인 치료의 원리는 심방세동을 만드는 불필요한 심장 내 전기 신호를 심장으로부터 격리하거나 소멸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주파를 이용한 열을 통해 불필요한 신호 발생 부위를 태워 버리거나 신호 부위를 심장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과정인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이 있어 왔다.



백주열 전문의 시술 모습

이 치료의 장점은 심장 내 다양한 부위의 선택적 절제술이 가능해서 모든 급, 만성 심방세동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며 현재까지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치료법이지만 시술 시간이 길고 열에 의한 시술 핵증이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2018년 이후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 온도를 내리는 냉각 기법을 통해 심장 내 신호 부위의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냉각풍선도자 절제술이 도입되었다. 고주파전극도자 절제술이 부정맥 유발 신호를 하나하나 찾아 열로 태우는 방식이라면 냉각풍선도자 절제술은 폐정맥 입구를 특수 고안된 풍선으로 막고 영하 80~90도까지 열려 한꺼번에 조직을 괴사시키는 방식이다. 시술시간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고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 뒤를 이어 최근 새로운 기전을 이용한 펄스 장 절제술이 도입되었다. 이 방법은 열에너지가 아닌 펄스 장 에너지를 이용해 심장에 미세한 천공을 만들어 주변 조직은 보존하면서 목표인 심근세포만 사멸시키는 치료법이다. 시술시간도 기존 방법보다 20~40% 더 단축되었으며 식도나 횡격막 신경 손상 등 주변 장기의 부작용도 현저히 줄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최신 시술적 치료 방법 그 어떤 것도 약물 치료와 비교하여 그 치료 효과가 우수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는 심방세동의 시술적 치료 방법이 약물 치료에 효과가 없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이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냉각 풍선도자 절제술과 펄스 장 절제술은 심방세동 초기 환자(발작성 심방세동)에게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오래된 심방세동(지속형 심방세동)을 가진 환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조만간 열을 이용한 고주파 절제술과 펄스 장 절제술 동시 치료가 가능한 이중 에너지(dual energy) 방법이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심방세동의 치료 방법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최신 치료 방법이 반드시 좋은 치료는 아닐 수 있으며 각각의 치료의 장단점 및 적용 범위를 고려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전문의와 상의하여야 한다. 변하지 않는 사실은 증상이 뚜렷하지 않다고 하여 심방세동을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임한결
KH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지부 가정의학과 진료과장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식생활
과 생활환경이 달라지면서 당뇨병
환자의 연령대가 넓어지고 있다.
당뇨병은 예방이 우선이다.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올바르게
하고, 신체 활동과 운동을 규칙적
으로 하며,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누구나 조심하고 관리해야 하는 당뇨병



당뇨병 진단 기준

정상 혈당은 8시간 이상 공복 후 혈장포도당 100mg/dL 미만, 또는 75g 경구포도당부하검사 2시간 후 혈장포도당 140mg/dL 미만이다. 당뇨병은 당화혈색소(HbA1C)가 6.5% 이상이거나, 8시간 이상 공복 후 혈장포도당 126mg/dL 이상, 75g 경구포도당부하검사 2시간 후 혈장포도당 200mg/dL 이상일 때, 혹은 다뇨, 다증, 설명되지 않는 체중감소가 있으면서 무작위 혈장포도당 200mg/dL 이상일 때 진단하게 된다.

당뇨병 검사 대상

최근 국내 소아청소년에서 당뇨병 전 단계 및 당뇨병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35세 이상 성인과 위험인자가 있는 19세 이상 성인에게는 당뇨병 선별 검사를 권고한다.



당뇨병 관리 방법

생활습관 교정 교정 당뇨병 전 단계 성인에서 당뇨병의 발생을 줄일 수 있으며 의학 영양요법은 당뇨병환자의 당화혈색소를 0.3~2.0% 낮추고 체중과 허리둘레를 줄이고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조절할 수 있다.

체중감량 과체중이거나 비만한 성인은 체중을 5% 이상 감량하고 전체 열량 섭취를 줄여야 한다. 탄수화물은 총 에너지 섭취량의 55~65% 이하로 줄이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통곡류, 콩류, 채소, 생과일, 유제품의 형태로 섭취해야 하며, 설탕·시럽 등이 포함된 탄산음료나 스포츠음료, 커피음료, 농축과즙으로 만든 과일주스 등은 중단할 필요가 있다.

당류 섭취 제한 대체당류 등 비영양 감미료는 단기간 당류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두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당뇨병 위험인자

- 과체중 또는 비만(체질량지수 23kg/m² 이상)
- 복부비만(허리둘레 남성 90cm, 여성 85cm 이상)
- 부모, 형제자매 중 당뇨병이 있는 경우
- 임신성 당뇨병
- 고혈압(140/90mmHg 이상 또는 약물 복용)
- HDL 콜레스테롤 35mg/dL 미만, 또는 중성지방 250mg/dL 이상
- 심혈관질환(뇌졸중, 관상동맥질환)
- 공복혈당 100~109mg/dL 또는 당화혈색소 5.7~6.0%인 경우 매년 공복혈당 또는 당화혈색소 검사 필요
- 공복혈당 110~125mg/dL 또는 당화혈색소 6.1~6.4%인 경우 추가 검사 필요.

영양제 섭취 오메가3 등 불포화지방산 보충제나 비타민, 무기질 등 미량영양소 보충제는 권고하지 않으며 혈당 개선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식품이나 식물(알로에베라, 계피, 커큐민, 돼지감자, 여주 등) 역시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권고하지 않는다.

규칙적인 운동 운동은 혈당조절에 도움이 되고 심혈관질환 위험을 낮출 수 있으며, 당뇨병 고위험군에서는 당뇨병 예방 효과가 있다. 중강도 이상의 유산소운동과 근력운동을 병행해 일주일에 150분 이상, 적어도 3일 이상 실천해야 하며 2일 이상 운동을 쉬지 않도록 한다.

신체 활동 한 번에 오래 앉아 있지 않도록 하며 30분 간격으로 잠시 걷거나 활동하는 것도 혈당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에어리퀴드 CEO와 외자유치·그린에너지 협력 논의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외자유치 확대를 위한 유럽 출장의 첫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를 방문, 글로벌 기업 에어리퀴드의 프랑수아 자코 CEO와 만나 충남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지난 7월 24일(현지시각) 오전, 파리 에어리퀴드 본사에서 자코 CEO와 간담회를 갖고 도내 외국인 투자 확대, 청년 인력 수급, 그린에너지 육성 정책 등 다양한 현안을 주제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도내 폭우 피해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할 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출장길에 올랐다”며 “에어리퀴드의 충남 투자는 매우 탁월한 결정이며, 도의 정책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도가 적극적으로 해결을 돕고, 추가 투자 계획이 있다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프랑수아 자코 CEO는 김 지사의 방문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단기적 자연재해 대응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탄소 저감을 통한 기후 대응이 핵심”이라며 “에어리퀴드는 수소 등 그린에너지에 집중하고 있으며, 충남도의 관련 정책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화답했다.

또 자코 CEO는 도내 청년 인력 수급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고, 이에 김 지사는 “필요하다면 계약학과 운영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응답했다.

이날 간담에서는 내년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계기로 프랑스 기업과 충남 간 의미 있는 공동사업 추진 가능성도 논의됐다. 자코 CEO는 관련 협력 제안을 건넸고, 김 지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두 사람의 간담은 약 1시간 30분 동안 이어졌다. 특히, 미국 관세 문제를 비롯한 글로벌 정치·경제 이슈, 프랑스와 대한민국의 산업 전망 등 폭넓은 주제로 대화가 이어졌다.

에어리퀴드는 산업·의료용 기초 및 특수가스를 공급하는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우주항공 등 주요 산업에 고순도 희귀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충남에는 1998년 천안에 첫 공장을 설립한 이후 지속적인 설비 확장을 통해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해왔다.



최민호 세종시장 K뷰티 핵심기업 '나우코스' 찾아가 소통

최민호 세종시장이 지난 7월 7일 소정면 첨단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나우코스 세종 제2공장을 찾아 기업 현장에서 생생한 소통을 나눴다. 화장품 제조 전문기업 나우코스는 지난해 'K-뷰티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화장품 제조 분야에서 주목받는 중소기업이다.

최민호 시장은 나우코스 세종 제2공장에서 임직원 및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추후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생산현장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의 작업 현장을 둘러보며 근무 여건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외국인 기술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제품 시연에 참여한 최민호 시장은 리프팅 앰플을 직접 얼굴에 발라보며 “사용해 보니 나에게 꼭 필요한 제품인 것 같다”며 딱딱한 분위기를 웃음으로 풀기도 했다.

이어 최 시장은 “우리 기업이 만든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도 사랑받을 수 있도록 기업의 기술개발과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한국폴리텍대학,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과 함께 올해 말 조치원읍 일원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술 교육 과정 및 전문 강좌를 운영하는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간담회 이후에는 첨단산단 내 입주기업협의체와 함께 조성한 아야목 소류지 상생정원 현장을 살펴보며 환경 개선 현황을 점검했다.



최근 시는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산책·여가 활동을 위해 아야목 소류지에 목교를 설치, 쉼터 기능을 강화했다.

한편 나우코스는 지난 2020년 세종시 기업대상을 수상하고 2023년 세종시 일자리 창출 유공 기업으로 선정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지역 대표 기업이다.

소정·전의면 내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지원과 보육원 보호아동 대상 견학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펼치면서 지역사회와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

나우코스 세종 제1공장에서는 반려동물 샴푸 등 애완동물 제품을, 제2공장에서는 화장품을 전문 생산하며 사업 다각화를 통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조원희 대전시의회 의장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할 것”



조원희 대전시의회 의장은 9일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의정성과와 방향을 말하면서 “관행에 얹매이지 않고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의회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고 부당·부패에 취약한 업무방식을 개선하겠다”면서 이같이 약속했다.

대전시의회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은 바 있다.

또한 “도시브랜드의 중요성이 커진 글로벌 시대에 도시마케팅 의원연구모임을 통해 대전의 문화자산을 집중 발굴·육성하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대전이 도시브랜드 평판 5개월 연속 1위에 올랐고, 빵지 순례 명승지로 떠오르는가 하면 꿈씨 패밀리 캐릭터의 선풍적 인기와 KBO(한국야구위원회) 역대 최다 연속 홈경기 매진 등 노잼도시에서 꿈잼도시로 변모하고 있다”면서 “도시 이미지 개선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의회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조성, 충청권광역철도 추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반도체종합연구원 설립 등 산적한 지역 현안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집행기관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조 의장은 “오롯이 대전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만 생각하며 신뢰와 연대, 포용과 감동의 의정을 구현하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성현 의장은 “이번 의정대상 시상은 충남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뛰어 주신 의원들께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상으로,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일하는 충청남도의회’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의정활동 우수 의원에 대한 정기적인 시상을 통해 모범적인 지방의회상을 정립하고, 의원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대상 시상 의원은 다음과 같다. ▲신영호 ▲이용국 ▲조철기 ▲안종혁 ▲안장현 ▲박미옥 ▲신순옥 ▲윤기형 ▲정병인 ▲유성재 ▲이상근 ▲이현숙 ▲김민수 이상 13명.



의원 13명에 의정대상 시상… “모범적 지방의회상 정립”



충남도의회는(의장 홍성현)는 지난 7월 29일 지난 1년여간 의정 및 지방자치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 등에 공헌한 우수 의원 13명에게 의정대상을 수여했다.

이번 시상은 '포상 조례'에 따라 의정활동을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시상하는 제도로 입법활동, 정책연구, 참여와 소통, 정책 제안 등 총 4개 부문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선정 대상은 ▲우수조례 대표발의 ▲우수 연구모임 ▲본회의 출석율 및 안건 처리율 ▲우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등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의원들을 선정했다.

의정대상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각 부문별(참여와 소통 제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심사기준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단순한 양적평가가 아닌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연계성, 정책 전문성, 효과성 등 질적평가만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입법활동 분야 3명, 정책연구 분야 3명, 참여와 소통 분야 4명, 정책제안 분야 3명 등 총 13명이 선정됐다.

홍성현 의장은 “이번 의정대상 시상은 충남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뛰어 주신 의원들께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상으로,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일하는 충청남도의회’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의정활동 우수 의원에 대한 정기적인 시상을 통해 모범적인 지방의회상을 정립하고, 의원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대상 시상 의원은 다음과 같다. ▲신영호 ▲이용국 ▲조철기 ▲안종혁 ▲안장현 ▲박미옥 ▲신순옥 ▲윤기형 ▲정병인 ▲유성재 ▲이상근 ▲이현숙 ▲김민수 이상 13명.



‘2025 대전교육정책개발 토론회’ 개최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7월 16일 KW컨벤션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교육전문직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대전교육정책개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정책의 수요자인 교육공동체가 함께 정책을 구상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장으로, 교실수업혁신, 디지털교육, 학교업무경감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실행 전략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토론회에 앞서 온라인 공모를 통해 접수된 총 80여 편의 정책 아이디어는 소그룹 토의 과정에서 교육현장 중심의 실질적 과제로 구체화됐다. 이날 논의된 과제들은 오는 9월 주제별 전문가 평가회를 거쳐 각 사업부서에 안내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교육수요자의 목소리가 실제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계가 이루어진다.

이날 토론에 학생 대표로 참여한 대전탄방중학교 김민하 학생은 “내가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에 많은 분들이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하고 뿌듯했다”며 “친구들에게도 교육정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자고 권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곽정아 대전성룡초등학교 교사는 “학생, 학부모님과 함께 소통하며 교육을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느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대전교육정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교육공동체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현장에 꼭 필요한 정책을 발굴해 미래교육체제 전환을 준비하겠다”며 “대전의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행복한 교육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늘봄교육 생태계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갈 터



충남교육청은 지난 7월 25일 호서대학교 아산캠퍼스 성재홀에서 천안·아산 지역 학생과 보호자를 위한 교육체험 축제인 ‘2025 충남 제1권역 라이즈(RISE) 늘봄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1000여 가족 3000여명이 함께했다.

26일까지 이어지는 이 행사는 충남형 늘봄학교 정책의 이해를 높이고, 5개 대학(호서대, 상명대, 유원대, 단국대, 연암대)이 함께 준비한 대학 연계 라이즈(RISE) 늘봄 프로그램을 소개·확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실시되었다.

특히 ▲인공지능(AI) 코딩 체험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환경 탐험대 ▲스포츠 챌린지 ▲웹툰 크리에이터 ▲독서 탐험대 등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20개内外의 체험공간이 운영되었다.

이날 선포식에서 김지철 교육감은 “지자체, 지역 단체, 마을, 학부모 등 지역의 다양한 자원이 함께 어우러져 우리 아이들이 학교 안팎에서 살아 있는 배움을 경험하고, 둘봄과 성장을 온전히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앞으로도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과 학교, 마을이 손잡고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늘봄교육 생태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조규식 서구의회 의장 제14회 도전페스티벌 '모범 의회상' 수상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에 기여
대전 서구의회 조규식 의장이 7월 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14회 도전페스티벌'에서 모범 의회상(기초의회 의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로 14회를 맞은 도전페스티벌은 김대식 국회의원실과 도전한국인운동본부, (사)도전한국인본부, 대한민국청년협의회, 세계도전재단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사)대한노인회 서울연합회, 코리아헤럴드 등이 후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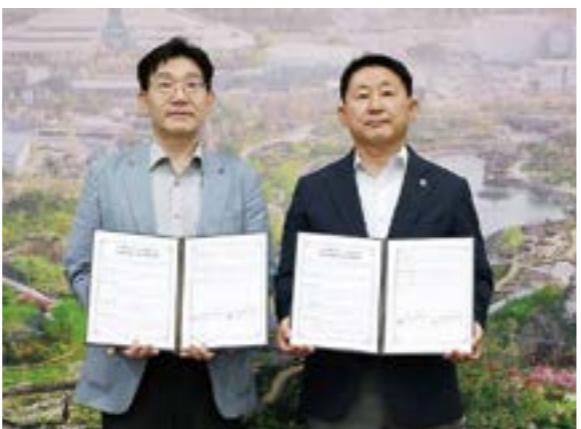
도전페스티벌은 대한민국의 도전정신을 기리고 국민통합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행사로, 사회 각 분야에서 모범이 되는 인물과 기관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조 의장은 기존 관행에 머물지 않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적극적인 주민 소통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며, 협치를 통해 주민 화합과 국민통합의 가치를 실천해온 도전정신이 높이 평가됐다.

조규식 의장은 "이번 수상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서구의회 의원과 직원, 그리고 늘 응원해주시는 서구민 여러분 덕분이다"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서구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용회복위와 금융 취약계층 지원



대전 서구는 신용회복위원회 대전·충청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금융 취약계층 지원에 나선다고 지난 7월 22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서구는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 세대를 적극 발굴해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을 요청하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워크아웃,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서비스를 제공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오는 28일 동 행정복지센터의 복지팀장과 담당자를 대상으로 금융 취약계층 관리 역량 강화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협약은 지난 9일 과중한 채무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모자사망 사건이 일어난 데 따라 신속히 추진됐다.

이승록 대전·충청본부장은 "서민금융 안정을 위한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소명 의식을 갖고, 상담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서철모 구청장은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한 채 고립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종구통(通)으로 신청하세요"



대전 중구는 지난 7월 16일 중앙로 지하상가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종구상상품권 종구통(通) 신청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종구통(通)으로 신청하세요!'라는 슬로건 아래, 종구통 신청과 지역화폐 사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제선 중구청장을 비롯해 종구통장협의회, 홍보마케터, 지하상가 상점가 상인회, 종구청 일자리경제과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여해 지하상가를 찾은 방문객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신청 방법과 혜택을 안내했다.

특히, 비활성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1:1로 직접 방문해 종구통 사용 방법을 설명하고 가맹점 가입을 독려하는 활동도 함께 진행됐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주민과 상인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종구통(通)'으로 신청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와 지원으로 종구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역 상권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중앙로 지하상가의 총 440개 점포 중 223개 점포가 종구통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미가맹점들의 참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세대통합 어울림센터' 첫 삽



대전 동구 세대통합 어울림센터 조성이 본격화됐다. 27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 7월 24일 신흥동 272번지 일원에서 '세대통합 어울림센터' 기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박희조 동구청장을 비롯해 지역 주민, 시·구 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세대통합 어울림센터 조성의 비전과 의미를 공유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다짐했다.

'세대통합 어울림센터'는 지난 2022년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에 선정돼 추진 중인 사업이다. 총사업비 160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4059㎡ 규모로 조성되며, 2027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센터는 ▲1층 육아종합지원센터 ▲2층 북카페 ▲3층 건강생활 지원센터 ▲4층 주민 공유공간 등으로 구성돼,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복합시설로 운영될 예정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세대통합 어울림센터는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을 이끄는 복합 커뮤니티 공간이자, 원도심의 부족한 문화·복지 인프라를 보완할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공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는 주민설명회 개최, 기본 및 실시설계, BF(Barrier-Free) 예비인증, 정비구역 변경 등 사전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완료했으며, 이번 센터 조성을 통해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의 토대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최우수상 쾌거



대전 유성구가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경북연구원이 개최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159개 기초 지자체에서 401개 사례를 출품해 경합을 벌였다.

유성구는 '마을의 문화사랑방,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으로 공동체 강화 분야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유성구는 2019년 도시재생 분야, 2021년 반부패·청렴, 2023년 공동체, 2024년 일자리·고용 환경 분야에 이어 지방선거로 열리지 않은 2022년을 제외하고 4회 연속 최우수의 영예를 안았다.

지역 서점을 독서·강연·북토크·전시·치유 프로그램 등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공동체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진화시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공도서관과 지역 서점 간 연계 프로그램, 독서문화 진흥사업, 지역 출판 연계 행사 등 10여년 넘게 축적한 정책의 일관성도 이번 수상의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

유성구는 2019년 '지역 서점과의 협력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2024년에는 '지역 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지역 서점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생각이 자라는 공동체의 중심"이라며 "서점·도서관·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 기반을 다져 책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시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환경대상 '탄소중립' 부문 본상 수상



대전 대덕구는 '2025 대한민국환경대상'에서 탄소중립 분야 본상을 받았다고 지난 7월 21일 밝혔다.

대덕구는 주민 주도 탄소중립 실행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기후·환경·에너지 정책사업을 선제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한 점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구는 2023년 7월 오정동 대덕지역에너지센터를 조성해 에너지 카페, 넷제로 공판장 운영 등 다양한 주민주도 사업을 추진하는 등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 왔다.

또한 2023년 환경부 주관의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 공모'에 선정돼 취약계층 113가구를 대상으로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냉방기기 등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진행한 점도 호평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최충규 구청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환경 실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한민국환경대상위원회가 주최하고 환경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가 후원하는 대한민국환경대상은 2005년 처음 제정돼 올해로 20회째를 맞았다.



유성선병원, 인지증재치료 '슈퍼브레인H' 치료 시행



유성선병원은 심뇌혈관센터에서 인지기능 저하를 겪는 환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인지증재치료 프로그램인 '슈퍼브레인H'를 도입해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치료는 디지털 기반의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활용해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 실행 기능 등 여러 인지 영역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태블릿PC를 이용해 병원뿐 아니라 일상 속 원하는 장소에서도 훈련이 가능하며 게임형 콘텐츠와 시각적 자료로 구성돼 환자가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전담 의료진 지도로 개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훈련이 이뤄지며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인지기능 향상과 치료 만족도 및 순응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조성래 센터장은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인지장애 및 치매에 대한 예방 및 치료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인지증재치료는 초기에 인지 저하를 발견하고 개선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6차 폐렴 적정성 평가서 1등급



건양대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제6차 폐렴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고 지난 7월 2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폐렴으로 입원해 항생제 치료를 받은 만 18세 이상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599곳에서 이뤄졌다.

주요 평가 항목은 산소포화도 검사 실시율, 종종도 판정 도구 사용률, 객담 배양검사 처방률, 첫 항생제 투여 전 혈액배양검사 실시율, 병원 도착 8시간 이내 항생제 투여율 등 총 6개 지표다.

병원은 이번 평가 모든 항목에서 전국 평균 82.9점을 웃도는 100점 만점을 받았다.

호흡기내과 권선중 교수는 "이번 성과는 환자 한 분 한 분에게 표준화된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의료진이 원팀으로 협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최신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정확한 진료와 신속한 치료로 지역사회 폐렴 환자 건강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건축·주택 민원 상담실' 홍보 나서



충남 청양군이 고령층과 원거리 주민들의 건축 민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중인 '찾아가는 건축·주택 민원 상담실'에 대한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 서비스는 군민들이 군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인근 면사무소에서 건축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군은 "서비스 시행 이후 아직 이를 모르는 주민들이 많다"며 "이용률 제고를 위한 집중 홍보를 시행한다"고 지난 7월 29일 밝혔다.

상담실은 매월 둘째·넷째 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운영된다. 둘째 주에는 정면사무소(산동 권역), 넷째 주에는 화성면사무소(산서 권역)에서 각각 진행되며, 필요 시 현장 동행 담사도 가능하다. 상담은 청양군청 건축팀장과 지역 건축 전문가가 직접 진행하며, 복합적인 사안은 관련 부서와 연계해 후속 조치도 안내한다.

주요 상담 내용은 △건축허가·신고 절차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건축물 해체·빈집 정비 절차 △슬레이트 처리 사업 △농지·산지 등 복합 민원 연계 △주택 응자·각종 건축 지원사업 안내 등이다. 현장에서 즉시 해결 가능한 민원은 당일 처리도 가능하다. 별도의 예약 없이 운영 시간 내 자유롭게 방문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건축 민원은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인 만큼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 활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 위·수탁 협약' 간담회 개최



충남 계룡시는 지난 7월 23일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을 위한 지방상수도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업무협약 간담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종우 시장을 비롯해 이종식 K-water 금강유역본부장, 신성희 금강유역협력단장 등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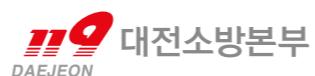
이번 정비사업은 상수도 유수율 제고와 사고 발생 시 단수구역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누수탐사와 복구, 노후 상수관망 정비, 블록시스템 및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해 체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총 41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년간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4년간은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상수도관의 정확한 위치 파악과 신속한 복구가 가능해져 누수량과 복구비가 줄고, 단수로 인한 시민 불편도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노후 상수관망 정비를 통해 그간 반복되던 적수 민원도 상당 부분 개선될 전망이다.

K-water는 국가상수도 정책사업은 물론 23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 등 전국 111건의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수행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계룡시 최초의 정비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종우 시장은 "K-water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불편을 줄이고 물 복지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하철 역사 화재안전관리 총력 대응



대전소방본부는 8월부터 9월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역사 화재안전관리 대책'을 집중 추진한다고 지난 7월 3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대전 시내 지하철 1호선의 22개 역사에 대해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지하철 운영 관계자의 자율적인 안전 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추진 내용은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한 현장 중심 안전 컨설팅 ▲소방서장 주관 지하 역사 안전 점검 ▲최근 사고 사례 공유 및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배포, ▲화재 발생 시 대피 동선 확보 및 초기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실전형 소방 훈련 등이다.

대전소방본부는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하철 역사 내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김문용 대전소방본부장은 "지하철은 하루 수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중요한 교통시설인 만큼, 사전 예방과 대응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빈틈없는 화재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에스컬레이터 실시간 복합 살균기' 기술계약 체결



대전교통공사(사장 연규양)는 지난 7월 25일, 본사 종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쭈편투미(대표 박경호)와 '실시간 적외선 복합 표출 핸드레일 살균기' 기술 계약을 체결하고, 동반상생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계약은 에스컬레이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손잡이 위생에 대한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공동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해당 기술은 에스컬레이터 이용객이 손잡이 살균 상태를 실시간 관찰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위생에 대한 신뢰성과 함께 핸드레일 이용률을 높여 고객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와 쭈편투미는 지난해부터 '성과공유제'를 바탕으로 신제품 개발, 판로 개척,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우수한 중소기업 상생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기술 계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동 특허 출원을 진행했으며, 철도 및 공항, 백화점 등 국내외 다양한 시설로 제품 판매를 확대해 수익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연규양 사장은 "공사의 아이디어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혁신기술이 있는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이루는 혁신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으며, 쭈편투미 박경호 대표도 "안심하고 탑승할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 이용 문화를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선양소주

선양소주 2025 지역사랑 장학금 전달 -누적 장학기금 9억 원돌파



대전시 장학금을 시작으로 세종·충남 각 시·군에 전달 계획

(주)선양소주는 지난 7월 8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재)대전청년내일재단에 대전사랑 장학기금 7188만 6600원을 전달했다.

선양소주는 지난 2019년부터 지역 사회 환원을 위해 지역사랑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다. 기금은 선양과 선양린 소주 한 병당 5원 씩 조성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9억 1085만 4560원을 전달했다. 목표 금액은 총 40억 원이다.

올해 대전청년내일재단에 전달한 장학기금은 대전시(2112만 1265원)와 5개 자치구(5076만 5335원)에 균등 분할돼 지역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선양소주는 대전시를 시작으로 세종과 충남 각 시·군에도 장학금을 순차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지역 기업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가 큰 힘이 된다"라며 "대전의 미래세대가 대전을 사랑하고 도전하도록 지역인재육성에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규식 선양소주 사장은 "우리 소주를 마시는 선택이 단지 소비를 넘어, 누군가의 미래에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역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kr 농어촌공사

충남-충북본부 예산 침수피해현장 찾아 복구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와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7월 23일 예산군 고덕면 일대의 수해 피해 현장을 찾아 침수 주택 복구 활동 및 수로 정비 등 현장 복구를 위해 힘을 보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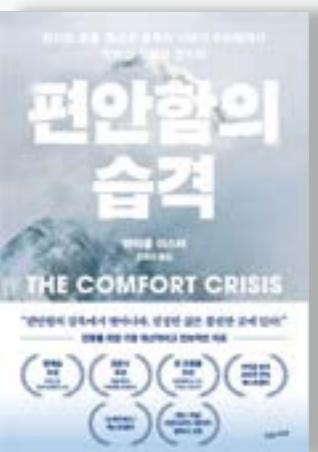
이날 충남지역본부 및 충북지역본부의 직원 40여 명은 예산군 고덕면의 주택가를 찾아 침수된 가전, 가구 등 폐기물을 정리하고 마을 주변의 집중호우로 떠내려온 생활폐기물 및 영농폐기물 등 수거활동을 실시하며 피해 주민들의 아픔을 덜어주고자 땀방울을 흘렸다.

이민수 충남지역본부장은 "우리의 복구 지원활동이 수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수해를 입은 지역이 빠른 시일 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복구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흔모노 저자 성해나

작가의 첫 소설집 『빛을 걸으면 빛』(문학동네 2022)에서 타인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부드럽고 따스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첫 장편소설 『두고 온 여름』(장비 2023)에서 오해와 결별로 얼룩진 과거에 애틋한 인사를 견디고자 했던 그가 『흔모노』에 이르러 더욱 예리해진 문제의식과 흡인력 넘치는 서사를 통해 지역, 정치, 세대 등 우리를 가르는 다양한 경계를 들여다보며 세태의 풍경을 선명하게 묘사해낸다. 특히 이번 소설집에는 지난해 끊임없이 호명되며 문단을 훔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표제작 「흔모노」를 비롯해 작가에게 2년 연속 젊은작가상을 선사해준 「길티클립: 호랑이 만지기」, 이 계절의 소설과 올해의 문제소설에 선정된 「스무드」 등이 수록되어 더욱 눈길을 끈다. “작가의 ‘신명’이라 불”릴(추천사, 이기호) 만큼 “질투 나는 재능”(추천사, 박정민)으로 빛나는 『흔모노』, 그토록 기다려왔던 한국문학의 미래가 바로 지금 우리 앞에 도착해 있다.



편안함의 습격 저자 Easter, Michael 역자 김원진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 모든 실내는 완벽한 온도 조절 시설을 갖추었고, 배고픔을 느낄 새 없이 주변에 먹을 것이 풍족하며, 현대 의학의 발달로 기대 수명은 늘어났고, 생존을 위협할 만한 도전이 딱히 없다. 그러나 과연 편안함은 건강과 행복한 삶을 가져다주었을까?

행동 변화 전문가이자 건강 분야 저널리스트인 마이클 이스터는 북극 알래스카를 비롯해 부탄, 전쟁 지역, 볼리비아 정글 등을 탐험하고, 각 분야 최고의 석학들과 프로 스포츠 선수, 종교 및 환경 지도자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의 전문가를 인터뷰하면서 현대인의 건강과 행복, 의미 있는 삶을 탐구해왔다. 삶을 최적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과학적 전략을 찾아온 그는 인류가 잃어버린 감각, ‘불편함’에서 해답을 찾았다.



안녕이라 그랬어 저자 김애란

소설가 김애란이 『바깥은 여름』(문학동네, 2017) 이후 팔 년 만에 새 소설집으로 돌아왔다. “사회적 공간 속을 떠다니는 감정의 입자를 포착하고 그것에 명료한 표현을 부여하는 특유의 능력을 예리하게 발휘한 소설”이라는 평과 함께 2022 김승옥문학상 우수상을 수상한 『홈 파티』와 2022 오영수 문학상 수상작인 「좋은 이웃」을 비롯해 총 일곱 편의 단편이 수록된 『안녕이라 그랬어』는 강렬한 정서적 호소력과 딜레마적 물음으로 한 세계를 중종적으로 쌓아올리는 특장이 여전히 발휘되는 가운데, 이전보다 조금은 서늘하고 비정해진 김애란을 만날 수 있다.

이번 소설집의 주인공은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다. “많은 학곡 속 사건은 ‘초대’와 ‘방문’, ‘침입’과 ‘도주’로 시작됐다”(『홈 파티』, 42쪽)라는 소설 속 표현처럼, 이번 책에서는 인물들이 누군가의 공간을 방문하면서 이야기가 펼쳐진다.



以松 김재순
(송운철학원 원장)

子生



96년생은 계획했으면 당장 실천 하라. 설마 하는 순간 선수를 빼앗긴다. 84년생은 놀라운 자존심 세우지 말고 당당히 자존감을 지켜야 한다. 72년생은 아니라고 생각할 때 과감하게 단념하는 것도 삶의 지혜이다. 60년생은 사람마다 개성과 특성이 다르니 사람을 비교평가 하지 마라. 48년생은 절대 흥분은 금물이니 최대한 감정을 절제하도록 조심하라.

운세지수 51%. 금전 50 건강 55 애정 50

卯生



99년생은 친해지기 전에 튀는 행동을 하면 상대가 부담을 느낀다. 87년생은 정보싸움이 어느 때보다 철저하니 정보 유출을 막아야 한다. 75년생은 과식을 하듯이 지나친 과욕은 부작용을 가져온다. 63년생은 기준의 낡은 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개혁이 필요하다. 51년생은 명랑한 기분을 잊지 말고 가벼운 운동으로 체력을 유지하라.

운세지수 69%. 금전 70 건강 65 애정 75

午生



02년생은 부모님의 반대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득해야 한다. 90년생은 지금부터가 중요하지 아직은 모든 것이 비관적이지 않다. 78년생은 지금은 상황이 불리하니 다음 기회를 보는 것이 좋겠다. 66년생은 자금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아이디어나 아이템이 부족하다. 54년생은 속도를 줄여라. 성급한 행동은 안전사고에 원인이 된다.

운세지수 82%. 금전 85 건강 80 애정 85

酉生



93년생은 막연하게 있기보다는 먼저 확실한 목표 설정부터 해야 한다. 81년생은 문제의 근원만 보지 말고 큰 틀에서 파악해 보기 바란다. 69년생은 무리하게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노는 것 이 더 이익이다. 57년생은 확신이 없을 때는 능력 있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라. 45년생은 자연의 이치니 모든 게 내 마음 같지 않다고 한탄하지 마라.

운세지수 93%. 금전 90 건강 90 애정 95

丑生



97년생은 상대에게 적극성을 띠 어라. 혼자 애매우면 짹사랑일 뿐이다. 85년생은 혼자서 하기보다 둘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73년생은 경쟁자를 두려워하기보다 외부의 적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61년생은 시절이 어수선한 것이니 되는 일이 없다고 한탄하지 마라. 49년생은 답답하더라도 지금은 철저하게 혼자 있는 것이 유리하다.

운세지수 94%. 금전 95 건강 90 애정 95

寅生



98년생은 경쟁에서 졌다고 실패한 건 아니다. 더 좋은 기회가 많다. 86년생은 서로 간에 오해가 생겼다면 오래 끌지 말고 바로 풀어라. 74년생은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 먼저 나서지 마라. 62년생은 불가능한 걸 자존심 때문에 고수하지 마라. 어리석은 일이다. 50년생은 이제는 세상을 보는 눈과 생각을 완전하게 고쳐야 한다.

운세지수 36%. 금전 35 건강 40 애정 35

巳生



97년생은 상대에게 적극성을 띠 어라. 혼자 애매우면 짹사랑일 뿐이다. 85년생은 혼자서 하기보다 둘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73년생은 경쟁자를 두려워하기보다 외부의 적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61년생은 시절이 어수선한 것이니 되는 일이 없다고 한탄하지 마라. 49년생은 답답하더라도 지금은 철저하게 혼자 있는 것이 유리하다.

운세지수 54%. 금전 60 건강 55 애정 50

未生



00년생은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라.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다. 88년생은 결국은 타협할 것을 자존심 때문에 시간과 손해를 감수한다. 76년생은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부모님 살아생전 효도를 다 하라. 64년생은 소신도 좋지만, 아랫사람 말도 귀담아들어야 할 때가 있다. 52년생은 처음은 좋으나 끝이 나쁠 수 있으니 함부로 결정하지 마라.

운세지수 89%. 금전 85 건강 85 애정 90

申生



04년생은 집중력은 시간 절약에 좋은 보약이지만 이것이 부족하다. 92년생은 꼭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 중에서 조화를 찾아야 한다. 80년생은 아니란 확신이 들면 빨리 접는 게 손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68년생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모두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마라. 56년생은 지금은 지키는 게 중요하다.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라.

운세지수 42%. 금전 40 건강 35 애정 40

亥生



95년생은 변치 않는 믿음과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기다려보아라. 83년생은 상황은 항상 변하니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라. 71년생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동반되었다면 결실이 있겠다. 59년생은 신중하라. 자녀들에게 확신을 주는 듯한 장담은 금물이다. 47년생은 물러날 때와 나설 때를 아는 게 존경받는 어른의 역할이다.

운세지수 34%. 금전 35 건강 30 애정 35